

#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요분석 및 일자리 연계방안 연구

| 연구진 | 이중섭 · 송용호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Jthink 2014-PR-14

#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요분석 및 일자리 연계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요분석 및 일자리 연계방  
안 연구 / 연구책임: 이중섭 ; 공동연구: 송용호. -- 전  
주 : 전북발전연구원, 2014  
p. : cm. -- (Jthink : 2014-PR-14)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6612-121-2 93330 : 비매품

사회 복지 정책[社會福祉政策]  
일자리  
전라북도[全羅北道]

338.9-KDC6  
361.8-DDC23

CIP2016000603

## 연구진

---

연구책임 이 중 섭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송 용 호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

연구관리 코드 : 14JU01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요약 및 정책제언

## I. 연구개요

### □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2007년부터 도입된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시간병방문 사업을 비롯하여 장애인이동재활, 언어발달치료 등 다양한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가 제도화되어 약 65만명(2011년 기준)이 신청하는 보편적 서비스의 외형을 갖추
-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성숙은 신사회적 위험의 출현과 사회양극화의 심화라고 하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의해 추동되었지만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투자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유인하는 중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2000년대 초반부터 상당한 복지예산이 투자되었지만 복지기관을 매개로한 공급자 중심의 간접지원으로는 다양한 양태로 진행되는 사회적 수요를 충분히 수렴할 수 없고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복지수요의 급증에 따른 사회적 돌봄에 대응하면서 수요자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상자 직접지원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하고 있음
- 특히, 복지수요의 증가와 이로 인한 복지재정의 확대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전략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 지역의 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이 부족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수요를 반영한 복지사업의 설계나 추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역복지의 상당한 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 재정배분 체계를 가지고 있어 지역에서는 맞춤형 복지설계가 가능한 사업임

- 물론 바우처 정책의 선형적 사례에 비추어 보면, 보편성과 평등성을 가치로 출발하는 복지국가의 배분형태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철학적 논쟁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음
- 다만 바우처 방식이 효율성을 앞세운 복지서비스의 시장화와 이로인한 불평등한 복지 접근성이라고 하는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혜자 직접지원을 통한 복지권의 합리적 행사와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부여를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긍정적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

## □ 연구방법 및 과정

-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요분석과 일자리 연계방안 연구를 위해서 크게 4가지 연구방법을 활용
- 첫째 사회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6대 바우처사업의 주된 수요대상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의 인지, 유망사회서비스의 이용의사 및 비용 지불의사, 사회서비스의 적정이용비용 등을 조사
- 둘째,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현재 근무환경, 구직방법 및 경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을 조사, 전라북도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
- 셋째, 잠재적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욕구를 조사할 예정이고, 사회서비스 잠재적 제공기관인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질적 조사를 통해서 탐색적으로 분석
- 전라북도의 경우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는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제공기관의 부재로 인해 충분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
- 농촌지역은 사회서비스의 주된 제공기관인 기존 복지기관의 인프라가 매우 부족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총량을 확대하는데 는 일정한 한계를 가짐
- 따라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잠재수요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와 더불어 농촌지역에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창업이나 등록을 통한 사업수행 의향을 조사할 계획



〈표-1〉 연구방법

구분	분석 목적 및 방법
사회서비스 수요분석	분석목적 : 사회서비스 바우처 분야 수요파악 분석자료 : 전라북도 일반가구 약 1500가구 조사(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노인, 장애인)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의사 및 비용부담여부 등 시장성 조사 진행
제공인력 조사	분석목적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인력 특성, 취업경로 분석을 통한 일자리 연계 방안 도출 분석자료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인력 약 201명 조사(제공인력의 학력, 자격증여부, 교육과정, 취업경로 등)
잠재 제공인력 조사	조사목적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취업의사, 희망급여 및 근로시간 등 조사를 통한 사회서비스 가용인력 파악 조사대상 : 전라북도 30대~50대 여성 약 800여명
유망서비스 직종조사	조사목적 :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유망직종의 관련 자격증 파악을 통한 직업훈련 연계 방안 도출 조사대상 : 산업인력공단 및 직업능력개발원 국가, 민간자격증 현황(복지, 교육, 상담, 재활, 치료 등)

- 마지막으로 유망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유망직종에 요구되는 전문 자격증을 비교분석
- 자격증에 대한 분석은 현재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제공인력에게 요구되는 법적인 자격요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유망사회서비스로 분류된 사업의 민간자격증의 유형과 국가자격증의 유형을 직업능력개발원의 자격증 분류표를 통해서 비교 분석

## Ⅱ.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및 일자리 연계 가능성

### □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고 있는 돌봄과 부양 등의 문제를 국가의 제도적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한 형태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 재활, 직업소개, 지도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는 관련 제도로 정의하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보다는 취약계층으로 수혜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로 개념

〈표-2〉 지역별 복지시설 현황

구 분	내 용
사회복지 기본법 1995.12.30. 제정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관련복지제도"라 함은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복지 기본법 2012.1.26. 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육유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육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자료 : 통계청(2012) 2011년 12월 기준 재구성

- 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공공행정,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까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으로 정의
-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사업은 크게 노인돌봄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고, 현재 사회서비스 정책으로는 그 대상과 범위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를 기준으로 중산층까지 제공되고 있어 광의의 개념을 담고 있음
-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서는 사회서비스를 개인이나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여 협의보다는 광의로 개념화하고 있다. 한편 국제표준산업분류에서 사회서비스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

## □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성장 가능성

- 최근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이 정책적으로 주목받기 까지 90년대 후반 경제위기로 촉발된 실업극복, 근로빈곤층의 자활사업을 필두로 하여 2000년대 이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확대과정에서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한국적 정의가 시도됨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는 일자리 확대 정책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 보육정책 및 아동보호의 내실화 등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처하는 다양한 서비스부분의 제도화와 함께 바우처 방식의 도입을 통해 유효수요를 촉발하고 공급확충이 가능한 새로운 공급구조를 창출하고자 하는 4대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가시화
- 사회서비스 취업자 증가율은 경제성장률 둔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산업의 취업비중은 2007년 15.1%에서 2020년 16.9%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서비스 산업 내에서 사회복지, 위생, 문화부분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사회서비스업은 2004년 12.9%에서 2012년 16.7%로 3.8%p 증가하였다. 특히 사회서비스업의 경우 여성일자리와의 상대적 친화성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에 가장 우호적인 사업으로 평가됨

- 실제로 사회서비스업 중 여성의 비중은 2012년 64.6%에 이르고 전체 여성취업자 중 사회서비스의 비중은 25.8%에 이룸
- 사회서비스업의 특성상 상담이나 재활치료 등 대인적 사회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향후에도 여성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유용할 것으로 전망
- 사회서비스바우처로 범위를 좁혀 일자리 창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업의 총 이용자 수는 2011년 현재 65만명이고, 제공인력은 약 5.5만명 정도 이고, 제공기관도 약 5천여개 수준
-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확대에 의해 재정규모는 바우처사업 개시연도인 2007년 1,874억원에서 2012년 8,796억원으로 469%가 증가했고, 이용자도 같은 기간 357명에서 655명으로 183%가 증가
-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007년 29개 사업에서 출발해서 2013년에는 67개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예산액도 같은 기간 37억원에서 112억원으로 크게 증가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자리수도 2007년 286개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에는 974개로 증가하였고, 서비스 이용자수도 2007년 4,468명에서 2013년 13,200명으로 크게 증가함
- 전라북도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뿐만 아니라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인활동지원 등 여타 바우처사업도 예산과 일자리 그리고 수혜자 수가 크게 증가함

## □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사업 현황 및 정책동향

- 바우처는 구조화된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급여로서 일정하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원을 선택할 수 있는 전이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급여의 한 형태로써 현물 급여와 현금급여가 가진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급여형태임
- 바우처(voucher)는 특정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해주는 일종의 전표로서 소득지원의 한 형태로 돌봄대상자를 돌봄이용자로서 발언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적극적 존재로 대하고자 하는 철학적 배경에서 등장한 형태임
- 복지를 단순한 시혜가 아닌 권리의 시각에서 수혜의 방식을 재구조화한 것이 바우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2000년대 중반부터 사회투자정책의 배경 속에서 확대된 사회서비스 사업은 2007년 4

월 바우처방식인 노인돌보미사업, 중증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시작으로 동년 7월부터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이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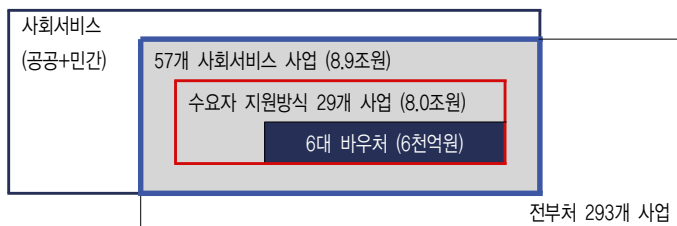
- 2008년부터 전자바우처제도를 통해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보편형 이동투자 사업,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실시되었고, 2012년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6개 사회서비스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표-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현황(2012년 기준)

구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장애아동 재활치료
개요	가사 및 활동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지원	지자체중심 신규서비스 개발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가사 및 간병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	①요양등급 외 A, B ②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1급 장애인 (만6세 이상 만 65세 이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가구 평균소득100% 이하(장애아동)
본인부담금	면제-48천원	면제~95천원	사업별 상이	46~92천원	면제~24천원	무료~6만원
지원수준	월 27시간~36시간	① 월43~183시간 (기보) ② 월10~80시간 (추가)	사업별 상이	2주~4주	월18시간 24시간	주2회 정도

-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의 복지사업은 총 293개 사업으로 이 중 보건복지부를 포함하여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우처사업은 총 57개 사업이고 이 중 보건복지부는 6개 사업을 바우처로 제공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6대 바우처사업은 가사간병방문, 노인돌보미,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임

〈그림 II-1〉 보건복지부 복지사업 및 바우처사업 현황



〈표-4〉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연령 및 소득 기준

	아동		청장년								노인		소득기준	
	0세	5세	6세	7세	10세	15세	19세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65세
가사간병 도우미	[0세~60세]												최저생계비 120%	
산모신생아 도우미	[10세~50세]												월평균소득 50%	
장애아동재활치료	[0세~20세]												월평균소득 100%	
지역사회서비스	[0세~80세]												"	
노인돌봄서비스	[65세~80세]												월평균소득 150%	
장애인활동지원	[10세~60세]												소득무관	

- 전라북도의 사회서비스는 2014년 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바우처사업을 제공하고 있음
- 전라북도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대상가구수를 소득기준으로 만 분류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전북 전체 가구의 8.4%정도가 수혜 대상에 포함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전체 가구의 39.1%, 장애아동재활치료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전북 전체 가구의 69.5%, 노인돌봄서비스는 전체 가구의 84.0%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소득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에 불과하지만 바우처사업은 대체로 기존의 복지수혜의 기준인 빈곤층을 벗어난 평균소득기준의 중산층까지를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 라고 할 수 있음
- 2014년 기준 4인 가족 평균소득 100%가 4,736천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소득 기준은 전라북도 전체 가구의 약 80%이상이 해당
- 따라서 바우처사업은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비영리기관뿐만 아니라 영리기관까지도 운영주체로 참여하여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성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중요
- 중앙정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예산 총액은 2012년 기준 8,097억원이고, 이 중 국비는 5,492억원, 지방비는 2,587억원임
- 6대 바우처의 제공기관을 보면, 노인돌봄서비스가 921개소, 장애인활동지원 849개소, 산모신생아도우미 305개소, 가사간병방문 316개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463개소, 장애아동재활치료 996개소 등 총 4,850개소임

- 최근, 박근혜 정부는 2017년 고용율과 중산층 확대를 위해 사회참여 지원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49만개 추가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R&D, 세제, 정책자금 지원 등의 창업투자지원을 제조업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법을 제정하여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 분류도 신설할 계획
-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유인을 위한 임금체계 마련, 사회서비스 유형별 업무내용 및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를 명시한 서비스 표준안을 마련하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산할 계획
- 특히, 최근에는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도에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기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가 공식법률용어로 대체되었고, 정부가 보장하는 국민의 일상생활영역도 대폭 확대
- 최근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 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9차)에 맞춰 대분류 8, 중분류 15, 소분류 44개로 분류
- 돌봄, 상담 및 재활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유형별로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종합 사회서비스업으로 분류

### Ⅲ.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현황

#### □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현황

-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개괄적인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 등록된 2012년 구직자 수 중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의 구인자는 총 4,836명으로 전체 구직자 72,149명의 6.7%를 차지
- 전라북도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78개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27개소, 산모신생아 도우미 14개소,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94개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0개소,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110개소로 총 453개소 등록 운영
- 전라북도 14개 시군별로 6대 바우처사업의 제공기관 분포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장 많은 전주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14개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7개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임
- 아울러, 산모신생아 방문도우미 제공기관 6개소, 장애아동 치료 제공기관 20개소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13개소임
- 전라북도의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도 도시와 농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주와 군산 그리고 익산 등 도시권에 제공기관이 집중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제공기관은 전주에 17개소, 남원 12개소, 완주 10개소 등이 설치
-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대체로 지역자활센터와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주된 제공기관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지역이 별도의 전문적인 사회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제공기관은 전주에 7개소, 익산 5개소, 정읍에 4개소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제공기관은 주로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과 자활센터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



## □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관련 자원 현황

- 전라북도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 각 시군의 읍면동별 제공기관을 각 사회서비스의 잠재수요인구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먼저 노인돌봄 서비스의 경우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4집단의 경우 도시지역과는 달리 농촌지역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무주군의 경우 무주군내 6개 읍면의 인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전체 제공기관은 2개소밖에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장수지역도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노인돌봄서비스의 제공기관은 총 3개소에 불과
- 가사간병 서비스의 제공기관은 전주가 총 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군산 등의 지역을 포함하여 총 26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이 중 무주와 장수 등의 지역이 인구비율에서 가장 높지만 가사간병서비스의 제공기관은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음
- 특히, 부안은 가사간병서비스 제공기관이 1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사간병서비스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류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전라북도 내에 총 5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 중 전주가 7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익산 5개소, 군산 3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다른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제공기관 분포와 달리 장애인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제공기관이 분포되어 있음
- 무주지역과 장수지역의 모든 읍면 중 장애인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지역에 3-4개의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이 위치
- 이외에도 김제나 완주 등의 지역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애인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에 관련 제공기관이 분포
-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의 제공기관은 전라북도에 총 6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 전주지역이 22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익산 14개소, 군산 13개소 등이 설치
- 하지만 장애아동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인 무주, 장수, 순창 등의 지역은 아직까지 장애아동재활치료 제공기관이 한 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서비스는 전라북도에 총 9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전주에

8개소, 남원에 1개소가 운영 중, 이외 지역은 대부분 관련 제공기관이 한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물론 관련 서비스의 제공기관이 부재한 12개 지역의 경우 전주지역에서 방문형으로 관련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제공인력에 지원되는 출장비 지원의 근로여건이 좋지 않아 농촌지역의 부족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의 인프라를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제공기관을 분류해 보면, 전라북도는 2013년 말 기준 총 110개의 제공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24개소로 가장 많고, 군산 21개소, 익산 10개소 등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로 인해 지역접근성이 이용률 제고에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는 점에서 제공기관이 1개소에 불과한 부안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제공기관 수가 적은 임실, 진안, 무주, 남원 등의 지역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의 잠재적인 제공기관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IV. 사회서비스 바우처와 일자리 정책의 연계

### □ 사회서비스바우처 일자리 수요분석 방법

-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요조사는 6대 바우처의 연령과 소득기준에 기초하여 모집단 인구를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의 이용의향 및 비용지불의향 등을 조사하여 분석
-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일반가구 전체를 모집단으로 수요 추정,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일반가구 중 주된 수요계층인 50세 미만 가구 중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
- 장애인동재활치료서비스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동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지역 사회서비스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이외에도 노인돌봄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원은 65세 이상 노인과 6세 이상 64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
- 다만, 본 조사에서 표본수의 한계로 인해 인력수요 추정이 어려운 장애인동재활치료사업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서비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관련서비스의 수요와 인력수요 추정
- 한편, 수요추정시에는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와 관련하여 수요조사 결과 이용의사가 있는 대상자의 비율로 추정하였고, 표적수요는 비용지불의사가 있는 적극적 수요층의 비율로 추정
- 바우처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련 서비스의 이용과 함께 일정한 본인부담금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 구매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수요추정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함

〈표-5〉 사회서비스바우처 인력수요 추정 기준

	모집단	모집단 규모	최대수요	최소수요
가사간병 도우미	일반가구	1,873,341명 가구응답	소득기준 적용 이용의향을 기준	소득기준적용 비용지불 의사기준
산모신생아 도우미	일반가구 중 50세 미만 여성 가구	신생아 16,175 부모 응답		
장애인동재활치료	만 18세 장애인동	3935명 장애부모 응답		
지역사회서비스	일반가구	1,873,341명 가구응답		
노인돌봄서비스	65세 이상 노인	303,585명 노인응답		
장애인활동지원	6세 이상 64세 미만 장애인	71,474명 장애인 응답		

## □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요조사 분석결과

- 노인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고령노인 및 요보호노인의 증가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요분석 결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 전체 노인의 35.0%는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용지불의사가 있는 적극적 수요는 약 10.6%로 나타남
- 노인돌봄서비스의 이용의사를 기준으로 이용자 수요와 필요인력을 추정해 보면, 14개 시군 전체 노인돌봄서비스 수요는 최소 106,255명에서 최대 109,595명으로 추정됨
- 노인종합돌봄서비스의 수요를 기초로 제공인력 수요를 추정해 보면, 구매의사가 있는 표적시장을 기준으로 분석시 최소 3,633명에서 최대 3,743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현재 제공인력이 1,321명임을 감안하면 현재보다도 약 3배 이상의 인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수요와 일자리 수요를 추정해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의사는 전체 장애인의 72.3%가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극적 수요에 해당하는 비용지불의사는 12.9%로 나타남
- 이 같은 분석결과에 기초할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수요는 최소 4.8만명에서 최대 5.2천명으로 추정됨
- 이 같은 추정치에 근거해서 필요한 일자리 수를 전망해 보면, 최소 3.2천명에서 최대 3.4천명 정도이고, 이 같은 일자리수요는 2014년 기준 전라북도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자가 약 2천명인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수요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물론 수요기준을 도내 장애인 1급과 2급으로 한정할 경우 최대 이용수요는 13,087명 정도로 추정되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약 8,7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임
-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는 실제 수요에 해당하는 임산부에 대한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 보건사회연구원의 유망사회서비스 수요조사(2012)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잠재수요와 인력수요를 추정
- 전라북도의 0세 인구를 기준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서비스의 소득기준인 월평균

소득 50%로 소득기준에 부합한 대상을 추정할 경우 약 6,680명 정도임

- 이중 보건사회연구원의 수요조사시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의 이용의향은 전체 산모의 약 63.1%로 조사되어, 이 같은 분석결과를 전라북도에 적용할 경우 최소 4,215명에서 최대 10,206명으로 추정
- 전라북도의 경우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2014년 기준 2,989명에게 지원되고 있어 최소 수요 기준으로도 현재보다도 약 1.5배정도의 추가수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 아울러 이 같은 수요를 기준으로 향후 필요한 인력을 전망해 보면, 최소 639명에서 최대 1,546명이 될 것으로 보임
- 현재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의 제공인력이 297명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인력전망으로도 현재보다도 약 두배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는 이용의사가 14.5%였고, 비용지불의사는 13.7%였다. 이용의향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높았고, 연령대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가사간병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그리고 농촌보다는 도시지역, 소득기준에서는 생계비 120%이하 계층이 최저생계비 120% 이상 계층보다 수요가 더욱 높게 나타남
- 이 같은 수요분석을 근거로 이용수요를 추정해 보면, 가사간병서비스 이용자 수요는 최소 107,551명에서 최대 236,921명으로 추정됨
- 소득기준만으로 차상위 계층 대상 가사간병 서비스의 수요를 추정할 경우 최소 1.4만명에서 최대 3.2만명으로 예상되지만 제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최소 2.2천명에서 최대 3.1천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임
- 이 같은 수요치를 기준으로 가사간병서비스의 일자리를 전망해 보면, 소득기준으로 관련 분야의 일자리는 최소 5.2천개에서 최대 1.3만개가 되지만 제도 기준으로 일자리를 전망할 경우 최소 809개에서 최대 1,120개가 될 것으로 보임
- 현재 가사간병서비스의 제공인력이 2014년 기준으로 397개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보다도 최소 기준으로 약 두배 이상의 일자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
- 현재 전라북도 도민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의향율은 11.5%이고, 적극적 수요에 해당하는 비용지불의사는 10.0%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욕구는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높았고, 연령대에서는 고령층보다는 청장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용자수를 추정해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이용자는 최소 21.5만명에서 최대 24.7만명으로 추정되고, 비용지불의사를 기준으로 수요를 추정할 경우 최소 2만명에서 최대 2.1만명으로 추정되어 결국 필요한 일자리 수요는 최소 1.3천명에서 최대 1.4천명으로 추정
- 장애아동재활 치료서비스는 의용의향율이 63.0%였고, 비용지불의사는 25.0%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의 이용수요를 추정해 보면, 최소 2,061명에서 최대 2,479명이고, 이를 기준으로 필요한 인력수를 추정해 보면, 최대 294명에서 최대 354명으로 추정됨

##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인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을 중심으로 근무실태와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조사하였고, 분석결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인력의 학력은 고졸 40.5%, 대졸 28.9%, 전문대졸 16.8% 등으로 대부분 고졸학력자가 많았음
- 서비스의 유형별로는 가사간병, 산모신생아도우미의 경우 대부분 고졸이었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대학원이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와 장애아동재활치료의 경우 대졸이상의 학력자가 많은 반면,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는 고졸학력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인력 중 대졸자의 전공학위는 사회복지 33.7%, 심리상담 및 언어치료 2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인력의 근무기간은 5년 이상이 28.9%로 가장 높았고, 3년이상 5년 미만도 20.1%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업유형별로는 노인돌봄과 가사간병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의 근무기간이 다른 사회서비스 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인력의 근무형태는 비정규직이 85.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 있고, 월평균 근무시간은 108.1시간, 주당 27.2시간이었고,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인력의 현재 급여수준은 한 달 평균 92.1만원이었지만 희망급여수준은 137.9만원이었음
- 서비스의 유형별로는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았고 157.2만원, 다음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1.0만원 등의 순이었음, 다만 노인돌봄서비스의 월평균 급여가 78.3만원으로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남
  -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교육자격증으로는 예술치료사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언어치료사 등이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많았음
  - 사업형태별로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복지사와 예술치료사 자격증 소지자가 많았고, 가사간병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요양보호사, 노인돌봄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도 모두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많았음
  -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의 경우 예술치료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언어치료사 등이 다른 자격증보다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격증의 취득방법으로는 대학교 전공이 92.3%로 가장 많았고, 일반사설학원 7.7%, 지자체 위탁교육 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업유형별로는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 대학전공이 83.3%, 가사간병과 노인돌봄은 일반사설학원, 장애아동재활치료와 장애인활동지원은 대학교 전공과 위탁교육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바우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으로는 제공인력의 급여인상이 3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혜자 인식전환 23.2%, 고용안정성 2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근로조건개선과 수혜자의 인식전환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임

## V.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연계방안

### □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취득과정 및 일자리 연계

-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경우 사회환경의 변화로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관련 일자리는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사회서비스분야는 치료와 재활을 강조하는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아동과 장애인 그리고 노인대상 재활 및 치료 관련 사회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기관만 등록할 수 있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제공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망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의 취득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따라서 유망사회서비스 분야의 잠재적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자격증반을 개설 운영하여 일자리를 연계해야 함
- 현재, 새일센터와 일자리센터 등에서 개설된 자격증반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와 방과후 아동지도사, 요양보호사, 미술심리 상담사 등 총 5개 사회서비스 관련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같은 자격증 반 운영은 현재의 높은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서비스 대상별로 지역일자리 자원(자활센터, 여성일자리센터 등)과 연계하여 유망 서비스의 민간 자격증 취득반을 개설운영하여 관련 분야의 제공인력 확대를 도모해야 함

### □ 농촌지역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가점제 도입

- 농촌지역의 경우 사회서비스수요는 높는데 반하여 제공기관 부족으로 일자리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수요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등록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필요
-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및 신규사업 선정시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에 기관운영분야의 가점제 도입하여 많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시장 진입을 유인



- 전라북도의 사회서비스 중 구매력이 높은 시장성이 용이한 사업의 업종은 농촌지역의 경우 자활기업 22개, 협동조합 7개 이지만 현재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중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등록된 업체는 총 3개 밖에 되지 않음
-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수요조사 결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부재가 제공기관 등록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절차, 지역별 유망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기관 현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이 필요함
-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수요 대비 공급기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선정하되, 사회서비스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해당지역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의 등록을 유인하고 신규사업 신청시 가점적용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함

## □ 사회서비스 바우처 일자리 급여표준화 추진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급여수준이 제공기관에 일임되어 있는 체계를 개선하여 경력과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급여수준 차별화 추진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저임금화는 사회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 따라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형태와 경력, 전문성 정도에 따른 급여표준화 추진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실태조사 결과, 동일한 사회서비스 내에서도 최소 임금과 최대 임金的 격차 심화, 제공기관 관련 서비스의 급여표준화를 통해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많은 잠재 인력이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가사간병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서비스의 경우 최소 임금과 최대 임금간의 격차가 크지 않지만, 지역사회서비스와 노인돌봄,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의 경우 기준 시간당 임금격차가 커 세 가지 사업 유형을 우선 급여표준화 추진

##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인증제 도입을 통한 일반시장 확대

-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10%의 적은 본인부담금으로 제공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면 차등지원을 통해 일정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최저생계비 이상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시장수요를 확대해야 만 관련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용이 함
- 바우처소득만으로는 제공기관이 제공인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품질개선을 통한 일반 시장으로의 확대를 유인하여 제공기관의 확대와 더불어 제공인력의 확대를 도모해야 함
- 현재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등록제로 영리기관에게 까지 문호를 개방했지만 품질 저하로 인해 제공기관 소득의 90%는 바우처 소득으로 채워지고 있고 나머지 10%만이 일반시장에서 소득이 창출되고 있음
- 따라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여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분야 품질향상을 유인하고, 품질향상으로 검증된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일반 시장수요를 확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함

## Ⅵ. 요약 및 결론

- 최근 전라북도의 맞춤형 복지시책에서 가장 노력하고 있는 분야는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전라북도는 지역사회서비스사업에만 약 1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여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라북도가 사회서비스사업에 주목하는 것은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의 발굴하여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데 있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2012년 한해에만 매일 평균 9,000여명이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하였고, 8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이 정책집단의 복지욕구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한다면, 사회서비스는 다양한 정책집단의 수요와 함께 일자리정책이 결합된 지역의 수요도 함께 반영되어 있는 지역맞춤형 복지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전라북도가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중산층 복지의 핵심시책으로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수요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정책 이해의 부족으로 이용자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공급기관의 편의성으로 사업개발이 이루어지다보니 일반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혜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평균소득 100%의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되었지만 중산층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까지 사업과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함
- 따라서 중산층이 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복지수요의 정밀한 진단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따라서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면밀한 수요분석을 기초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6대 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수요분석과 함께 일자리 수요를 분석하였고,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을 크게 네 가지로 제안

- 첫째,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연계를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사회서비스 시장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전제로 해당 사회서비스 중 시장화가 용이한 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자격증반을 지역의 다양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기관과 연계하여 개설하고, 전문 자격증반을 이수한 사람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둘째,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및 신규사업 선정 시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에 기관운영분야의 가점제를 도입하여 많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시장 진입을 유인해야 함
- 셋째,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급여수준이 제공기관에 일임되어 있는 체계를 개선하여 경력과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급여수준 차별화 추진해야 함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저임금화는 사회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 따라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형태와 경력, 전문성 정도에 따른 급여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넷째, 바우처소득만으로는 제공기관이 제공인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품질개선을 통한 일반 시장으로의 확대를 유인하여 제공기관의 확대와 더불어 제공인력의 확대를 도모해야 함
- 따라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여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분야 품질향상을 유인하고, 품질향상으로 검증된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일반 시장수요를 확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함
- 결국, 사회서비스분야 바우처사업의 일자리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음
-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일반 시장수요 확대를 전인함으로써 그만큼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유망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신규수요를 발굴하여 지역주민에게 맞는 사업들을 제공해야 함

# 목 차

제 1 장 서 론 .....	3
1. 연구목적 .....	3
2. 연구필요성 및 방법 .....	5
제 2 장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일자리 연계 가능성 .....	13
1.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범위 .....	13
2.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성장 가능성 .....	16
3.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현황 및 정책동향 .....	19
제 3 장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현황 .....	35
1.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사업 개관 .....	35
2.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관련 자원 현황 .....	37
3.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관련 자원 분석 .....	45
4.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이용자 현황 .....	57
제 4 장 사회서비스 바우처와 일자리 정책의 연계 .....	67
1.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욕구 및 일자리 수요 분석 .....	67
2.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수요 .....	84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인력 수요 .....	101
4.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인력 분석결과(N=205) .....	104
제 5 장 전라북도 사회서비스바우처 일자리 연계 연계방안 .....	115
1.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 기준 및 현황 .....	115
2.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 교육기준 .....	124
3.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일자리 연계 방안 .....	129
제 6 장 요약 및 결론 .....	143
참고문헌 .....	147



## 표 목 차

〈표 I-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예산현황 .....	6
〈표 I-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일반 현황 .....	6
〈표 I-3〉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현황 .....	6
〈표 I-4〉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혜대상 소득기준 .....	7
〈표 I-5〉 연구방법 .....	9
〈표 II-1〉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법률적 정의: 사회보장기본법 .....	14
〈표 II-2〉 표준산업분류 및 정부의 사회서비스 개념 .....	15
〈표 II-3〉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법률적 정의: 사회보장기본법 .....	16
〈표 II-4〉 전국 시기별 고용증가율이 높은 업종(총종사자수 수 기준) .....	16
〈표 II-5〉 사회서비스 취업자 증가율 .....	17
〈표 II-6〉 사회서비스업 추이 .....	17
〈표 II-7〉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일반 현황 .....	18
〈표 II-8〉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증가 추이(2007~2012년) .....	18
〈표 II-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의 전개과정 .....	19
〈표 II-10〉 바우처사업의 특징 .....	21
〈표 II-1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현황(2012년 기준) .....	21
〈표 II-1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현황(2012년 기준) .....	22
〈표 II-13〉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연령 및 소득 기준 .....	23
〈표 II-14〉 보건복지부 주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현황 .....	25
〈표 II-15〉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주요내용 .....	26
〈표 II-16〉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주요 서비스 내용 .....	27
〈표 II-17〉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일반 현황 .....	28
〈표 II-1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일반 현황 .....	28
〈표 II-19〉 2014년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사회서비스 부문별예산규모 .....	29
〈표 II-20〉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규모 .....	29
〈표 II-21〉 사회서비스산업의 대분류 및 포괄범위 .....	30
〈표 II-22〉 사회서비스산업의 대분류 및 포괄범위 .....	31

〈표Ⅱ-23〉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제공인력 및 기관 현황 .....	32
〈표Ⅱ-24〉 사회(돌봄)서비스 인력 범위 .....	32
〈표Ⅲ-1〉 전국 사회서비스관련 고용형태 .....	35
〈표Ⅲ-2〉 전라북도 분야별 구인 현황 .....	36
〈표Ⅲ-3〉 16개 시도별 바우처 제공기관 수 .....	37
〈표Ⅲ-4〉 전라북도 사회복지이용시설 현황 .....	38
〈표Ⅲ-5〉 가사간병방문 제공기관 (2013년 하반기) .....	38
〈표Ⅲ-6〉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2013 하반기) .....	39
〈표Ⅲ-7〉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2013년 하반기) .....	40
〈표Ⅲ-8〉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공기관(2013년 하반기) .....	41
〈표Ⅲ-9〉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2013년 하반기) .....	42
〈표Ⅲ-1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2013년 하반기) .....	43
〈표Ⅲ-1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2013년 하반기) .....	44
〈표Ⅲ-12〉 노인인구 대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45
〈표Ⅲ-13〉 가사간병수요 대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46
〈표Ⅲ-14〉 장애인 인구 대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47
〈표Ⅲ-15〉 장애아동 인구 대비 장애아동재활치료 제공기관 현황 .....	48
〈표Ⅲ-16〉 산모신생아도우미 .....	49
〈표Ⅲ-1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황 .....	50
〈표Ⅲ-18〉 14개 시군별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분포 .....	51
〈표Ⅲ-19〉 14개 시군별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제공기관 분포 .....	52
〈표Ⅲ-20〉 14개 시군별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분포 .....	53
〈표Ⅲ-21〉 14개 시군별 장애아동재활치료 제공기관 분포 .....	54
〈표Ⅲ-22〉 14개 시군별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 분포 .....	55
〈표Ⅲ-23〉 14개 시군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분포 .....	56
〈표Ⅲ-24〉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연도별 추이 .....	57
〈표Ⅲ-25〉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연도별 추이 .....	57
〈표Ⅲ-26〉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14개 시군별 제공기관 수 .....	58
〈표Ⅲ-27〉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14개 시군별 제공인력 수 .....	59
〈표Ⅲ-28〉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14개 시군별 이용인원 수 .....	59
〈표Ⅲ-29〉 연령별 사회서비스사업 분류 .....	59



〈표Ⅲ-30〉 사회서비스사업 대분류별 사업 .....	60
〈표Ⅲ-31〉 가구특성별 분류 .....	61
〈표Ⅲ-32〉 정부지원금별 분류 .....	62
〈표Ⅲ-33〉 본인부담금별 분류 .....	63
〈표Ⅲ-34〉 사회서비스사업 집단규모 .....	64
〈표Ⅳ-1〉 사회서비스바우처 인력수요 추정 기준 .....	67
〈표Ⅳ-2〉 바우처 인지여부 .....	68
〈표Ⅳ-3〉 비용지불을 하며 받고 싶은 서비스 1순위 .....	68
〈표Ⅳ-4〉 비용지불을 하며 받고 싶은 서비스 2순위 .....	69
〈표Ⅳ-5〉 초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1 .....	69
〈표Ⅳ-6〉 초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2 .....	70
〈표Ⅳ-7〉 성별 초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필요성 정도에 대한 인식 1 ..	70
〈표Ⅳ-8〉 성별 초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필요성 정도에 대한 인식 2 ..	71
〈표Ⅳ-9〉 초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 1 .....	71
〈표Ⅳ-10〉 초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 2 .....	72
〈표Ⅳ-11〉 성별 초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의 한달평균 적정 이용비용 1 .....	72
〈표Ⅳ-12〉 성별 초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의 한달평균 적정 이용비용 2 .....	73
〈표Ⅳ-13〉 초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 선택시 우선 고려사항 .....	73
〈표Ⅳ-14〉 중고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1 .....	74
〈표Ⅳ-15〉 중고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2 .....	74
〈표Ⅳ-16〉 중고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필요성 정도에 대한 인식 1 .....	75
〈표Ⅳ-17〉 중고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필요성 정도에 대한 인식 2 .....	75
〈표Ⅳ-18〉 중고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 1 .....	76
〈표Ⅳ-19〉 중고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 2 .....	76
〈표Ⅳ-20〉 중고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의 한달평균 적정 이용비용 1 .....	77
〈표Ⅳ-21〉 중고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의 한달평균 적정 이용비용 2 .....	77
〈표Ⅳ-22〉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1 .....	78
〈표Ⅳ-23〉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2 .....	78
〈표Ⅳ-24〉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3 .....	79
〈표Ⅳ-25〉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필요성 정도에 대한 인식 1 .....	79
〈표Ⅳ-26〉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필요성 정도에 대한 인식 2 .....	80

〈표Ⅳ-27〉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필요성 정도에 대한 인식 3	80
〈표Ⅳ-28〉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 1	81
〈표Ⅳ-29〉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 2	81
〈표Ⅳ-30〉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 3	82
〈표Ⅳ-31〉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한달평균 적정 이용비용 1	82
〈표Ⅳ-32〉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한달평균 적정 이용비용 2	83
〈표Ⅳ-33〉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한달평균 적정 이용비용 3	83
〈표Ⅳ-34〉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1	84
〈표Ⅳ-35〉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2	84
〈표Ⅳ-36〉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3	85
〈표Ⅳ-37〉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필요성 정도에 대한 인식 1	85
〈표Ⅳ-38〉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필요성 정도에 대한 인식 2	86
〈표Ⅳ-39〉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필요성 정도에 대한 인식 3	86
〈표Ⅳ-40〉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 1	87
〈표Ⅳ-41〉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 2	87
〈표Ⅳ-42〉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 3	88
〈표Ⅳ-43〉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한달평균 적정 이용비용 1	88
〈표Ⅳ-44〉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한달평균 적정 이용비용 2	89
〈표Ⅳ-45〉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한달평균 적정 이용비용 3	89
〈표Ⅳ-46〉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의향 및 비용지불의사	90
〈표Ⅳ-47〉 전라북도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및 인력전망	91
〈표Ⅳ-48〉 노인돌봄서비스 바우처사업 이용율	91
〈표Ⅳ-49〉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의향 및 비용지불의사	92
〈표Ⅳ-50〉 전라북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요 및 인력전망	93
〈표Ⅳ-51〉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바우처사업 이용율 및 만족도	93
〈표Ⅳ-52〉 전라북도 0세 아동수 추이	94
〈표Ⅳ-53〉 전라북도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수요추정	95
〈표Ⅳ-54〉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사업 이용율 및 만족도	95
〈표Ⅳ-55〉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서비스	96
〈표Ⅳ-56〉 전라북도 가사간병서비스 인력수요 추정	97
〈표Ⅳ-57〉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바우처사업 이용율 및 만족도	97
〈표Ⅳ-5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의향 및 비용지불의사	98

〈표Ⅳ-59〉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 수요추정 및 인력수요전망 .....	99
〈표Ⅳ-6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율 및 만족도 .....	99
〈표Ⅳ-61〉 장애인동 재활치료사업 이용의향 및 비용지불의사 .....	100
〈표Ⅳ-62〉 장애인동 재활치료사업 수요 및 인력전망 .....	100
〈표Ⅳ-63〉 경제활동참여의향 및 원하는 고용형태 .....	101
〈표Ⅳ-64〉 경제활동 참여희망자의 희망업종 .....	102
〈표Ⅳ-65〉 경제활동 참여희망자의 희망업종 .....	102
〈표Ⅳ-66〉 여성복지분야 복지수요 .....	103
〈표Ⅳ-67〉 사회복지서비스직 구직 희망자의 직업선택시 고려사항 .....	103
〈표Ⅳ-68〉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의 학력 .....	104
〈표Ⅳ-69〉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의 전공학위 .....	104
〈표Ⅳ-70〉 근무기간 .....	105
〈표Ⅳ-71〉 고용형태/평균근무시간/월급여 및 희망급여 .....	105
〈표Ⅳ-72〉 보유자격증1 .....	106
〈표Ⅳ-73〉 보유자격증2 .....	106
〈표Ⅳ-74〉 사회보험 가입 여부 .....	107
〈표Ⅳ-75〉 자격증 취득과정 중 어려웠던 점 .....	108
〈표Ⅳ-76〉 근무환경만족도 1 .....	108
〈표Ⅳ-77〉 근무환경만족도 2 .....	109
〈표Ⅳ-78〉 근무환경만족도 3 .....	109
〈표Ⅳ-79〉 자격증 취득 방법 .....	110
〈표Ⅳ-80〉 취업 경로 .....	110
〈표Ⅳ-81〉 직업선택 동기 .....	111
〈표Ⅳ-82〉 바우처일자리확대에 필요한 정책 .....	111
〈표Ⅳ-83〉 제공사업별 조사내용 정리1 .....	112
〈표Ⅴ-1〉 사회복지서비스 내용 .....	115
〈표Ⅴ-2〉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사업시설기준 .....	115
〈표Ⅴ-3〉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사업시설기준 .....	116
〈표Ⅴ-4〉 제공인력 자격요건 .....	117
〈표Ⅴ-5〉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공인력 자격요건 관련 지침 .....	117
〈표Ⅴ-6〉 발달재활 관련 과목 .....	118

〈표 V-7〉 장애인동재활치료서비스 시설 및 인력기준 .....	119
〈표 V-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주요 내용 및 자격규정 .....	119
〈표 V-9〉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별 자격요건 1 .....	120
〈표 V-10〉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별 자격요건 2 .....	121
〈표 V-11〉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별 학력조건 2 .....	122
〈표 V-12〉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별 학력조건 2 .....	123
〈표 V-13〉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별 경력조건 1 .....	123
〈표 V-14〉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별 경력조건 2 .....	123
〈표 V-15〉 바우처 사업별 기본교육 현황 .....	124
〈표 V-16〉 바우처 사업별 보수교육 현황 .....	125
〈표 V-17〉 바우처 사업별 보수교육 현황 .....	129
〈표 V-18〉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증 개설 현황 .....	130
〈표 V-19〉 초등학교 대상 유망 사회서비스별 전문자격증 .....	131
〈표 V-20〉 중고등학교 대상 유망 사회서비스별 전문자격증 .....	132
〈표 V-21〉 노인 대상 유망 사회서비스별 전문자격증 .....	133
〈표 V-22〉 장애인 대상 유망 사회서비스별 전문자격증 .....	134
〈표 V-23〉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시장수요 사업(구매력 기준 50% 이상) 및 제공사업 현황 .....	135
〈표 V-24〉 전라북도 자활기업현황 .....	135
〈표 V-25〉 전라북도 주요 협동조합 현황 .....	135
〈표 V-26〉 사회적 기업 및 자활기업 사회서비스 사업 등록 의향 사례조사 .....	136
〈표 V-27〉 사회서비스 바우처 월근무시간별 평균임금차이 .....	137
〈표 V-28〉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수요자 개인부담 적정 금액 .....	138
〈표 V-29〉 사회서비스 선택시 우선 고려사항 .....	139

## 그림 목차

---

〈그림 I-1〉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 확대 추이 .....	7
〈그림 II-1〉 보건복지부 복지사업 및 바우처사업 현황 .....	22
〈그림 II-2〉 바우처사업 대상자 분류 .....	23
〈그림 II-3〉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소득기준 대상 가구수(추정) .....	24
〈그림 III-1〉 전라북도 분야별 구직자 수 .....	36
〈그림 V-1〉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연계방안 .....	130
〈그림 V-2〉 전라북도 소득계층별 인구구성 및 시장소득 확대 기준 .....	138



# 제 1 장

##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필요성 및 방법





# 제 1 장 서 론

## 1. 연구목적

사회복지분야의 사회서비스 확대에 계기가 된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이 시행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2007년부터 도입된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방문 사업을 비롯하여 장애인가동재활, 언어발달치료 등 다양한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가 제도화되어 약 65만명(2011년 기준)이 신청하는 보편적 서비스의 외형을 갖추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새로운 재정지원, 급여방식의 변화 측면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다양한 돌봄서비스 욕구에 대한 대응이란 측면에서 다각적인 기대와 우려가 제기되었다. 경제성장의 둔화와 고용없는 성장의 위기에 불구하고 바우처사업은 고용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큰 사회서비스 분야로서, 바우처사업을 통해 15만개에 이르는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후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과정에서는 바우처를 통한 재정지원방식을 우선 고려하고 실제로 이러한 방식의 제도화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강혜규, 2012)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을 복지정책의 중요영역으로 육성하게 된 계기를 강창현(2012)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먼저, 전술한 바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 등 새로운 사회적 위협에 대응하고, 사회양극화의 심화로 상대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수렴하며, 인적자본형성을 통해 관찮은 일자리의 창출 등이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을 확대하게 된 주요 계기였다.

사실, 사회서비스에 대한 논의와 정책들은 2006년 대통령자문위원회와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일부 학자들은 전자바우처에서 수요자와 시장 중심의 정책가치에 대해 학계와 일선 현장에서는 비판의 소리가 있었다. 공공재인 복지에 시장의 가치가 내재될 경우 복지서비스의 순수성과 도덕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경우 다른 복지사업과는 달리 사업운영주체로 비영리단체뿐만 아니라 영리단체까지 문호를 개방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것이라는 비판이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이 같은 비판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정착되고 공급자 일변도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가 갖추어지면서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고, 기존 복지기관들도 영리단

체와의 경쟁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구노력들을 시도함으로써 나름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사업이 기대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성숙은 신사회적 위험의 출현과 사회양극화의 심화라고 하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의해 추동되었지만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투자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유인하는 중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복지수요의 증가와 이로 인한 복지재정의 확대에 의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전략사업으로 손꼽힌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사회복지영역의 핵심적인 돌봄욕구에 대한 대표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로 자리잡았다. 이전에는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정부지원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재정적 판단에 따라 대상자가 선별되고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졌다(강혜규, 2012). 주로 사회복지기관을 매개로 한 간접지원 방식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로 구체화되어 수요자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취사선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상당한 복지예산이 투자되었지만 복지기관을 매개로한 공급자 중심의 간접지원으로는 다양한 양태로 진행되는 사회적 수요를 충분히 수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복지수요의 급증에 따른 사회적 돌봄에 대응하면서 수요자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상자 직접지원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지역의 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이 부족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수요를 반영한 복지사업의 설계나 추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역복지의 상당한 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 재정배분체계를 가지고 있어 더욱 매력적인 복지사업이다.

물론 바우처 정책의 선행적 사례에 비추어 보면, 보편성과 평등성을 가치로 출발하는 복지국가의 배분형태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철학적 논쟁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 방식이 효율성을 앞세운 복지서비스의 시장화와 이로인한 불평등한 복지접근성이라고

하는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혜자 직접지원을 통한 복지권의 합리적 행사와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부여를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긍정적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 Ronald(2009)의 지적처럼, 바우처의 경우 단지 효율성이라는 근거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재정지원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에서 시민의 선택권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여기에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중앙의 재원으로 지역이 자율적 복지사업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자율성을 부여한 제도적 특성을 감안하면 지역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효용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2. 연구필요성 및 방법

### 1) 연구필요성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요 분석과 일자리 연계방안 연구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함축된다. 먼저 바우처 사업의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의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바우처 사업의 경우 수혜대상도 중산층으로 확대되었고, 일정한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수요에 기초해서 시장성의 확장여부가 결정되는 복지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수요가 현재의 바우처 사업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근 중앙정부는 바우처사업을 확대하면서 관련 재정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57개에 이르는 사회서비스사업은 약 9조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이중 6대 바우처 사업의 경우 약 8천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였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예산 총액은 2012년 기준 8,097억원이고, 이중 국비는 5,492억원, 지방비는 2,587억원임, 6대 바우처의 제공기관을 보면, 노인돌봄서비스가 921개소, 장애인활동지원 849개소, 산모신생아도우미 305개소, 가사간병방문 316개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463개소, 장애아동재활치료 996개소 등 총 4,850개소이다.

이 같은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증가추이는 향후 복지수요나 정책의 경향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1-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예산현황(억원)

구분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방문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장애아동 재활치료	합계	
예산	전체	902	4,647	376	197	1,957	718	8,079
	국비	622	3,099	283	143	1,345	481	5,492
	지방비	280	1,548	93	54	612	237	2,587

〈표 1-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일반 현황(백만원, 개소)

구분	사업	2009	2010	2011	2012	2013
수혜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33,194	27,955	10,539	10,35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5,223	34,490	37,728	37,271	
	산모신생아도우미	53,401	62,491	61,345	57,744	
	장애인활동보조			50,000	55,00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85,221	485,736	473,922	448,822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둘째, 사회서비스 시장의 확대에 의해 관련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같은 일자리 증가추세는 재정확대와 수요증가와 맞물려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복지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아 잠재 사회서비스 시장이 다른 지역보다도 크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대한 수요분석과 이를 기초로 한 일자리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를 중요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확대에 의해 제공인력도 6대 바우처를 합하여 총 7.4만명에 이르고 있고, 제공기관도 총 6,482개소에 이른다. 전라북도의 경우도 지역사회서비스사업만 2008년 359개에 불과하던 일자리 개수가 2013년 973개로 증가하였다.

전국적으로 보면,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재정규모는 2007년 1,874억원에서 8,796억원으로 증가했고, 관련 일자리도 같은 기간 36천명에서 56천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1-3〉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현황(단위 백명)

구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가사간병 방문사업	지역사회서비 스투자사업	발달재활 서비스	전체	
제공 기관	2011년	921	849	305	316	1,463	996	4,850
	2012년	1,311	898	256	471	2,170	1,376	6,482
제공 인력	2011년	95	242	39	28	428	39	871
	2012년	101	286	39	31	241	45	743

〈그림 1-1〉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 확대 추이



자료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2013)

셋째,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에 대한 수요분석은 기존 빈곤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과는 달리 중산층까지 수혜자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온 중산층의 복지소외를 해소하고 도민 전체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는 이 리는 점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복지 사업과는 달리 평균소득 100%를 기준으로 중산층까지 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이다.

〈표 1-4〉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혜대상 소득기준(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1,493	2,770	4,109	4,736	4,843	4,950	5,057	5,164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2,240	4,154	6,164	7,104	7,265	7,426	7,587	7,748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200%	2,987	5,539	8,218	9,472	9,686	9,900	10,114	10,328

6대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중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를 제외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역사회서비스 등의 대부분 바우처 사업은 모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가능하다. 전라북도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대상자를 추정해 보면, 소득기 준으로만 분류시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전북 전체 가구의 8.4%정도가 수혜 대상에 포함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전체 가구의 39.1%, 장애아동재활치료와 지역사회서비 스투자사업은 전북 전체 가구의 69.5%, 노인돌봄서비스는 전체 가구의 84.0%가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연구방법

### ① 설문조사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요분석과 일자리 연계방안 연구를 위해서 크게 4가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사회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6대 바우처사업의 주된 수요대상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의 인지, 유망사회서비스의 이용의사 및 비용 지불의사, 사회서비스의 적정이용비용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 조사방법은 전라북도 거주 약 1,500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로 진행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지역사회서비스 수혜 대상별로 욕구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지역과 성, 그리고 소득기준으로 분류하여 교차 검증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현재 근무환경, 구직방법 및 경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세 번째 연구방법은 잠재적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욕구를 조사할 예정이고, 사회서비스 잠재적 제공기관인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질적 조사를 통해서 탐색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는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제공기관의 부재로 인해 충분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사회서비스의 주된 제공기관인 기존 복지기관의 인프라가 매우 부족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총량을 확대하는데는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잠재수요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와 더불어 농촌지역에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창업이나 등록을 통한 사업수행 의향을 조사할 계획이다.

〈표 1-5〉 연구방법

구분	분석 목적 및 방법
사회서비스 수요분석	분석목적 : 사회서비스 바우처 분야 수요파악 분석자료 : 전라북도 일반가구 약 1500가구 조사(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노인, 장애인)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의사 및 비용부담여부 등 시장성 조사 진행
제공인력 조사	분석목적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인력 특성, 취업경로 분석을 통한 일자리 연계 방안 도출 분석자료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인력 약 201명 조사(제공인력의 학력, 자격증여부, 교육과정, 취업경로 등)
잠재 제공인력 조사	조사목적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취업의사, 희망급여 및 근로시간 등 조사를 통한 사회서비스 가용인력 파악 조사대상 : 전라북도 30대~50대 여성 약 800여명
유망서비스 직종조사	조사목적 :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유망직종의 관련 자격증 파악을 통한 직업훈련 연계 방안 도출 조사대상 : 산업인력공단 및 직업능력개발원 국가, 민간자격증 현황(복지, 교육, 상담, 재활, 치료 등)

## ② 문헌조사

유망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유망직종에 요구되는 전문 자격증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자격증에 대한 분석은 현재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제공인력에게 요구되는 법적인 자격요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유망사회서비스로 분류된 사업의 민간자격증의 유형과 국가자격증의 유형을 직업능력개발원의 자격증 분류표를 통해서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현황을 지역별로 비교분석하고자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시스템의 자료를 조사할 계획이다.





## 제 2 장

#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일자리 연계 가능성

1.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범위
2.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성장 가능성
3.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현황 및 정책동향



## 제 2 장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일자리 연계 가능성

### 1.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범위

사회서비스는 근대 사회에서 인간의 상호관계와 역할로 인해 발생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Kahn, 1979; 박세경, 2013 재인용). 모든 사회구성원은 자신의 삶에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영유아기, 노인기라는 불가피한 생애주기에 발생하는 돌봄 욕구뿐만 아니라 질병과 장애의 위험에 처했을 때도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욕구는 삶의 기본적인 보호단위로 간주되는 가족 안에서 해결해왔다. 아동에 대한 보육, 노인에 대한 부양과 돌봄, 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은 생활을 같이하는 가족구성원에 의해 사적으로 해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박세경, 2013).

하지만 최근 부양과 돌봄에 대한 수요의 변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사회적 필요로 인해 돌봄과 부양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제도의 한 영역으로 자리하게 된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의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당사자의 직접적인 욕구의 해결이외에도 이를 통한 일자리의 창출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정책적 필요로 인해 사회적 관여를 통한 제도적 서비스로 전환되게 된다.<sup>1)</sup>

사회서비스는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고 있는 돌봄과 부양 등의 문제를 국가의 제도적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한 형태이다.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개념이나 범주는 특정 국가가 돌봄이나 부양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그 내용과 범위가 달라진다. 박세경(2013)의 지적처럼 사회서비스는 그래서 특정 국가나 사회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제도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개념이 관련법과 제도를 통해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사회보

---

1) 사회서비스 영역은 경제활동과 구분되는 모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잔여적 돌봄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게 퍼져있기 때문에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개념정리가 가능하여 관련 정책의 범주 역시 상당히 유동적이다(장병일 외, 2012)

장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의 한 부분으로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 재활, 직업소개, 지도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는 관련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는 보편적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보다는 하위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보다는 취약계층으로 수혜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로 개념화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정책의 목표에 따라 임의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영역은 모두 사회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에서도 각 부처별로 사회서비스의 개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I-1〉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법률적 정의 : 사회보장기본법

구분	내용
사회보장 기본법 1995.12.30. 제정	제3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관련복지제도"라 함은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 기본법 2012.1.26. 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공공행정,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까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으로 정의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 핵가족화 등의 가족구조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로 인한 보육 및 돌봄역할의 변화 등으로 인한 신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에 적극 대응하고 인적자본 형성을 통한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7년 사회투자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를 도입하였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사업은 크게 노인돌보미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으로는 그 대상과 범위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를 기준으로 중산층까지 제공되고 있어 광의의 개념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서는 사회서비스를 개인이나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여 협의보다는 광의로 개념화하고 있다. 한편 국제표준산업분류에서 사회서비스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경희 외(2008)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사회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는 공통적으로 이윤 추구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욕구충족에 초점을 두는 집합적이고 관계지향적인 활동으로 정의한다. 사회적 기업육성법에서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및 환경과 문화까지로 사회서비스 영역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표 II-2〉 표준산업분류 및 정부의 사회서비스 개념

	가	나	다	라
국제표준 산업분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수도업건설업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업, 운 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 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운동관련서비스업, 기타공공수리 개인서비스업
	삶의 질 향상 관련 서비스		공공재	
정부	[복지서비스] 보육, 아동, 노인보호 등 [보건의료서비스] 간병, 간호 등 [교육서비스] 방과 후 활동, 특수교육 등 [문화예술서비스] 도서관, 박물관운영 등		일반행정, 환경, 안전 등	

〈표 II-3〉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법률적 정의 : 사회보장기본법

구분	목적	내용	범위
사회적 기업법	없음	없음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분야 서비스
사회서비스 이용및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서비스 2. (보건의료기본법)의 보건의료서비스	1. 상담·재활·직업소개, 지도·사회복지 시설 이용 등을 제공 2.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사회보장 기본법	인간다운 생활 보장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관련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활동지원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 문화,환경 등의 분야

## 2.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성장 가능성

최근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이 정책적으로 주목받기 까지 90년대 후반 경제위기로 촉발된 실업극복, 근로빈곤층의 자활사업을 필두로 하여 2000년대 이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확대과정에서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한국적 정의가 시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는 일자리 확대 정책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 보육정책 및 아동보호의 내실화 등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처하는 다양한 서비스부분의 제도화와 함께 바우처 방식의 도입을 통해 유효수요를 촉발하고 공급확충이 가능한 새로운 공급구조를 창출하고자 하는 4대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가시화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서비스산업 고용수준은 매우 낮아 보다 근본적인 사회서비스 산업화 정책 설계의 필요성에 주목하게 되었다(강혜규, 2008). 사회서비스는 대인적 성격이 강해 노동집약적이라는 점에서 장래의 고용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로 손꼽힌다.

〈표 II-4〉 전국 시기별 고용증가율이 높은 업종(총종사자수 수 기준)

1995~2000		2001~2005		2006~2010	
산업명	연평균성장률	산업명	연평균성장률	산업명	연평균성장률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	28.48	사업지원서비스업	22.77	사회복지서비스업	22.69
사회복지서비스업	11.87	하수, 폐기물, 환경복원업	8.46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업	15.55
통신업	8.86	보건업	6.36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	13.63
사업지원서비스업	7.79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업	6.29	영상, 방송, 창작예술업	13.11
하수, 폐기물, 환경복원업	6.89	교육서비스업	5.31	하수, 폐기물, 환경복원업	10.21

〈표 II-5〉 사회서비스 취업자 증가율

구분	취업자 수 증가율			취업자 비중			취업자수 배수
	2008~15	2016~20	2008~20	2007	2015	2020	'20 / '07
사회서비스	2.3	0.8	1.7	[15.1]	[16.6]	[16.9]	1.2
공공행정 및 국방	1	-2.1	-0.2	-22.6	-20.4	-17.6	1
교육	2.1	1.4	1.8	-47.8	-47.2	-48.4	1.3
의료·보건	3	0.8	2.2	-16.4	-17.4	-17.4	1.3
사회복지	5.6	4	5	-4.7	-6.1	-7.1	1.1
위생	3.8	1.4	2.9	-2.3	-2.6	-2.7	1.4
문화	5.7	4.3	5.1	-1.7	-2.2	-2.6	1.9
가사	1	1	1	-4.6	-4.1	-4.1	1.1

주. [ ]안은 전산업 취업자수 대비 비중을 나타내며, ( )안은 사회서비스 취업자수 대비 비중을 나타냄  
 자료 : 이진면(2008), 사회서비스의 산업적 분석과 발전방안

실제로 사회서비스 취업자 증가율은 경제성장률 둔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산업의 취업비중은 2007년 15.1%에서 2020년 16.9%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서비스 산업 내에서 사회복지, 위생, 문화부분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회서비스부문의 경우, 문화부문과 함께 취업자 수 증가율은 5배 정도로 예상되며, 취업자 수 비중의 경우 2007년 4.7%에서 2020년 7.1%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이진면, 2008).

최근 여성 취업자에서 사회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증가한 주요 요인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급격한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업은 2004년 12.9%에서 2012년 16.7%로 3.8%p 증가하였다. 특히 사회서비스업의 경우 여성일자리와와의 상대적 친화성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에 가장 우호적인 사업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사회서비스업 중 여성의 비중은 2012년 64.6%에 이르고 전체 여성취업자 중 사회서비스의 비중은 25.8%에 이른다. 사회서비스업의 특성상 상담이나 재활치료 등 대인적 사회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향후에도 여성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6〉 사회서비스업 추이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사회서비스업	2,903	3,034	3,184	3,277	3,466	3,861	3,912	3,948	4,074
사회서비스업의 취업자대비 비중	12.9	13.3	13.8	14	14.7	16.4	16.4	16.3	16.7
여성 사회서비스업	1,635	1,768	1,903	1,958	2,087	2,377	2,482	2,531	2,632
사회서비스업 대비 여성의 비중	56.3	58.3	59.8	59.7	60.2	61.6	63.4	64.1	64.6
여성취업자 대비 사회서비스 비중	17.5	18.6	19.6	19.9	21.1	24.3	25	25.1	25.8

사회서비스바우처로 범위를 좁혀 일자리 창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총 이용자 수는 2011년 현재 65만명이고, 제공인력은 약 5.5만명 정도이고, 제공기관도 약 5천여 개이다.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확대에 의해 재정규모는 바우처사업 개시연도인 2007년 1,874억원에서 2012년 8,796억원으로 469%가 증가했고, 이용자도 같은 기간 357명에서 655명으로 183%가 증가하였다.

〈표 II-7〉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일반 현황(개소, 명, 억원)

사 업 명	'12년도 예산 (국비+지방비)	현 황('11년 12월 기준기준)		
		제공기관수	제공인력	이용자 수
소 계(6개 바우처)	8,516	4,850	55,773	654,987
1. 가사간병방문	196	316	2,881	10,539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826	921	9,519	37,728
3. 산모신생아도우미	372	305	2,756	57,845
4. 장애인활동지원	4,520	849	23,653	35,371
5. 장애아동 재활치료	718	996	4,126	39,582
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884	1,463	12,838	473,922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비영리단체뿐만 아니라 영리단체도 제공기관으로 등록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복지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회복지수요가 높아 사회복지 분야에서 창출가능한 일자리가 많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중 하나인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007년 29개 사업에서 출발해서 2013년에는 67개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예산액도 같은 기간 37억원에서 11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일자리수도 2007년 286개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에는 974개로 증가하였고, 서비스 이용자수도 2007년 4,468명에서 2013년 13,20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라북도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뿐만 아니라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인활동지원 등 여타 바우처사업도 예산과 일자리 그리고 수혜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II-8〉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증가 추이(2007~2012년)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사업수	29개	31개	35개	50개	62개	70개	67개
예산액	37억원	45억원	56억원	70억원	97억원	104억원	112억원
일자리	286개	359개	528개	719개	800개	950개	974개
서비스이용	4,468명	5,609명	8,250명	11,539명	12,500명	13,100명	13,200명



### 3.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현황 및 정책동향

#### 1)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개념 및 분류

##### (1) 바우처사업의 개념 및 정의

바우처는 구조화된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급여로서 일정하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원을 선택할 수 있는 전이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급여의 한 형태로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가 가진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급여형태(Gilbert & Terrell, 2005)이다.

〈표 II-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의 전개과정

단계	연도	주요정책	관련기관 및 사업내용	비고
시작	2006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총괄 관리지원	대통령자문 일자리위원회(2005.9~2007.6)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기획단(TF)(2006.7~2007.12)	11개부처(노동부) 10개부처(한시적(TF))
		사회기반과 사회투자 정책연구개발	대통령자문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2003.10~2006.8)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정책설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단 (2006.10~2007.5)	
	2007년	전자바우처 시작·운영 · 노인돌봄 · 장애인활동보조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노인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센터(2007.3) 복지부 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실(2007.5)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2007.12~2011.5) 보사연 사회서비스연구센터(2007)	보건복지부  보사연
확대	2008년	전자바우처사업확대	가사간병(4월), 아이사랑카드(9월) 임신출산진료비지원(11월)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민간경상보조방식의 사회서비스벤처육성 (2010년 CSI로 통합)	
		정책관리체계 연구개발	사회서비스 성과 및 품질연구	사회서비스관리센터
	2009년	민간연구기관설립	(사) 사회서비스연구원	민간기관
		정책관리체계 개편	(재)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명칭변경	
		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대학기관/시설을 사회서비스 인프라로 개방 (2011년 CSI로 통합)	
		전자바우처 사업확대	장애아동재활치료(2월)/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6월) /서울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11월)	
제도화	2010년	사회서비스정책 네트워크	한국사회서비스학회(5월)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6월) 서울장애인활동보조추가지원(11월)	
		전자바우처사업확대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언어발달지원(8월)	
	2011년	사회서비스품질관리 시범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전자바우처사업관리 조직축소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폐지 * 한국사회복지정보개발원으로 통합	
		사회서비스 법적기반마련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자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진흥법(추진중)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 규정	

자료 : 이재원(2012)

Steuerle(2000)은 바우처를 제한된 범주의 상품과 서비스들 중에서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된 구매력을 인정하는 보조금이라고 정의한다. 이처럼 바우처는 일반적으로 증표(voucher)를 의미하는 쿠폰과 같이 재화나 서비스와의 교환권을 가리킨다. 공공정책수단으로서의 바우처는 정부가 제공하고자 하는 특정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인증권으로서 그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일정한 구매력을 제공해주는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바우처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구매권을 부여하여 교육훈련이나 보육 서비스 등, 용도 제한이 있는 개인보조의 일종으로 정부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강창현, 2012). 결국, 바우처(voucher)는 특정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해주는 일종의 전표로서 소득지원의 한 형태로 돌봄대상자를 돌봄이용자로서 발언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적극적 존재로 대하고자 하는 철학적 배경에서 등장한 형태(Moss & Cameron, 2008; 이시균 외 2003 재인용)로 정의할 수 있다. 복지를 단순한 시혜가 아닌 권리의 시각에서 수혜의 방식을 재구조화한 것이 바우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바우처방식은 수요자에 대한 선택권 확대, 직접 공급자 지원이 아닌 서비스 공급량을 감안한 간접 지원으로서 기관간 경쟁 혹은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성과기반의 효율적인 재정지원방식으로 선호되고 있다. 한편으로 바우처사업은 이용자간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저하, 시장화를 추동하여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 등의 한계를 내포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을 중심으로 학계, 현장의 논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중반부터 사회투자정책의 배경 속에서 확대된 사회서비스 사업은 2007년 4월 바우처방식인 노인돌보미사업, 중증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시작으로 동년 7월부터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이 시행되었으며, 2008년부터 전자바우처제도를 통해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보편형 이동투자 사업,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실시되었다. 2012년 현재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6개 사회서비스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표 II-10〉 바우처사업의 특징

구분	공급기관 지원방식	수요자 지원방식
대상	수급자 등 저소득층 (수동적 보호대상)	서민,중산층까지 확대 (능동적 구매자)
서비스비용	전액 국가지원	일부 본인부담
서비스시간	공급기관 재량	대상자 욕구별 표준화
공급기관	단일기관 독점	다수 기관경쟁
특징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서비스 제공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개발방식	중앙기획/지방집행(집중식/하향식)	지방기획/중앙지원, 평가(분권식/상향식)
서비스 질	서비스질 제고 노력 미흡	공급기관간 경쟁으로 서비스 질 제고

자료 : 보건복지부(2013)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보건복지부의 6대 바우처는 ① 장애인활동지원, 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③ 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④ 장애아동재활치료, ⑤ 산모신생아도우미, ⑥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등이다. 물론 문화관광부와 다른 여타 중앙부처에서도 여행이나 문화 혹은 스포츠를 서비스로 하는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II-1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현황(2012년 기준)

구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장애아동 재활치료
개요	가사 및 활동지원	·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지원	지자체중심 신규서비스 개발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가사 및 간병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	①요양등급 외 A, B ②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1급 장애인 (만6세 이상 만 65세 이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아동)
본인부담금	면제-48천원	면제~95천원	사업별 상이	46~92천원	면제~24천원	무료~6만원
지원수준	월 27시간 ~36시간	①월43~183시간 (기보) ②월10~80시간(추가)	사업별 상이	2주~4주	월18시간 24시간	주2회 정도

한편, 6대 바우처사업의 소관부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서비스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서비스 별로 담당과가 나누어져 있으며, 가사간병방문사업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노인정책과에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장애인정책과에서,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과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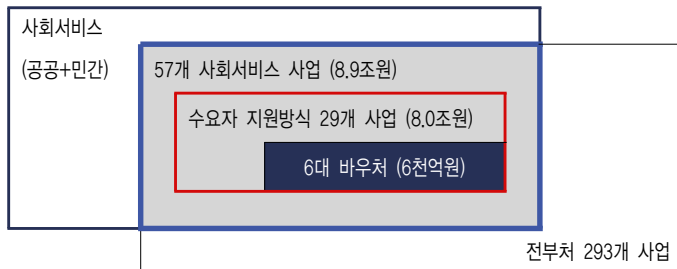
〈표Ⅱ-1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현황(2012년 기준)

사업명		담당과
가사간병방문사업·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사회서비스사업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정책과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급여·지침	장애인정책과
	제공기관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장애인자립기반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서비스사업과

## (2) 바우처사업의 분류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의 복지사업은 총 293개 사업으로 이 중 보건복지부를 포함하여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우처사업은 총 57개 사업이고 이 중 보건복지부는 6개 사업을 바우처로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6대 바우처사업은 가사간병방문, 노인돌보미,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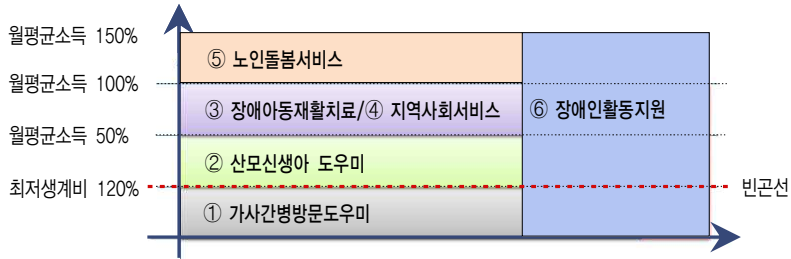
〈그림Ⅱ-1〉 보건복지부 복지사업 및 바우처사업 현황



이외에도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이나 영유아보육료 등이 바우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 전술한 두 개 사업은 재정지원방식만 바우처 방식을 따르고 있을 뿐 주로 단순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불과하다. 실제로 일자리 연계를 통한 고용창출효과가 큰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비롯하여 복지부 주관 6대 바우처이다. 6대 바우처 사업 중 2013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가사간병방문서비스와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가 통합되면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로 명명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최근 바우처사업을 확대하면서 관련 재정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57개에 이르는 사회서비스사업은 약 9조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이중 6대 바우처사업의 경우 약 6천억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다.

〈그림 II-2〉 바우처사업 대상자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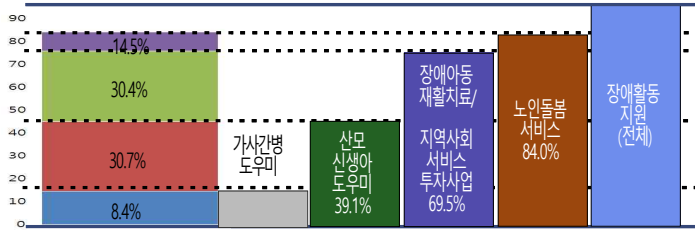
〈표 II-13〉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연령 및 소득 기준

	아동			청장년						노인			소득기준	
	0세	5세	6세	7세	10세	15세	19세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65세
가사간병 도우미	[Bar from 0 to 60]												최저생계비 120%	
산모신생아 도우미	[Bar from 20 to 60]												월평균소득 50%	
장애아동재활치료	[Bar from 0 to 19]												월평균소득 100%	
지역사회 서비스	[Bar from 0 to 80]												"	
노인돌봄 서비스	[Bar from 65 to 80]												월평균소득 150%	
장애인활동지원	[Bar from 7 to 65]												소득무관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사업목적별로 지원대상을 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인돌봄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도 월평균 소득 100%~150%를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관련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만이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 중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사회서비스는 2014년 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바우처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본연구의 분석대상인 6대 바우처를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라북도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대상가구수를 소득기준으로만 분류시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전북 전체 가구의 8.4%정도가 수혜 대상에 포함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전체 가구의 39.1%, 장애아동재활치료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전북 전체 가구의 69.5%, 노인돌봄서비스는 전체 가구의 84.0%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II-3)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소득기준 대상 가구수(추정)



자료 : 한국노동패널 13차 Raw data 가구균등화소득 보정 후 평균소득 기준으로 분석

소득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에 불과하지만 바우처사업은 대체로 기존의 복지수혜의 기준인 빈곤층을 벗어난 평균소득기준의 중산층까지를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4인 가족 평균소득 100%가 4,736천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소득기준은 전라북도 전체 가구의 약 80% 이상이 해당한다. 따라서 바우처사업은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비영리기관뿐만 아니라 영리기관까지도 운영주체로 참여하여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성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현황

보건복지부의 6대 바우처를 중심으로 각 사업의 개요를 정리하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전술한 바와 같이 등록장애인 중 1급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수행 지원과 자립 및 사회참여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도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중 재가장애아동과 시설입소아동을 대상으로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에 지원된다.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장애조기발견과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서비스 등이다.

노인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은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이고 건강상태가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신변활동이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그리고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출산예정일 전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인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사간병서비스도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재가간병이나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과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체수발과 가사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II-14〉 보건복지부 주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현황

구분	정책목표	수혜대상	공급자	바우처금액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출산가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전국가구월평균 소득 5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55만원~1,701천원 본인부담금 (4.6만원~9.2만원) 예산 : 376억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독립생활 어려운 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65세이상 장기요양 등급의 AB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민간영리/비영리기관	21.2~32.2만원 월27시간, 36시간 본인부담금:(무료~4.8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만6~65세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1급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월35(42)~86만원(103) 본인부담금 기본급여액의 6~15% 면제
가사간병 도우미	취약계층 생활안정 일자리 제공	수급자, 차상위 이하 요보호가정 장애인, 소녀소녀 가장,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지정기관 방문도우미	월18시간(14.7~24시간 (21.2만원) 본인부담금: 무료~2.4만원 예산 : 197억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장애아동 재활치료 경제적 부담경감	18세 미만 장애아동	사업실시기관 관련분야전문인력	월16~22만원 본인부담금:(무료~6만원)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대상으로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바우처사업별 비용부담을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과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 기초수급자는 최소 8천원을 부담해야 하고 차상위는 최소 18천원에서 24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는 면제이고 차상위는 2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차상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액의 최소 6%에서 최대 15%까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장애아동재활치료는 수급자와 차상위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본인부담액이 동일하지만 차상위 초과자의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표 II-15〉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주요내용

구 분		가시간병 방문도우미	노인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내용	지원 시간	월 27시간, 36시간	월 27시간, 36시간	월 40 ~180시간	주2회씩 월 8회 (1회당 50분)	2주~4주	사업별 상이
	서비스 내용	재가방문 (신체수발, 간병, 가사 지원 등)	재가방문, 주간보호 (※ 재가방문 : 활동보조, 일상가사지원, 주간보호 : 기관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며 서비스 제공)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언어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	재가방문 (산모 건강관리, 산생아 돌보기 등)	- 개발형 :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등 - 선택형 : 아동인지능력향상 등
발급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65세 이상 노인	만6~65세 1급 장애인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18세미만 장애아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출산 가정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사업유형 (400 여개)별 상이)
비용 부담	수급자	면제~8천원	면제~8천원	면제	면제	- 평균소득 40 이하: 46천원 - 평균소득 40~50: 92천원	서비스 가격의 20% 내외 (사업별 상이)
	차상위	18~24천원	18~24천원	2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36~48천원	지원액의 6~15%	4~6만원		
서비스 단가		9,200원/시간		서비스별 상이	월16~22만원	53,500원/일 (7,300원/시간)	사업별 상이
재정 소요 (국비+지방)	'11년 (6,935억)	197억	911억	1,746억	718억	321억	1,895억
	'12년 (8,825억)	197억	921억	4,647억	718억	376억	1,967억

자료 : 보건복지부(2012)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평균소득 40% 이하의 경우 46천원, 평균소득 40-50%는 92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양한 서비스를 다양한 대상에게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는 서비스형태별로 제공가격의 약 20% 내외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다른 바우처사업과는 달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최소 10%의 본인부담금이 설정되어 있다.

아래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활동보조는 목욕이나 대소변 보조 등 신변처리지원에서부터 안내도우미 등 이동보조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장애아동재활치료는 언어나 청능치료 등의 재활치료서비스에서부터 장애조기발견 등 부모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가시간병방문도우미사업의 경우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9,200원 정도이고, 장애활동지원서비스는 서비스별로 상이하다. 장애아동재활치료의 경우 월 16만원에서 22만원 정도이고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일 53,500원 정도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도 사업별로 제공단가가 달리 적용되어 제공된다.



〈표 II-16〉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주요 서비스 내용

	대상	지원영역	지원사업내용
장애인 활동 보조	등록장애인 6~65세 1급장애인/ 인정조사표 220점 이상	신변처리지원	목욕,대소변,옷갈아입히기,세면,식사보조 등
		가사지원	쇼핑,청소,식사준비,양육보조 등
		일상생활지원	금전관리,시간관리,일정관리 등
		커뮤니케이션보조	낭독보조,대필보조 등
		이동보조	안내도우미, 대리운전지원, 등하교지원, 직장출퇴근지원, 야외 문화활동지원 등
장애아동 재활치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재가/시설아동포함)	재활치료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치료
		기타 서비스	장애조기발견과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서비스 등 제공
노인돌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AB	방문서비스	신변·활동 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 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주간보호서비스	주간보호시설 이용 : 기능회복서비스(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여가 등), 급식 및 목욕,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송영서비스 등
가사간병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 필요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신체수발지원	목욕,대소변,옷갈아입히기,식사보조 등
		가사지원	쇼핑,청소,식사준비,양육보조 등
		일상생활지원	사회활동지원(외출보조), 정서적지원(대화, 일상생활 등)
		간병지원	체위변경,간단한 재활운동보조
산모 신생아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후 30일 이내	산모지원	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세탁물관리, 방청소
		신생아지원	목욕, 제대관리보조,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안내, 세탁물관리, 방청소
지역사회 서비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	아동	아동인지능력향상,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정서발달, 심리지원서비 스, 인터넷과목입 치유, 비전형성지원, 다문화아동 발달지원, 아동 돌봄, 부모학교, 렌탈서비스, 비만관리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돌봄여행, 자살고위험 건강검진, 운동처방, 소외 예방서비스
		장애인	돌봄여행, 보조기기렌탈, 시각장애인안마, 정신질환자 토탈케어, 운동처방,

바우처 영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서비스는 대체로 신변처리지원에서부터 가사지원, 가족 상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는 대상별로 상담, 재활치료, 여행 등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 3)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동향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예산 총액은 2012년 기준 8,097억원이고, 이 중 국비는 5,492억원, 지방비는 2,587억원이다. 6대 바우처의 제공기관을 보면, 노인돌봄서비스가 921개소, 장애인 활동지원 849개소, 산모신생아도우미 305개소, 가사간병방문 316개소,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1,463개소, 장애아동재활치료 996개소 등 총 4,850개소이다.

〈표 II-17〉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일반 현황(억원, 개소)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방문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장애아동 재활치료	합계
예산	전체	902	4,647	376	197	1,957	718	8,079
	국비	622	3,099	283	143	1,345	481	5,492
	지방비	280	1,548	93	54	612	237	2,587
기관수		921	849	305	316	1,463	996	4,850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보건복지부의 6대 바우처별 예산과 수혜자 추이를 보면, 가사간병서비스의 경우 2009년 53,625백만원에서 2013년 18,184백만원으로 감소하였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같은 기간 19,910백만원에서 2013년 66,268백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도 25,776백만원에서 29,074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2011년 77,658백만원에서 2013년 382,876백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009년 70,000억원에서 2013년 141,143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각각의 바우처사업 수혜자도 예산이 감소한 가사간병을 제외한 모든 바우처 사업들의 수혜자도 증가하였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2009년 485,221명이던 수혜자 수가 2012년 448,822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II-1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일반 현황(백만원, 명)

구분	사업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산	가사간병방문서비스	53,625	14,251	14,251	14,251	18,18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9,910	53,459	62,225	62,225	66,268
	산모신생아도우미	25,776	24,485	24,467	28,312	29,074
	장애인활동보조			77,658	309,878	382,87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0,000	110,000	135,300	134,500	141,143
수혜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33,194	27,955	10,539	10,35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5,223	34,490	37,728	37,271	
	산모신생아도우미	53,401	62,491	61,345	57,744	
	장애인활동보조			50,000	55,00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85,221	485,736	473,922	448,822	

복지부의 6대 바우처를 중심으로 2014년 예산의 변화를 살펴보면,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 1,407억원이 편성되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인력의 지원단가가 2013년 234천원에서 2014년 252천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일자리 수도 약 2천개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제공인력이 2014년 8천명으로 전년대비 1천명이 증가하였고, 지원단가도 제공인력 1인당 679천원에서 698천원으로 인상되었다.

〈표 II-19〉 2014년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사회서비스 부문별예산규모

취약계층 지원부분		보육, 저출산부분		노인부분	
장애인활동지원	4,067	영유아보육료지원	30,765	노인장기요양보험	5849
발달재활서비스	608	가정양육수당지원	11,209	노인돌봄서비스(종합/기본)	1,407
장애가족양육지원	71	보육돌봄서비스	4,671		
시청각장애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19	어린이집확충지원	1,829		
방과후돌봄서비스	1,320				
드림스타트	632				
계	6,717	계	48,474	계	7,256
사회복지일반부문		보건부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452	국민건강생활실천	8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273	암/희귀질환지원	705		
가사간병도우미서비스	182	정신질환관리	62		
		구강보건사업지원	13		
		보건의료지원	396		
계	1,907	계	1,184		

자료 : 보건복지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개요

또한, 박근혜 정부는 2017년 고용율과 중산층 확대를 위해 사회참여 지원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49만개 추가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R&D, 세제, 정책자금 지원 등의 창업투자지원을 제조업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표 II-20〉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규모 (단위 : 명)

구 분	'12년	'17년	증감
계	1,086,991	1,581,050	494,059
돌봄서비스	690,383	912,106	221,723
노인	294,735	442,767	148,032
장애인	28,322	50,877	22,555
유아동, 청소년	315,302	362,916	47,614
기타	52,024	55,546	3,522
사회참여 지원	356,856	602,048	245,192
자활	71,567	88,917	17,350
노인	267,041	452,000	184,959
장애인	17,488	59,851	42,363
기타	760	1,280	520
상담	7,255	12,827	5,572
건강관리	5,600	7,215	1,615
전달체계 개편	-	5,468	5,468
문화서비스	17,337	26,853	9,516
환경 및 산림	8,848	13,551	4,703
주거지원	712	982	270

자료 : 기획재정부(2013). 사회서비스 일자리 49만개 창출 보도자료

이 계획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12년 약 108.6만개에서 2017년에는 158.1만개로 증가하게 된다. 이 중 돌봄서비스는 69만개에서 91만개로 22만개가 증가하게 되고 상담 등 사회서비스는 약 7천개에서 12천개로 증가하게 된다. 돌봄서비스 중 노인대상 돌봄서비스는 29만개에서 44만개로 증가하게 되고, 장애인은 2.8만개에서 5.1만개로 증가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을 그동안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생애주기 유망 사회서비스 확충, 일자리 질제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고용-복지 연계취업지원 등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법을 제정하여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 분류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유인을 위한 임금체계 마련, 사회서비스 유형별 업무내용 및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시한 서비스 표준안을 마련하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이처럼, 사회서비스 사업이 다른 업종보다도 일자리 창출과 함께 복지체감도 향상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망 산업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복지현장의 인식변화와 함께 정부의 재정투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도에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기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가 공식법률용어로 대체되었고, 정부가 보장하는 국민의 일상생활영역도 대폭 확대되었다.

〈표 II-21〉 사회서비스산업의 대분류 및 포괄범위

대분류	포괄 범위(정의)
종합 사회서비스업	돌봄·재활·상담 등 사회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시설·협회 등의 산업 활동
돌봄서비스업	의료 관리가 필요한 노인·장애인 요양 보호 및 단순 돌봄 대상자에 대한 가정·거주·주거 시설 보호 산업 활동
상담·재활서비스업	상담서비스와 재활을 위한 의료서비스 또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건강지원 서비스업	재활서비스 외의 의료 등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교육 및 역량 개발 관련 사회서비스업	공교육을 통한 유아·청소년기의 신체·사회적 발달 지원 및 평생교육·직장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개발 지원과 관련된 산업 활동
문화·체육 관련 시설 이용 지원 사회서비스업	문화·예술·체육 활동 관련 국공립예술단체, 미술관, 박물관 등 관련 단체·시설 및 문화·예술·체육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활동
사회 참여 지원 서비스업	피고용자를 파견하거나 중개·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 또는 직업재활 등을 통해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산업 활동
사회서비스 관련 행정	보건, 교육, 문화, 환경, 노동 등 사회서비스와 사회보장 관련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관련된 산업 활동

〈표 II-22〉 사회서비스산업의 대분류 및 포괄범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주요 서비스 내용
돌봄	노인	일상생활지원	가사간병, 이동보조, 주간보호
		요양지원	요양, 간병
		취약계층노인지원	가사간병,
	장애인	신체,가사 활동지원	가사간병, 장애인 재가재활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장애인 돌봄 여행
	산모신생아돌봄	산모신생아돌봄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 및 영유아용품 렌탈
	아동	보육	영유아돌봄, 아동돌봄
방과후 돌봄		아동돌봄, 저소득 및 맞벌이 가구 아동 야간 및 주말 돌봄	
취약계층아동돌봄		취약가정 아동 케어, 취약가정 아동 통합지원	
재활	장애아동재활	재활치료	발달장애아 재활치료, 장애인 맞춤운동, 언어발달지원, 보조기렌탈
		발달진단	장애 조기발견 진단, 아동발달검사
장애인(성인)재활	의료재활	장애인 운동처방서비스, 언어치료,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직업재활	장애인 직업훈련, 장애인 생산품 유통 지원	
교육	인지능력향상·발달지원		아동인지능력향상, 아동 발달지원
		평생교육	학력보완교육 인문·문화·예술교육 직업훈련
		체험학습	문화 체험, 예술체험, 리더십 체험
	특수교육	신체장애, 정신지체, 정서 및 행동장애 교육	
	교육상담	비전형성지원, 적성검사, 진로상담	
	가족	다문화가정	다문화아동 적응지원, 다문화가정 언어발달 지원, 사회적응지원
결손가정		가족기능강화 서비스, 가정폭력예방	
사회 참여 지원	문화·체육·여가활동 지원	문화	노인문화 통합지원 프로젝트, 문화사각지대 아동 지원서비스
		체육	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 스포츠를 통한 총체적 자기개념강화 프로그램
		여가	돌봄여행, 노후지원
	사회봉사참여지원	멘토링 서비스, 자원봉사자 지원 및 연계	
	취업지원	고용알선 취약계층 취업지원	장애가구 경제활동 참여 지원, 이주자 취업지원, 은퇴자 취업지원
건강	신체건강	예방 및 관리	맞춤형 운동처방, 만성질환 및 치매 예방, 건강관리서비스
		기능향상	맞춤형 운동처방, 만성질환자 건강증진서비스, 한방건강지원
	정신건강	근로자 정서지원	근로자 근로의욕향상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EAP 프로그램, 자살예방지원,
		정신질환자 케어	정신질환자 토달케어서비스
	아동 정서지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인터넷·게임중독치유, 아동정서발달지원	
주거	주거환경개선		주거주택청소대행, 주거환경 소독방역

최근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 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9차)에 맞춰 대분류 8, 중분류 15, 소분류 44개로 분류하였다. 돌봄, 상담 및 재활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유형별로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종합 사회서비스업으로 분류하였다.

사회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2013년 현재 노인돌봄서비스는 제공인력이 약 11,376명에 이르고 제공기관도 약 1,418개소나 된다.

〈표II-23〉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제공인력 및 기관 현황

분 류	지원 대상	예산 (국비+지방비)	이용자	제공인력	제공기관
계		10,081	515,451	76,035	7,665
노인돌봄(종합)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968	33,202	11,376	1,418
장애인활동지원	만 6세~만 64세 1~2급 장애인	5,567	46,685	35,379	910
산모신생아도우미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386	23,283	2,408	267
가사간병방문도우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53	9,246	3,424	488
발달재활서비스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862	47,660	5,235	1,516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2,016	354,229	18,122	2,530
언어발달지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29	1,146	91	536

자료 : 보건복지부(201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도 제공인력이 35,379명이고 전국에 제공기관만 910개소나 되고 산모신생아도우미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사회서비스바우처의 이용자는 약 515,451명에 이르고 약 7,665개의 제공기관에 76,035명이 제공인력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사회서비스 인력의 범위로는 사회복지관련 관리자, 물리 및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기타 간병인 및 가사도우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II-24〉 사회(돌봄)서비스 인력 범위

표준직업분류코드	직업명
1332	사회복지관련 관리자(보육시설원장, 사회복지시설관리자, 사회사업단체임원)
2456	물리 및 작업치료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2459	임상심리사 및 기타치료사(놀이치료사, 대체요법사, 독서치료사, 미술치료사, 아동지능검사원, 언어청각사, 언어치료사, 운동처방사, 웃음치료사, 원예치료사, 음악치료사, 임상심리사, 재활승마치료사, 증독치료사, 청능사)
2465	간호조무사(간호조무사)
2471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2472	보육교사(보육교사)
2474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아동복지지도원, 청소년지도사)
2479	기타 사회복지관련 종사원(복지관 보조원, 생활지도원)
2523	특수교육교사(맹인적응교육교사, 장애인정보화교육사, 점자지도원, 특수교사, 특수학교교사)
4211	간병인(간병인, 장애아동돌봄)
4219	기타의료/복지관련 서비스 종사원(병원보조원, 보조조산원, 산후도우미, 육아도우미, 정신질환치료보조원)
9511	가사도우미(가사도우미)
9512	육아도우미(육아도우미, 보육교사 보조원)

## 제 3장

#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현황

1.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사업 개관
2.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관련 자원 현황
3.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관련 자원 분석
4.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이용자 현황





## 제 3 장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현황

### 1.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사업 개관

전국 16개 시도별 사회서비스관련 고용형태 중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행정은 상용직이 전체적으로 67.5%로 가장 많고 임시직이 29.8%, 일용직이 2.6% 이었다. 전북의 경우 16개 시도 중 상용직의 비중이 50.4%로 16개 시도 중 가장 낮았으나, 임시직은 44.3%로 16개 시도 중 임시직의 비중이 전국 1위로 가장 높았다. 한편, 상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전국 1위 지역은 광주가 78.9%였고, 2위는 서울로 75.3%였다.

교육 서비스업의 전국 평균은 상용직이 54.2%, 임시직이 26.6%였다. 전북의 경우 상용직이 53.9%로 대구 54.0%에 이어 전국 10위이고, 임시직은 27.9%로 전국 7위였다. 한편, 상용직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가 63.8%이고, 이어서 광주 58.6%였다.

보건업의 고용형태 전국 평균 상용직이 80.4%, 임시직 12.3%였다. 전북의 경우 상용직이 76.4%로 전국 14위이고, 임시직은 16.6%로 대전, 인천, 충북에 이어 4번째로 임시직이 많았다. 한편, 보건업의 상용직이 많은 지역은 광주가 85.8%로 전국 1위였고, 2위는 경남이 85.2%였다.

〈표 III-1〉 전국 사회서비스관련 고용형태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서울	75.3	21.5	2.7	50.0	29.5	1.2	78.6	11.2	.9	58.6	32.3	2.6
부산	68.4	29.3	2.3	47.1	32.2	.7	80.8	11.9	.3	49.5	43.6	2.1
대구	72.2	25.8	2.1	54.0	23.1	.9	81.4	10.0	.5	64.8	28.2	.7
인천	72.5	24.4	3.1	46.2	33.0	.8	80.4	17.4	.0	53.1	38.8	3.1
광주	78.9	19.3	1.9	58.6	20.2	.9	85.8	9.7	.6	52.4	41.3	2.1
대전	73.5	25.5	1.0	55.9	25.1	.3	75.2	19.8	.8	67.2	28.6	.8
울산	65.8	33.3	.9	47.3	32.2	1.2	80.2	9.0	.9	49.5	41.1	2.1
경기	73.5	24.2	2.3	50.2	29.2	.7	81.2	11.0	.8	60.3	29.0	2.2
강원	61.4	35.5	2.9	63.8	20.1	.5	78.9	12.1	1.3	63.1	33.1	.7
충북	70.5	25.4	4.1	58.3	25.0	1.3	76.0	17.1	.4	53.1	39.9	2.5
충남	68.8	27.8	3.4	58.2	25.7	.7	83.1	11.9	.2	58.1	33.9	2.3
전북	50.4	44.3	5.0	53.9	27.9	.4	76.4	16.6	.7	47.8	46.5	2.4
전남	61.8	35.0	3.2	57.1	23.1	.7	82.7	12.4	.2	62.1	33.6	1.2
경북	53.8	43.8	2.4	55.4	26.6	.3	82.8	9.0	.4	61.7	32.3	2.0
경남	61.5	35.9	2.5	58.6	24.3	.6	85.2	9.4	.8	60.1	31.8	2.4
제주	72.0	25.9	2.1	52.6	28.2	1.4	77.2	7.6	1.3	75.2	15.2	1.6
평균	67.5	29.8	2.6	54.2	26.6	0.8	80.4	12.3	0.6	58.5	34.3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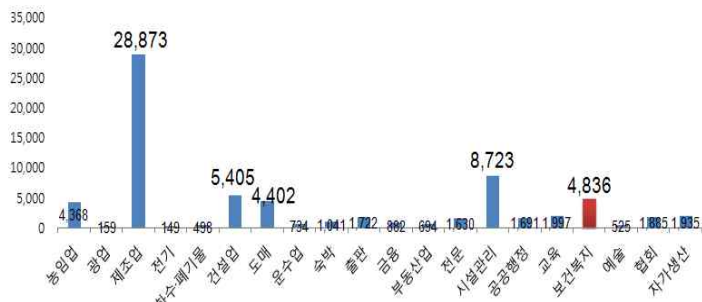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형태는 전국 평균 상용직 58.5%, 임시직 34.3%였고, 전북은 상용직이 47.8%로 16개 시도 중 16위로 가장 낮았고, 임시직이 46.5%로 전국 1위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상용직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가 75.2%로 전국 1위, 대전이 67.2%로 전국 2위였다.

〈표 Ⅲ-2〉 전라북도 분야별 구인 현황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업	63,559	457	567	1,238	916	3,049	261	516	21	20,794	4,109	2,441	8,787	4,368	4,775	3,160	6,169	1,918
광업	1,291	60	31	31	51	66	7	15	1	272	112	73	121	159	53	69	161	9
제조	1,046,336	32,678	55,286	64,486	67,296	25,419	14,272	38,396	1,074	361,324	9,517	50,912	67,720	28,873	24,671	65,926	135,480	1,623
전기	3,913	367	280	201	214	137	188	146	1	978	148	127	233	149	164	201	297	57
하수	12,497	803	443	689	873	438	202	397	15	4,308	266	838	609	498	416	648	840	201
건설	139,334	33,847	12,360	5,252	5,999	9,252	3,218	4,335	366	24,856	2,938	3,344	8,058	5,405	5,707	5,610	6,895	1,419
도매	159,449	36,325	13,503	9,555	8,547	4,369	3,695	3,077	48	46,074	4,218	4,469	4,725	4,402	2,317	4,424	7,162	1,099
운수	39,516	8,604	2,790	2,456	2,634	820	729	1,182	11	12,283	715	793	1,069	734	993	896	2,158	313
숙박	63,131	18,692	4,069	2,983	2,551	951	1,184	737	1,657	14,325	2,939	2,973	2,110	1,041	904	2,678	1,834	834
출판	58,298	26,365	3,139	2,846	1,509	2,052	1,806	604	5	9,651	1,083	1,331	901	1,722	718	1,569	1,467	762
금융	19,737	8,655	1,482	1,362	397	1,274	755	199	0	1,741	662	447	426	882	287	402	546	69
부동산	21,067	6,863	1,877	1,035	750	471	229	277	8	4,571	460	822	455	694	564	476	890	216
전문	51,833	13,230	4,459	2,571	1,675	2,236	1,743	2,563	14	10,111	1,044	1,241	1,676	1,630	1,092	1,700	4,060	411
시설관리	318,889	138,568	22,767	17,613	10,041	8,737	10,325	3,988	232	52,056	5,391	9,133	6,818	8,723	3,888	6,134	9,238	1,422
공공행정	45,281	5,093	2,978	3,330	1,581	2,704	1,343	238	15	8,434	4,007	1,737	3,778	1,691	3,265	1,951	1,911	70
교육	39,481	6,675	3,397	2,848	1,646	1,664	1,630	919	50	8,399	1,107	939	2,285	1,997	629	2,415	2,290	365
보건업	100,252	15,475	10,875	7,253	7,361	3,510	2,476	2,102	46	20,211	3,239	3,091	6,459	4,836	1,948	4,414	5,811	503
예술	11,495	1,914	696	388	251	280	222	150	4	2,721	680	385	402	525	333	736	830	898
협회	52,725	10,859	3,406	2,883	3,066	967	1,044	1,107	8	12,334	892	1,777	1,213	1,885	1,142	4,167	2,860	2,545
자가생산	59,420	4,017	93	134	18,962	2,024	2	3,397	946	6,810	4,232	5,891	125	1,935	6,484	629	2,806	931
국제기관	206	95	2	0	4	6	0	2	0	77	0	0	4	0	10	0	3	3

자료 : 고용정보원(2014), 워크넷

〈그림 Ⅲ-1〉 전라북도 분야별 구직자 수



자료 : 고용정보원(2013) 워크넷 통계연보 2012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개괄적인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 등록된 2012년 구직자 수 중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의 구인자는 총 4,836명으로 전체 구직자 72,149명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한해 보건 및 복지분야 구인자는 제조업, 시설관리업, 건설업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 2.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관련 자원 현황

전라북도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현황을 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78개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27개소, 산모신생아 도우미 14개소,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94개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0개소,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110개소로 총 453개소이다.

〈표Ⅲ-3〉 16개 시도별 바우처 제공기관 수 (2011년, 단위 : 개소)

구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인 활동지원 (201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12년)	발달재활 서비스 (2012년)	전체
서울	101	35	65	279	284	398	1,162
부산	67	22	4	92	221	117	523
대구	51	8	3	65	411	140	678
인천	31	11	10	111	182	154	499
대전	37	14	11	66	200	46	374
광주	24	5	5	54	180	60	328
울산	20	5	4	35	105	59	228
경기	126	40	95	275	545	468	1,549
강원	57	21	21	85	122	99	405
충북	39	14	13	55	163	105	389
충남	62	24	26	103	157	127	499
경북	101	36	11	101	154	165	568
경남	95	33	7	132	198	130	595
<b>전북</b>	<b>78</b>	<b>27</b>	<b>14</b>	<b>94</b>	<b>130</b>	<b>110</b>	<b>453</b>
전남	78	23	6	85	111	86	389
제주	17	6	9	17	82	19	150
세종				15	27	20	62
합계	984	324	304	1,664	3,272	2,303	8,851

전라북도로 범위를 좁혀 14개 시군별로 6대 바우처사업의 제공기관 분포를 분석해 보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장 많은 전주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14개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7개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이다.

아울러, 산모신생아 방문도우미 제공기관 6개소, 장애아동 치료 제공기관 20개소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13개소이다. 전라북도의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도 도시와 농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주와 군산 그리고 익산 등 도시권에 제공기관이 집중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사간병방문서비스의 경우 제공기관은 전주에 5개소, 군산 3개소, 익산 3개소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Ⅲ-4〉 전라북도 사회복지이용시설 현황(단위 : 개소, 명)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기관	인력	이용	기관	인력	이용	기관	인력	이용	기관	인력	이용						
고창	4	4	126	1	1	51	1	1	31	1	1	16	5	4	114	12	11	338
군산	3	3	282	3	3	153	2	2	136	1	1	25	12	7	300	17	15	960
김제	4	4	150	4	4	61	1	1	78	4	2	100	12	12	339	25	23	728
남원	8	8	267	3	3	82	1	1	69	5	2	119	8	8	339	25	22	876
무주	2	2	62	2	2	19	1	1	15	2	2	90	7	7	186			
부안	2	2	91	2	2	43	1	1	25	1	1	21	4	4	95	10	10	275
순창	9	9	159	2	2	43	1	1	19	7	7	377	19	19	598			
완주	8	8	240	2	2	71	1	1	71	2	1	36	7	7	619	20	19	1,037
익산	6	6	229	5	5	170	3	3	119	11	8	371	12	11	28,302	37	33	29,191
임실	3	3	138	2	2	34	1	1	13	1	1	36	2	2	141	9	9	362
장수	2	2	97	2	2	38	1	1	18	2	2	81	7	7	234			
전주	14	14	537	7	7	546	2	2	227	6	6	256	20	11	876	13	13	549
정읍	7	7	373	3	3	78	2	2	72	3	3	95	8	8	389	23	23	1,007
진안	4	4	122	3	3	32	1	1	32	1	1	8	4	4	232	13	13	426

자료 : 박세경 외(2014)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지역적 분포

〈표Ⅲ-5〉 가사간병방문 제공기관 (2013년 하반기)

시군	기관명	이용 인원 (명)	제공인력 수(명)			시군	기관명	이용 인원 (명)	제공인력 수(명)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전주	1. (유)도우누리 전주온케어	47	17	0	17	남원	1. 남원노인복지센터	1	1	0	1
	2. 엘링노인복지센터	54	20	0	20		2. 에벤에셀도우미센터	88	17	0	17
	3. 전주사회서비스센터	92	23	0	23	김제	1. 김제노인종합복지관	86	27	0	27
	4. 전주중앙노인복지센터	4	4	0	4		2. 김제지역자활센터	7	2	0	2
	5. 전주지역자활센터	129	32	0	32	완주	1. 드림사회서비스센터	80	46	0	46
군산	1. 군산지역자활센터	88	38	0	38	진안	1. 진안지역자활센터	31	10	0	10
	2. 군산하마음사회서비스센터	73	36	0	36	무주	1. 무주지역자활센터	16	9	0	9
	3. 나눔 노인케어센터	22	10	0	10	장수	1. 장수지역자활센터	39	18	0	18
익산	1. 원광효도마을시니어클럽	90	26	0	26	임실	1. 전북임실지역자활센터	17	11	0	11
	2.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18	10	0	10		순창	1. 순창지역자활센터	20	9	0
	3. 익산지역자활센터	47	25	0	25	고창		1. 고창지역자활센터	61	19	0
정읍	1.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56	11	0	11		부안	1. 전북부안지역자활센터	33	6	0
	2. 정읍지역자활센터	43	15	0	15						

자료 : 사회복지서비스전자바우처(2014) 2013년 하반기 기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제공기관은 전주에 17개소, 남원 12개소, 완주 10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대체로 지역자활센터와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주된 제공기관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지역이 별도의 전문적인 사회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Ⅲ-7〉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2013년 하반기)

시군	기관명	이용인원(명)	제공인력 수(명)			시군	기관명	이용인원(명)	제공인력 수(명)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전주	1. (사)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269	255	35	220	완주	1. 구이노인복지센터	2	2	0	2
	2. (사)희망드림	215	195	31	164		2. 드림사회서비스센터	90	73	0	73
	3. GIP홀케어	11	2	0	2		3. 완주군장애인복지관	12	15	4	11
	4. 예찬홀케어	26	6	0	6		4. 완주나래복지센터	1	1	0	1
	5.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146	130	11	119	진안	1.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18	8	1	7
	6.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208	221	65	156		2. 진안정형외과	1	1	1	0
	7. 학산종합사회복지관	114	86	16	70		3. 진안지역자활센터	25	36	4	32
군산	1.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89	69	1	68	무주	1. 무주돌봄사회서비스센터	2	1	0	1
	2. 보은노인복지센터	11	1	0	1		2. 무주지역자활센터	22	18	1	17
	3. 사)군산시장장애인연합회	156	134	6	128	장수	1. 장수군장애인연합회	27	19	0	19
1. 배산재가장기요양기관	11	1	0	1	2. 장수지역자활센터		19	15	1	14	
익산	2. 새소망주간보호시설	87	71	5	66	임실	1. 인존장학복지재단	11	9	1	8
	3. 익산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77	48	2	46		2. 임실군장애인연합회	32	26	3	23
	4.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39	27	0	27	순창	1. 동지장애인활동지원센터	45	45	11	34
	5. 익산지역자활센터	26	29	1	28		2. 순창군장애인자활자립회	30	21	1	20
	1. 보듬우리원소규모요양시설	4	1	0	1		고창	1.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71	50	5
2. 정읍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A)	54	41	3	38	부안	1.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45	28	1	27
3. 정읍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B)	9	7	1	6		2. 우리제가 장기요양기관	13	4	1	3	
4. 정읍지역자활센터	60	38	4	34	김제	1. 김제노인복지센터	16	2	0	2	
1. 남원사회복지관	43	27	1	26		2. 김제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28	19	3	16	
2. 남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68	56	5	51		3. 김제제일사회복지관	45	25	1	24	
3. 지리산노인복지센터	10	3	1	2		4. 김제지역자활센터	17	12	0	1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제공기관은 전주에 7개소, 익산 5개소, 정읍에 4개소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제공기관은 주로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과 자활센터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III-8〉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공기관 (2013년 하반기)

시군	기관명	이용 인원	제공인력 수(명)			시군	기관명	이용 인원	제공인력 수(명)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전주	1. (주)엠에이	55	1			정읍	1. HJS음악치료발달연구소 정읍지원	3	1		
	2. JK언어치료 교육센터	30	1				2. 마음나무상담센터	5	1		
	3. 공감놀이아동발달센터	94	1				3.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66	2		
	4. 디딤돌행복연구소	2	1				4. 현정장애아동지원센터	40	1		
	5. 루슬로언어청각치료센터	158	1				5. (주)대교눈높이-해남	824	1		
	6. 마음 미술심리상담센터	16	1			남원	1. 전북장애인부모회남원지회	17	1		
	7. 멘토소아청소년연구소	47	1				2.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75	1		
	8. 밝은언어심리센터	18	1				3. 남원아동발달센터	23	1		
	9. 아이세움언어발달센터	28	1				4. (주)대교눈높이-해남	824	1		
	10. 하늘땅발달센터	23	1				5. 남원농아인협회	6	1		
	11. 언어특수교육원	237	2			김제	1.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35	1		
	12. 자람터조기교육원	112	6				2. 김제언어치료실	29	1		
	13. 전라북도장애인부모회	23	1				3. 미래아동발달센터	22	1		
	14. 전라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59	1				4. 예담예술치료연구소	5	1		
	15. 전주조기교육센터	22	1				5. (주)대교	824	1		
	16.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136	85	6	79	완주	1. (주)엠에이	55	1		
	17. 하늘소리음악치료교육센터	39	1				2. JK언어치료 교육센터	30	1		
	18. 황양희언어발달센터	90	1				3. 루슬로언어청각치료센터	158	1		
	19. (주)대교눈높이-해남	824	1				4. 밝은언어심리센터	18	1		
	20. 쉐마언어발달센터	28	2				5. 쉐마언어발달센터	28	2		
21. 이샘언어학습센터	20	1			6. 언어특수교육원		237	2			
1. 군산언어발달연구소	63	1			7. 완주군장애인복지관		30	1			
2. 군산언어심리센터	22	1			8. 완주웃음꽃놀이교육상담센터		19	1			
3. 군산예술심리치료연구소	22	1			9. 우석대 발달장애아치료교육원		12	1			
4.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13	1			10. 자람터조기교육원		112	6			
5. 그린맘심리발달연구소	70	3			11. 전주조기교육센터		22	1			
6. 맑은소리언어인지발달센터	19	1			12. 하늘소리음악치료교육센터		39	1			
7. 아리울언어심리연구소	59	1			13. 황양희언어발달센터		90	1			
8. 아이전북통합상담발달연구소	15	1			14. (주)대교		824	1			
9. 에디슨 아동발달센터	27	1			진안	1.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9	1			
10. 이선자인지언어치료연구소	48	3			무주	1. 루슬로언어청각치료센터	158	1			
11. 이화아동발달조기교육원	26	1				2. 이샘언어학습센터	20	1			
12. 초록숲인지언어심리상담센터	38	2				3. 자람터조기교육원	112	6			
13. 한국장애인부모군산시지부	6	1			장수	-					
14. (주)대교눈높이-해남	824	1			임실	1. 꿈꾸는언어교육원	34	1			
15. 소리엘언어재활센터	2	1				2. 언어특수교육원	237	2			
1. (사)한국예술치료학회전북지부	78	11				3. 전주조기교육센터	22	1			
2. 다음터놀이교육센터	113	1				4. 하늘땅발달센터	23	1			
3. 동산사회복지관	8	1			순창	1. (주)엠에이	55	1			
4. 마음나무심리상담센터	40	1				2. 쉐마언어발달센터	28	2			
5. (사)사랑의손길 새소망	10	1			고창	1.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23	1			
6. 소리언어청각센터 익산센터	73	1				2. 언어특수교육원	237	2			
7. 숲리언어치료실	66	1			부안	1.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26	1			
8. 아이꿈 언어치료실	44	1				2. 즐거운언어발달센터	13	1			
9. 원광심리치유센터	31	1									
10.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25	1									
11. 익산아동발달센터	22	1									
12. 파란나라발달연구소	17	1									
13. 풀아동청소년상담센터	8	1									
14. 햇살드림센터	31	3									
15. (주)대교눈높이-해남	824	1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의 복지기관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는데 반해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는 JK언어치료교육센터, 밝은언어심리센터, 이샘언어학습센터 등 민간 재활전문기관을 통해서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가 주로 언어치료나 미술치료 등 전문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로 제공되다보니 농촌보다는 도시지역의 인력수급이 원활하다는 점에서 제공기관도 대부분 전주에 위치하고 있다. 물론 전주 이외 지역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광역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수요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광역센터의 역할을 하는 제공기관을 제외한 지역별 제공기관중 이용인원이 많은 제공기관으로는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익산 다움터놀이교육센터, 군산 그린맘심리발달연구소 등이 있다.

〈표 III-9〉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 (2013년 하반기)

시군	기관명	이용인원 (명)	제공인력 수(명)		
			합계	남성	여성
전주	1. (유)도우누리 전주온케어	57	13	0	13
	2. 마티피아 전주	53	18	0	18
	3. 미소피아	384	76	0	76
	4. 산모피아 전복지점	91	27	0	27
	5. 에스엠천사 전복지사	463	83	0	83
	6.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복지회	125	22	0	22
	7. 전주여자기독교청년회(YWCA)	462	68	0	68
	8. 해피케어	521	94	0	94
남원	1. 에벤에셀도우미센터	88	17	0	17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의 제공기관은 전주에 8개소, 남원에 1개소만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용인원 또한 전주와 남원에서만 이용하고 있다. 이용인원이 많은 제공기관은 전주 해피케어, 전주여자기독교청년회, 에스엠천사 전복지사 등 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제공기관은 (주)교원, (주)재능교육 등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사업의제공기관처럼 광역센터의 역할을 하는 제공기관이 전주를 비롯해, 군산, 익산, 정읍 등 다른 지역에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제공하여 수요가 있지만 제공기관이 없는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역센터의 역할을 하는 제공기관을 제외한 지역별 제공기관중 이용인원이 많은 주요 제공기관으로는 전주 사단법인 드림필, 군산 장진지압안마원, 익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완주 우석대 아동발달지원센터 등이 있다.



〈표 Ⅲ-1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2013년 하반기)

시군	기관명	이용 인원 (명)	제공인력 수(명)			시군	기관명	이용 인원 (명)	제공인력 수(명)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전주	1. YWCA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69	1			군산	18. 규란복지재단(희망의심터)	61	1		
	2. (유)가온교육	649	4				19. 그린맘심리발달연구소	113	3		
	3. (재)전주기독교청년회	18	1				20. 사단법인대한문화예술인협회	239	4		
	4. (주)교원	14364	1				21. 센트럴심포니오케스트라	61	1		
	5. (주)교원구문관저지국	58043	1				22. 아리울언어심리연구소	44	1		
	6. (주)대교눈높이 해남	51594	8				23. 아이전북통합상담발달연구소	1	1		
	7. (주)아이북랜드대구서부분부	1728	1				24. 움직임놀이터	3	1		
	8. (주)엠에이	35	1				25. 이산자인지언어치료연구소	8	1		
	9. (주)웅진씽크빅예산지소	64039	1				26. 장진지압안마원	244	1		
	10. (주)장원교육	1456	1				27. 진로커리어연구소	29	1		
	11. (주)재능교육	23262	1				28. 초록숲인지언어심리상담센터	9	1		
	12. (주)한솔교육	13748	1				1. (사)한국예술치료학회전북지부	100	7		
	13. (주)해누리전북지사	30	1			2. (주)교원	14364	1			
	14. 라파미술심리상담센터	1	1			3. (주)교원구문관저지국	58043	1			
	15. 마음건강서비스	70	1			4. (주)에스엠교육 익산지점	174	1			
	16. 마음나눔상담센터	66	1			5. (주)웅진씽크빅예산지소	64039	1			
	17. 미래와희망 아동발달센터	199	1			6. (주)장원교육	1456	1			
	18. 밝은언어심리센터	16	1			7. (주)재능교육	23262	1			
	19. 국제청소년진흥협회전북지부	50	1			8. (주)한솔교육	13748	1			
	20. 사단법인 드림필	155	1			9. 건강샘	138	2			
	21. 센트럴심포니오케스트라	58	1			10. 다움터놀이교육센터	8	1			
	22. 선녀머종합사회복지관	101	1			11. 두드림안마원	73	1			
	23. 완주교육지원협동조합	101	1			12. 마음나무심리상담센터	36	1			
	24. 유한회사 하예랑	59	1			13. 부부안마원	81	2			
	25. 음악힐링아이	145	2			14. 아이꿈언어치료실	1	1			
	26.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61	1			15. 어울림안마원	5	1			
	27. 전북아동청소년심리치료센터	18	1			16. 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	78	6			
	28.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23	1			17. 원광심리치유센터	11	1			
	29. 전주미술심리상담연구소	109	2			18. 원광종합사회복지관	79	3			
	30.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	33	1			19. 으뜸안마원	46	1			
	31. 한국커리어&라이프상담센터	24	1			20. 익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124	1			
	32. 리틀아일랜드	37	1			21. 패밀리오케스트라	60	2			
1. 전국실업단체연대 군산지부	139	1			22. 한우리 바우처센터	50	1				
2. (주)교원	14364	1			23. 햇살드림센터	2	1				
3. (주)교원구문관저지국	58043	1			1. (사)무직하임협회	45	1				
4. (주)대교	51594	8			2. (주)교원	14364	1				
5. (주)아이북랜드대구서부분부	1728	1			3. (주)교원구문관저지국	58043	1				
6. (주)웅진씽크빅예산지소	64039	1			4. (주)웅진씽크빅예산지소	64039	1				
7. (주)장원교육	1456	1			5. (주)재능교육	23262	1				
8. (주)재능교육	23262	1			6. (주)한솔교육	13748	1				
9. (주)한솔교육	13748	1			7. HJS음악치료발달연구소	78	1				
10. 군산나누는사람들	87	1			8. 김선희부부가족상담센터	9	1				
1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118	1			9. 마음나무상담센터	26	1				
12. 군산대학교산학협력단	234	3			10. 사단법인대한문화예술인협회	239	4				
13. 군산미술심리아트맨하모니	66	2			11. 에스엠평생교육원	150	2				
14. 군산언어발달연구소	42	1			12. 월드유스비전정읍시지회	109	1				
15. 군산언어심리센터	11	1			13. 음악힐링아이	145	2				
16. 군산예술심리치료연구소	10	1									
17. 군산종합사회복지관	80	1									

〈표 III-1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2013년 하반기)

시군	기관명	이용 인원 (명)	제공인력 수(명)			시군	기관명	이용 인원 (명)	제공인력 수(명)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정읍	14. 전북과학대학 산학협력단	214	3			진안	1. 건강샘	138	2			
	1. (유)가온교육	649	4				2.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42	1			
	2. (주)교원	14364	1				3. 진안군정신건강지원센터	111	2			
	3. (주)교원구문관저지국	58043	1				4. 진안군청소년수련관	56	1			
	남원	4. (주)웅진씽크빅예산지소	64039	1		무주	1. (주)대교농놀이 해남	51594	8			
		5. (주)장원교육	1456	1				2. (주)로봇과학센터	82	2		
		6. (주)재능교육	23262	1				3. (주)웅진씽크빅예산지소	64039	1		
		7. (주)한솔교육	13748	1				4. 사단법인대한문화예술인협회	239	4		
		8. 남원YWCA	9	1		장수	1. (유)가온교육	649	4			
		9. 남원상담심리연구센터	64	1				2. (주)로봇과학센터	82	2		
		10. 남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17	1				3. 사단법인대한문화예술인협회	239	4		
		11. 남원아동발달센터	63	1				4. 장수군다문화가정희망센터	103	1		
		12. 리틀아리랑	81	2				5. 장수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	1		
13. 한울안운동남원지회		175	1				6. 장수보건복지센터	69	1			
							7. 하늘내노인복지센터	16	8			
김제		1. (주)교원구문관저지국	58043	1		임실	1. 사회복지법인미리암복지재단	62	1			
		2. (주)대교농놀이 해남	51594	8				2. 언어특수교육원	33	2		
	3. (주)웅진씽크빅예산지소	64039	1				3. 예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38	4			
	4. (주)재능교육	23262	1				4. 임실필동농악보존회	50	1			
	5. 길보종합사회복지관	82	2		순창	1. 밝은마음심리상담센터	17	1				
	6. 김제사회복지관	80	4				2. 복흥다문화의집	44	1			
	7.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	202	1				3. 사단법인대한문화예술인협회	239	4			
	8. 김제제일사회복지관	71	3				4. 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	120	1			
	9. 드림필	33	1				5. 언어특수교육원	33	2			
	10. 미래아동발달센터	22	1			고창	1. (주)에스엠교육고창지점	209	1			
	11. 서로돕는마을	46	1					2. 고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38	1		
	12. 익산필하모니오케스트라김제지부	68	1				3.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25	2			
	13. 패밀리오케스트라	60	2		부안	1. (유)가온교육	649	4				
완주	1. 전라필하모닉소폰오케스트라	82	1				2. (주)교원구문관저지국	58043	1			
	2.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86	1				3. (주)로봇과학센터	82	2			
	3. 완주군장애인복지관	53	1				4. 부안종합사회복지관	78	1			
	4. 우석대사회서비스지원센터	232	2									
	5. 우석대 아동발달지원센터	940	1									
	6. 한일장신대학교산학협력단	268	3									

### 3.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관련 자원 분석

전라북도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 각 시군의 읍면동별 제공기관을 각 사회서비스의 잠재수요인구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먼저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4집단의 경우 도시지역과는 달리 농촌지역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무주군의 경우 무주군내 6개 읍면의 인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전체 제공기관은 2개소밖에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장수지역도 상대적으로 노인인가 많은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노인돌봄서비스의 제공기관은 총 3개소에 불과하다.

〈표 Ⅲ-12〉 노인인구 대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집단] 0.5이하	[1집단] 중안남농노완산동서서중평화삼삼삼효자1효자2효자3진복진후1진후2진후3인덕금암금평우아1우아2호송송조동산	[1집단] 옥구옥회인서개성나옥도서해신중경구개	[1집단] 합라포성평안산성남양금준산용평인마송영이평	[1집단] 산내 0개소	[1집단] 덕과 0개소	[2집단] 부량덕하덕산활	[1집단] 동상천	[3집단] 용담천향천천	[4집단] 무주공청상성남	[4집단] 장수서암계천남부	[3집단] 청운신신강터지	[3집단] 적유적유	[3집단] 고아무공상해성신성신부안	[2집단] 위도
[2집단] 0.5~1.0		3개소		[2집단] 북면읍성부영덕이정용철산장시초연농상교	[2집단] 주천지동생강산대사매보산악이아산인동충향암	0개소	[2집단] 비룡주							0개소
[3집단] 1.0~2.0		[2집단] 대야명월신삼삼홍조니운1니운2니운3소미	4개소	[3집단] 신태인태인곡성	9개소	[3집단] 만경산산지구봉구남산산월	0개소	0개소	[3집단] 진관서양이산산		0개소	0개소	0개소	[3집단] 주안안서서서출포
[4집단] 2.0이상	20개소	[3집단] 수송		5개소	[3집단] 분지동정교동	5개소	6개소	[4집단] 진안운수령귀천			[4집단] 임성오삼계촌	[4집단] 순인동풍금팔덕지흥림	[4집단] 고대	1개소
총시설수	21개소	7개소	7개소	9개소	11개소	8개소	9개소	7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10개소	4개소	2개소







한편,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서비스는 전라북도에 총 9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전주에 8개소, 남원에 1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이외 지역은 대부분 관련 제공기관이 한곳도 설치 되어 있지 않다. 물론 관련 서비스의 제공기관이 부재한 12개 지역의 경우 전주지역에서 방문형으로 관련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제공인력에 지원되는 출장비 지원의 근로여건이 좋지 않아 농촌지역의 부족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의 인프라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표 Ⅲ-16〉 산모신생아도우미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집단] 0.5 하	[1집단] 중앙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1집단] 옥구읍 옥곡회관 1개소	[1집단] 함라포동 양곡농협 0개소	[1집단] 입암성서교회 0개소	[1집단] 수동생리대사업소 0개소	[1집단] 죽산산량부곡동교회 0개소	[1집단] 비봉주산상천교회 0개소	[1집단] 용담 0개소	[2집단] 부남 0개소	[2집단] 계북 0개소	[2집단] 청송평수터계진치사 0개소	[2집단] 인계과덕성농협 0개소	[1집단] 상송내리 0개소	[1집단] 위도 0개소
[2집단] 0.5~1.0	[2집단] 농평화1차2차3차 3개소	[2집단] 월명농협 0개소	[2집단] 함열산등화평인화동 0개소	[2집단] 부인명기농사교 0개소	[2집단] 만용백금금 0개소	[2집단] 경지구구산 0개소	[3집단] 상양구고 0개소	[2집단] 안천전천 0개소	[3집단] 무적 0개소	[3집단] 천천 0개소	[3집단] 운암 0개소	[3집단] 동계산치흥리 0개소	[2집단] 고이무공상해대신원 0개소	[2집단] 수동행보진사사서 0개소
[3집단] 1.0~1.5	[3집단] 인덕진금아1동 6개소	[3집단] 홍남성미 0개소	[3집단] 신대연지 0개소	[3집단] 동향암왕정 0개소	[3집단] 동향암왕정 0개소	[3집단] 동향암왕정 0개소	[3집단] 동향암왕정 0개소	[3집단] 동향암왕정 0개소	[3집단] 동향암왕정 0개소	[3집단] 동향암왕정 0개소	[3집단] 동향암왕정 0개소	[3집단] 동향암왕정 0개소	[3집단] 동향암왕정 0개소	[3집단] 동향암왕정 0개소
[4집단] 1.5이상	[4집단] 신평화1차2차3차 1개소	[4집단] 조수읍1리2리3리 0개소	[4집단] 동산현1리2리3리 0개소	[4집단] 수성상초산 0개소	[4집단] 금동교동 0개소	[4집단] 삼봉동진서 0개소	[4집단] 삼봉동진서 0개소	[4집단] 진안부귀 0개소	[4집단] 무적 0개소	[4집단] 수처암계남 0개소	[4집단] 임실수주관 0개소	[4집단] 순창 0개소	[4집단] 고창 0개소	[4집단] 부안변산 0개소
총시설수	8개소	0개소	0개소	0개소	1개소	0개소	0개소	0개소	0개소	0개소	0개소	0개소	0개소	0개소





〈표 III-18〉 14개 시군별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분포

지역 (노인 비율)	총분 (3개 이상)	부족 (1개~2개)	매우부족 (없음)
전주(10.5)	인후2동	금암1동, 동산동, 동서학동, 삼천3동, 서서학동, 송천1동, 진북동, 평화1동, 평화2동, 효자1동, 효자2동, 노송동, 삼천1동, 풍남동	금암2동, 덕진동, 삼천2동, 서신동, 송천2동, 완산동, 우아1동, 우아2동, 인후1동, 인후3동, 조촌동, 중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팔복동, 호성동, 효자3동, 효자4동
21개소	3개소	18개소	
군산(13.2)		임피면, 나포면, 신흥동, 중앙동, 조촌동, 개정동, 수송동, 월명동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옥도면, 옥서면, 해신동, 삼학동, 흥남동, 경암동, 구암동, 나운1동, 나운2동, 나운3동, 소룡동, 미성동
9개소		9개소	
익산(13.8)		황등면, 중앙동, 평화동, 동산동, 신동, 마동	함열읍, 오산면, 함라면, 응포면, 성당면, 용안면,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용동면, 인화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영등1동, 영등2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7개소		7개소	
정읍(21.9)		신태인읍, 태인면, 내장상동, 연지동, 수성동, 시기동	북면, 입암면, 소성면, 고부면, 영원면, 덕천면, 이평면, 정우면, 감곡면, 응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장명동, 초산동, 농소동, 상교동
9개소		9개소	
남원(22.0)		주생면, 아영면, 이백면, 노암동, 왕정동, 향교동, 도동동, 동충동, 죽항동	운봉읍, 주천면, 수지면, 송동면, 금지면, 대강면, 대산면,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 산동면, 산내면, 인월면, 금동
12개소		6개소	
김제(25.2)	요촌동	백산면, 응지면, 백구면, 금산면, 교월동	만경읍, 죽산면, 부량면, 공덕면, 청하면, 성덕면, 진봉면, 금구면, 봉남면, 황산면, 광활면, 신흥동, 검산동
9개소	4개소	5개소	
완주(18.9)		삼례읍, 봉동읍, 용진면, 상관면, 이서면, 고산면, 구이면	소양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
9개소		5개소	
진안(28.7)	진안읍	성수면, 마령면	용담면, 안천면, 동향면, 상전면, 백운면, 부귀면, 정천면, 주천면
7개소	5개소	2개소	
무주(27.8)		무주읍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2개소		2개소	
장수(28.0)		장수읍, 장계면, 천천면	산서면, 번암면, 계남면, 계북면
3개소		3개소	
임실(30.4)		임실읍, 오수면, 관촌면	청응면, 운암면, 신평면, 성수면, 신덕면, 삼계면, 강진면, 덕치면, 지사면
4개소		4개소	
순창(29.4)	순창읍	풍산면, 복흥면, 쌍치면	인계면, 동계면, 금과면, 팔덕면, 적성면, 유등면, 구림면
10개소	5개소	5개소	
고창(27.6)	고창읍		고수면, 아산면,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성송면, 대산면, 심원면, 흥덕면, 상내면, 신림면, 부안면
4개소	4개소		
부안(26.2)		부안읍, 백산면, 행안면	주산면, 동진면, 계화면, 보안면, 변산면, 진서면, 상서면, 하서면, 줄포면, 위도면
3개소		3개소	

한편, 지역별로 각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의 수혜대상 인구와 제공기관 수를 기준으로 지역별 제공기관의 부족여부를 평가해 보면,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14개 시군 읍면동별 분포도를 보면, 3개소 이상의 제공기관이 있는 지역은 전주, 김제, 진안, 순창, 고창의 1개 읍, 동 지역만 제공기관이 충분히 설치되어있고, 1~2개 설치되어 있는 지역도 농촌지역은 주로 읍권역에 설치되어있다. 특히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무주, 장수, 고창 등은 제공기관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19〉 14개 시군별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제공기관 분포

지역 (노인 비율)	부족 (1개~2개)	매우부족 (없음)
전주(10.5) 5개소	평화2동, 노송동, 풍남동 5개소	금암2동, 덕진동, 삼천2동, 서신동, 송천2동, 완산동, 우아1동, 우아2동, 인후1동, 인후2동, 인후3동, 조촌동, 중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팔복동, 호성동, 효자3동, 효자4동, 금암1동, 동산동, 동서학동, 삼천3동, 서서학동, 송천1동, 진북동, 평화1동, 효자1동, 효자2동, 삼천1동
군산(13.2) 3개소	수송동, 월명동, 해신동 3개소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옥도면, 옥서면, 삼학동, 흥남동, 경암동, 구암동, 나운1동, 나운2동, 나운3동, 소룡동, 미성동, 임피면, 나포면, 신흥동, 중앙동, 조촌동, 개정동
익산(13.8) 3개소	중앙동, 평화동, 신동 3개소	함열읍, 황등면, 오산면, 함라면, 응포면, 성당면, 용안면,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용동면, 인화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영등1동, 영등2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동산동, 마동
정읍(21.9) 2개소	수성동, 시기동 2개소	신태인읍, 북면, 입암면, 소성면, 고부면, 영원면, 덕천면, 이평면, 정우면, 감곡면, 응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장명동, 초산동, 농소동, 상교동, 태인면, 내장상동, 연지동
남원(22.0) 2개소	동충동, 죽향동 2개소	운봉읍, 주천면, 수지면, 송동면, 금지면, 대강면, 대산면, 사매면, 덕곡면, 보절면, 산동면, 산내면, 인월면, 주생면, 아영면, 이백면, 금동, 노암동, 왕정동, 향교동, 도룡동
김제(25.2) 2개소	요촌동 2개소	만경읍, 죽산면, 부량면, 공덕면, 청하면, 성덕면, 진봉면, 금구면, 봉남면, 황산면, 광활면, 백산면, 응지면, 백구면, 금산면, 신흥동, 검산동, 교월동
완주(18.9) 1개소	봉동읍, 1개소	삼례읍, 소양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 용진면, 상관면, 이서면, 고산면, 구이면
진안(28.7) 1개소	진안읍 1개소	용담면, 안천면, 동향면, 상전면, 백운면, 부귀면, 정천면, 주천면, 성수면, 마령면
무주(27.8) 1개소	무주읍 1개소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장수(28.0) 1개소	장수읍, 1개소	산서면, 번암면, 계남면, 계북면, 장계면, 천천면
임실(30.4) 2개소	임실읍, 관촌면 2개소	청응면, 운암면, 신평면, 성수면, 신덕면, 삼계면, 강진면, 덕치면, 지서면, 오수면,
순창(29.4) 1개소	순창읍 1개소	인계면, 동계면, 금과면, 팔덕면, 적성면, 유등면, 구림면, 풍산면, 복흥면, 쌍치면
고창(27.6) 1개소	고창읍 1개소	고수면, 아산면,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성송면, 대신면, 심원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
부안(26.2) 1개소	행안면 1개소	부안읍, 주산면, 동진면, 계화면, 보안면, 변산면, 진서면, 상서면, 하서면, 줄포면, 위도면, 백산면

가사간병방문서비스제공기관의 14개 시군 읍면동별 분포도를 보면, 3개소 이상의 제공기관이 있는 지역은 14개 시군을 통틀어 한 개 지역도 없었고, 1~2개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각 시군별로 1개 지역에서 많게는 3개 지역으로 가사간병서비스제공기관의 지역별 분포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임실을 제외한 다른 농촌지역의 제공기관 수는 1개 밖에 없어 읍 지역을 제외한 면 지역의 가사간병방문서비스의 수요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족하였다.

〈표 III-20〉 14개 시군별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분포

지역 (장애인비율)	층분 (3개 이상)	부족 (1개~2개)	매우부족 (없음)
전주(5.2)		동서학동, 평화1동, 평화 2동, 인후3동, 금암2동, 우아1동, 우아2동	덕진동, 삼천2동, 서신동, 송천2동, 완산동, 인후1동, 인후2동, 조촌동, 중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팔복동, 호성동, 효자3동, 효자4동, 금암1동, 동산동, 삼천3동, 서서학동, 송천1동, 진복동, 효자1동, 효자2동, 삼천1동, 노송동, 풍남동
7개소		7개소	
군산(6.3)		임피면, 해신동, 미성동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도면, 옥서면, 월명동, 신평동, 삼학동, 중앙동, 흥남동,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나운1동, 나운2동, 나운3동, 소룡동, 개정동
3개소		3개소	
익산(7.7)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남중동, 모현동	함열읍, 황등면, 오산면, 함라면, 응포면, 성당면, 용안면,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용동면, 동산동, 마동, 송학동, 영등1동, 영등2동, 어양동, 신동, 팔봉동, 삼성동
5개소		5개소	
정읍(8.7)		수성동, 감곡면	신태인읍, 북면, 입암면, 소성면, 고부면, 영원면, 덕천면, 이평면, 정우면, 태인면, 응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장명동, 내장상동, 시기동, 초산동, 연지동, 농소동, 상교동
3개소		3개소	
남원(9.1)		이백면, 아영면, 노암동	운봉읍, 주천면, 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 대강면, 대신면,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 산동면, 산내면, 인월면, 동중동, 죽향동, 금동, 왕정동, 향교동, 도룡동
3개소		3개소	
김제(10.8)	요촌동	백산면, 교월동	만경읍, 죽산면, 응지면, 백구면, 부량면, 공덕면, 청하면, 성덕면, 진봉면, 금구면,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광활면, 신평동, 검산동
5개소	3개소	2개소	
완주(8.7)	봉동읍	구이면	삼례읍, 소양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 웅진면, 상관면, 이서면, 고산면
5개소	4개소	1개소	
진안(10.3)	진안읍	마령면	용담면, 안천면, 동향면, 상전면, 백운면, 부귀면, 정천면, 주천면, 성수면
4개소	3개소	1개소	
무주(9.8)	무주읍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3개소	3개소		
장수(10.6)		장수읍, 산서면, 장계면	번암면, 계남면, 계북면, 천천면
4개소		4개소	
임실(10.8)		임실읍, 관촌면, 신평면	청응면, 운암면, 성수면, 신덕면, 삼계면, 강진면, 덕치면, 지사면, 오수면,
4개소		4개소	
순창(10.0)	순창읍		인계면, 동계면, 금과면, 팔덕면, 적성면, 유등면, 구림면, 풍산면, 복흥면, 쌍치면
3개소	3개소		
고창(9.6)		고창읍	고수면, 아산면,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성송면, 대산면, 심원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
1개소		1개소	
부안(9.4)		부안읍, 진서면	주산면, 동진면, 계화면, 보안면, 변산면, 상서면, 하서면, 줄포면, 위도면, 백산면, 행안면
2개소		2개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14개 시군 읍면동별 분포도를 보면, 3개소 이상의 제공기관이 있는 지역은 김제, 완주, 진안, 문주, 순창의 1개 읍, 동지역에만 제공기관이 충분히 설치되어있고, 1~2개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전주 동서학동을 비롯한 33개 읍면동 지역이다. 한편 고창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1개소로, 장애인비율이 고창보다 낮은 완주의 5개소에 비해 제공기관이 적어 이들 지역은 관련 제공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

〈표 III-21〉 14개 시군별 장애아동재활치료 제공기관 분포

지역 (장애인비율)	총분 (3개 이상)	부족 (1개~2개)	매우부족 (없음)
전주(5.2)		풍남동, 노송동, 중화산2동, 서신동, 평화1동, 효자3동, 진북동, 덕진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중앙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평화2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4동, 인후1동, 인후2동, 인후3동, 금암1동, 금암2동, 팔복동, 우아1동, 송천2동, 조촌동, 동산동
12개소		12개소	
군산(6.3)	수송동 나운1동	신평동, 삼학동, 미성동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도면, 옥서면, 해신동, 월명동, 중앙동, 흥남동,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 나운2동, 나운3동, 소룡동
13개소	10개소	3개소	
익산(7.7)	어양동	인화동, 동산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영등1동, 영등2동, 신동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응포면, 성당면, 용안면, 남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용동면, 중앙동, 평화동, 마동, 팔봉동, 삼성동
9개소	4개소	5개소	
정읍(8.7)		수성동, 연지동	신태인읍, 북면, 입암면, 소성면, 고부면, 영월면, 덕천면, 이평면, 정우면, 태인면, 웅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장명동, 내장상동, 시기동, 초산동, 농소동, 상교동
4개소		4개소	
남원(9.1)		이백면, 동충동, 도통동	운봉읍, 주천면, 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 대강면, 대산면,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 산동면, 아영면, 산내면, 인월면, 죽항동, 노암동, 금동, 왕정동, 향교동
4개소		4개소	
김제(10.8)	요촌동	신평동	만경읍, 죽산면, 응지면, 백구면, 부량면, 공덕면, 청하면, 성덕면, 진봉면, 금구면, 동남면, 황산면, 금산면, 광활면, 검산동, 교혈동
4개소	3개소	1개소	
완주(8.7)		봉동읍, 삼례읍	용진면, 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
3개소		3개소	
진안(10.3)		진안읍	용담면, 안천면, 동향면, 상전면, 백운면, 부귀면, 정천면, 주천면, 성수면, 마령면
1개소		1개소	
무주(9.8)			무주읍,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0개소			
장수(10.6)			장수읍, 번암면, 계남면, 계북면, 천천면, 산서면, 장계면
0개소			
임실(10.8)		임실읍	청응면, 운암면, 성수면, 신덕면, 삼계면, 강진면, 덕치면, 지사면, 오수면, 관촌면, 신평면
1개소		1개소	
순창(10.0)	순창읍		인계면, 동계면, 금과면, 팔덕면, 적성면, 유등면, 구림면, 풍산면, 복흥면, 쌍치면
3개소	3개소		
고창(9.6)		고창읍	고수면, 아산면,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성송면, 대산면, 심원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
2개소		2개소	
부안(9.4)		부안읍	주산면, 동진면, 계화면, 보안면, 변산면, 상서면, 하서면, 줄포면, 위도면, 백산면, 행안면, 진서면
1개소		1개소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의 14개 시군 읍면동별 분포도를 보면, 3개소 이상의 제공기관이 있는 지역은 군산의 수송동, 나운1동을 비롯해, 익산, 김제 순창 등 총 5개 읍면동 지역이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충분치 설치되어 있고, 1~2개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전주 풍남동을 비롯한 34개 읍면동 지역이다. 한편 장애인 비율이 9.8%인 무주와 10.6%인 장수에는 관련제공기관이 하나도 설치되어있지 않아 향후 제공기관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22〉 14개 시군별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 분포

지역 (여성비율)	부족 (1개~2개)	매우부족 (없음)
전주 (30.2)	중앙동, 노송동, 서신동 효자2동, 진북동, 인후1동, 인후2동	풍남동, 원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평화2동, 평화1동, 평화2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3동, 효자4동, 인후3동,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팔복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동산동
8개소	8개소	
군산 (27.7)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상면, 나포면, 옥도면, 옥서면, 해신동, 월명동, 신평동, 삼학동, 중앙동, 흥남동,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나운1동, 나운2동, 나운3동, 소룡동, 미성동
0개소		
익산 (26.8)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응포면, 성당면, 용안면,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용동면,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동산동, 마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영등1동, 영등2동, 어양동, 신동, 팔봉동, 삼성동
0개소		
정읍 (22.2)		신태인읍, 북면, 입암면, 소성면, 고부면, 영원면, 덕천면, 이평면, 정우면, 태인면, 웅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수성동, 장명동, 내장상동, 시기동, 초산동, 연지동, 농소동, 상교동
0개소		
남원 (22.2)	죽향동	운봉읍, 주천면, 수지면, 송등면, 주생면, 금지면, 대강면, 대산면,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 산동면, 이백면, 아영면, 산내면, 인월면, 동충동, 노암동, 금동, 왕정동, 향교동, 도동동
1개소	1개소	
김제 (19.8)		만경읍, 죽산면, 용지면, 백구면, 부량면, 공덕면, 청하면, 성덕면, 진봉면, 금구면,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광활면, 요촌동, 신평동, 검산동, 교월동
0개소		
완주 (24.3)		삼례읍, 봉동읍, 용진면, 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
0개소		
진안(18.8)		진안읍, 용담면, 안천면, 동향면, 상전면, 백운면, 부귀면, 정천면, 주천면, 성수면, 마령면
0개소		
무주(18.6)		무주읍,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0개소		
장수(18.0)		장수읍, 번암면, 계남면, 계북면, 천천면, 산서면, 장계면
0개소		
임실(17.0)		임실읍, 청용면, 운암면, 성수면, 신덕면, 삼계면, 강진면, 덕치면, 지사면, 오수면, 관촌면, 신평면
0개소		
순창(19.1)		순창읍, 인계면, 동계면, 금과면, 팔덕면, 적성면, 유등면, 구림면, 풍산면, 복흥면, 쌍치면
0개소		
고창(17.8)		고창읍, 고수면, 아산면,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성송면, 대산면, 심원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
0개소		
부안(18.9)		부안읍, 주산면, 동진면, 계화면, 보안면, 변산면, 상서면, 하서면, 줄포면, 위도면, 백산면, 행안면, 진서면
0개소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의 14개 시군 읍면동별 분포도를 보면, 전주와 남원에만 관련 제공기관이 설치되어있고, 그 외 지역에는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

3개소 이상의 제공기관이 있는 지역은 전주와 남원 모두 없었고, 1~2개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남원의 죽향동, 전주 중앙동을 비롯한 8개 읍면동 지역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제공기관의 14개 시군 읍면동별 분포도를 보면, 3개소 이상의 제공기관이 있는 지역은 전주의 풍남동을 비롯해 군산, 익산, 정읍 등 총 10개 시군에 14개 읍면동 지역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이 충분치 설치되어 있고, 1~2개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전주 중앙동을 비롯해 12개 시군에 49개 읍면동 지역이다. 한편 진안, 고창, 부안은 읍 권역에만 제공기관이 설치되어있어 면 권역의 지역사회서비스의 수요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였다.

〈표 III-23〉 14개 시군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분포

지역 (수급비율)	충분 (3개 이상)	부족 (1개~2개)	매우부족 (없음)
전주(2.5)	풍남동	중앙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삼천1동, 효자2동, 효자4동, 진북동, 인후3동, 덕진동, 금암1동	서서학동, 서신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3동, 인후1동, 인후2동, 금암2동, 팔복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동산동
24개소	3개소	21개소	
군산(4.3)	조촌동, 수송동, 나운1동	월명동, 신흥동, 삼학동, 흥남동, 나운2동, 나운3동, 미성동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도면, 옥서면, 해신동, 중앙동,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 소룡동
21개소	13개소	8개소	
익산(4.1)	영등2동, 신흥동	중앙동, 인화동, 동산동, 모현동, 송학동, 어양동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웅포면, 상당면, 용안면,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용동면, 평화동, 마동, 남중동, 영등1동, 팔봉동, 삼성동
18개소	9개소	9개소	
정읍(7.3)	수성동	내장상동, 시기동, 연지동	신태인읍, 북면, 입암면, 소성면, 고부면, 영원면, 덕천면, 이평면, 정우면, 태인면, 웅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장명동, 초산동, 농소동, 상교동
10개소	5개소	5개소	
남원(6.9)		이백면, 동충동, 향교동, 도룡동	운봉읍, 주천면, 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 대강면, 대산면,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 산동면, 아영면, 산내면, 인월면, 노암동, 금동, 왕정동
6개소		6개소	
김제(9.1)	요촌동, 검산동	금구면, 신흥동, 교월동	만경읍, 죽산면, 용지면, 백구면, 부랑면, 공덕면, 청하면, 성덕면, 진봉면,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광활면
10개소	6개소	4개소	
완주(4.7)	봉동읍	삼례읍, 상관면	용진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
6개소	3개소	3개소	
진안(5.4)	진안읍		웅담면, 안천면, 동향면, 상전면, 백운면, 부귀면, 정천면, 주천면, 성수면, 마령면
3개소	3개소		
무주(5.1)		무주읍, 설천면, 안성면	무풍면, 적상면, 부남면
3개소		3개소	
장수(5.9)	장수읍	천천면	번암면, 계남면, 계북면, 산서면, 장계면
5개소	4개소	1개소	
임실(6.1)		임실읍, 신평면, 강진면	청웅면, 운암면, 성수면, 신덕면, 삼계면, 덕치면, 지사면, 오수면, 관촌면
4개소		4개소	
순창(5.0)	순창읍	복창면	인계면, 동계면, 금과면, 팔덕면, 적성면, 유등면, 구림면, 풍산면, 쌍치면
5개소	4개소	1개소	
고창(5.1)	고창읍		고수면, 아산면,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성송면, 대산면, 심원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
5개소	5개소		
부안(5.5)		부안읍	주산면, 동진면, 계화면, 보안면, 변산면, 상서면, 하서면, 줄포면, 위도면, 백산면, 행안면, 진서면
1개소		1개소	

#### 4.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이용자 현황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이용자는 가사간병은 감소하고, 노인돌봄서비스와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지역사회서비스는 증가하였다. 가사간병서비스는 2008년 2,210명에서 2011년 804명으로 감소하였다.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이용자 추이는 2011년 기준 약 35천명이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용자가 약 25천명,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약 3천명 이었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등 바우처사업의 대부분이 해마다 이용자 수 가 증가하였으나, 가사간병서비스의 경우 2009년 이후 이용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2011년 이용자 수가 804명으로 전년대비 약 68%가 감소하였다.

〈표Ⅲ-24〉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연도별 추이

바우처사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가사간병		2,210	3,625	2,502	804	
노인돌봄	1,330	1,900	1,512	3,196	3,038	
산모신생아도우미		1,645	1,997	4,901	2,351	
장애인활동지원	634	1,047	1,308	1,286	1,405	1,563
장애아동재활치료			984	1,588	1,959	2,172
지역사회서비스	18,440	26,142	23,827	24,112	25,867	21,098
합계	20,404	32,944	33,253	37,585	35,424	24,833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제공기관 수는 2011년 기준으로 총 364개소이고, 바우처 서비스 중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의 제공기관 수가 101개소 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역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제공기관 수 가 90개소였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수는 전체적으로 해마다 약 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Ⅲ-25〉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연도별 추이

바우처사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사간병		38	40	24	23		
노인돌봄	33	43	45	73	78		
산모신생아도우미		8	8	5	6		
장애인활동지원	25	41	48	55	66	85	
장애아동재활치료			45	69	101	110	
지역사회서비스	53	71	66	75	90	98	
합계	111	201	252	301	364	293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별 제공인력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제공인력 자료만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12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제공인력은 1,201명이고, 제공인력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4개 시군별 바우처 제공기관의 수는 총 429개소가 있고, 그 중 전주가 90개소, 군산 54개소, 익산 52개소 등으로 전주, 군산, 익산 지역에만 전체제공기관의 약 45%가 위치해 있어, 도시지역에 제공기관이 집중적으로 형성이 되어있어, 완주를 비롯한 농촌 지역에 제공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한편,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의 경우 전주와 남원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제공기관이 없어, 지역별 수요에 맞는 제공기관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Ⅲ-26〉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14개 시군별 제공기관 수

바우처사업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합계
가사간병	5	3	3	2	2	2	1	1	1	1	1	1	1	1	25
노인돌봄	17	5	6	8	12	8	10	6	2	2	4	10	4	3	97
산모신생아도우미	8	0	0	0	1	0	0	0	0	0	0	0	0	0	9
장애인활동지원	7	3	5	4	3	4	4	3	2	2	2	2	1	2	44
장애아동재활치료	21	15	15	5	5	5	14	1	3	0	4	2	2	2	94
지역사회서비스	32	28	23	14	13	13	6	4	4	7	4	5	3	4	160
합계	90	54	52	33	36	32	35	15	12	12	15	20	11	12	429

14개 시군별 바우처 제공인력의 수는 총 4,548명이고, 제공인력의 수가 많은 지역은 전주가 1,846명, 군산 457명, 익산 407명 등 이다. 바우처사업별로는 장애인활동지원의 제공인력이 1,87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인돌봄서비스가 1,321명이다. 제공인력도 제공기관이 많이 설치되어있는 전주, 군산, 익산 등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14개 시군별 사회서비스바우처의 이용인원 수는 전체적으로 약 1,383천명 이고, 이용인원 수가 많은 지역은 전주가 약 236천명, 군산 약 231천명 등 이다. 바우처사업별로는 지역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용인원이 약 1,363천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아동재활치료는 약 10천명이 이용하고 있다. 한편,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의 경우 제공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전주와 남원에서만 이용인원이 있었고, 전주의 경우 산모신생아도우미 이용인원의 약 96%인 2,156명이 이용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6대 바우처 이용인원은 인구가 가장 많은 전주지역이 가장 많고, 이외에는 군산과 익산 정읍 등의 순으로 이용자 분포되어 있다.



〈표 III-27〉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14개 시군별 제공인력 수

바우처사업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합계
가시간병	96	84	61	26	18	29	46	10	9	18	11	9	19	6	442
노인돌봄	298	106	104	132	110	128	139	55	21	34	50	79	37	28	1,321
산모신생아도우미	401	0	0	0	17	0	0	0	0	0	0	0	0	0	418
장애인활동지원	895	204	176	87	86	58	91	45	19	34	35	66	50	32	1,878
장애아동재활치료	112	20	27	6	5	5	21	1	8	0	5	3	3	2	218
지역사회서비스	44	43	39	21	17	27	9	6	15	21	8	9	4	8	271
합계	1,846	457	407	272	253	247	306	117	72	107	109	166	113	76	4,548

〈표 III-28〉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14개 시군별 이용인원 수

바우처사업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합계
가시간병	326	183	155	99	89	93	80	31	16	39	17	20	61	33	1,242
노인돌봄	805	387	251	721	333	335	354	151	71	105	154	199	171	102	4,139
산모신생아도우미	2,156	0	0	0	88	0	0	0	0	0	0	0	0	0	2,244
장애인활동지원	989	256	240	127	121	106	105	44	24	46	43	75	71	58	2,305
장애아동재활치료	2,061	1,254	1,390	938	945	915	1,674	9	290	0	316	83	260	39	10,174
지역사회서비스	230,461	229,833	175,978	174,471	175,970	197,602	1,661	347	115,954	1,182	183	453	272	58,852	1,363,219
합계	236,798	231,913	178,014	176,356	177,546	199,051	3,874	582	116,355	1372	713	830	835	59,084	1,383,323

주. 지역사회서비스의 이용인원은 바우처결재에 따른 통계치임

한편,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 중에 다른 사업과는 달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업 대상과 내용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에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전라북도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연령대별로 사업현황을 분류해 보면, 전체 약 26개 사업 중 전라북도의 아동대상 복지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등이 있고, 청소년 대상 복지사업으로는 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 아동저발달지원서비스 등이 있다. 다음으로 노인대상 지역사회서비스로는 실버미디어 서비스, 행복한 노후생활지원서비스, 노인 운동처방서비스 등이 있다.

〈표 III-29〉 연령별 사회서비스사업 분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55	60	65이상	
					</																					

〈표 III-30〉 사회서비스사업 대분류별 사업

시군	종합	돌봄	상담·재활	건강지원	교육 및 역량개발	문화·체육관련시설이용
전주	· 정신건강토달케어 · 가족역량강화A	· 암환자영양관리	· 아/청소년심리지원	· 장애인렌탈보조 · 건강두드림	· 영유아발달지원 · 글로벌마인드 · 아/청소년 비전형성	· 아동정서발달지원
군산	· 정신건강토달케어 · 장애인비전형성	· 암환자영양관리	· 아/청소년심리지원	· 장애인렌탈보조 · 건강두드림	· 영유아발달지원 · 글로벌마인드 · 아/청소년 비전형성	· 아동정서발달지원 · 노인정서지원
익산	· 정신건강토달케어 · 마음건강서비스	· 암환자영양관리	· 아/청소년심리지원	· 장애인렌탈보조 · 건강두드림 · 노인운동처방	· 영유아발달지원 · 청소년 비전형성	· 아동정서발달지원
정읍		· 암환자영양관리	· 아/청소년심리지원 · 청소년재활승마	· 장애인렌탈보조 · 노인운동처방	· 영유아발달지원 · 실버미디어프로 · 글로벌마인드 · 아/청소년 비전형성	· 아동정서발달지원
남원		· 암환자영양관리	· 아/청소년심리지원	· 장애인렌탈보조 · 건강두드림	· 영유아발달지원 · 글로벌마인드 · 아/청소년 비전형성	· 아동정서발달지원 · 해피실버아트케어
김제	· 정신건강토달케어	· 암환자영양관리	· 아/청소년심리지원 · 청소년재활승마	· 장애인렌탈보조 · 노인운동처방	· 영유아발달지원 · 아/청소년 비전형성 · 글로벌마인드	· 아동정서발달지원
완주	· 행복한노후생활 · 마음건강서비스	· 암환자영양관리		· 장애인렌탈보조 · 노인운동처방	· 영유아발달지원 · 글로벌마인드 · 청소년발달지원	· 아동정서발달지원
진안	· 정신건강토달케어 · 노인마음건강서비스 · 가족역량강화B	· 암환자영양관리	· 아/청소년심리지원	· 장애인렌탈보조 · 노인운동처방	· 영유아발달지원 · 글로벌마인드	
무주	· 정신건강토달케어 · 노인마음건강서비스	· 암환자영양관리		· 장애인렌탈보조	· 영유아발달지원 · 아/청소년 비전형성	· 아동정서발달지원
장수	· 정신건강토달케어 · 노인마음건강서비스	· 암환자영양관리		· 장애인렌탈보조	· 영유아발달지원 · 글로벌마인드 · 아/청소년 비전형성	· 아동정서발달지원
임실	· 정신건강토달케어	· 암환자영양관리		· 장애인렌탈보조	· 영유아발달지원 · 아/청소년 비전형성	· 아동정서발달지원
순창	· 농촌마을만들기	· 암환자영양관리		· 장애인렌탈보조	· 영유아발달지원 · 아/청소년 비전형성	· 아동정서발달지원
고창		· 암환자영양관리		· 장애인렌탈보조 · 노인운동처방	· 영유아발달지원 · 아/청소년 비전형성	· 아동정서발달지원
부안		· 암환자영양관리		· 장애인렌탈보조 · 노인운동처방	· 영유아발달지원 · 글로벌마인드 · 아/청소년 비전형성	· 아동정서발달지원
합계	18	14	9	25	51	15

지역사회서비스를 사업목적별로 분류해 보면, 주로 종합적 사회서비스와 돌봄서비스, 상담 및 재활서비스, 건강지원서비스, 교육 및 역량강화 개발, 문화체육 관련 서비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체로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등 자원이 풍부한 전주시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을 제공하고 있지만, 부안이나 순창 등의 농촌지역은 상담재활서비스나 종합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도개발사업인 암환자 영양관리사업 등은 모든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는 총 12개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고, 암환자 영양 관리사업으로 대표되는 돌봄서비스는 14개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다. 아동심리재활서비스는 7개 지역에서 관련 사업이 제공되고 있고 상담지원, 교육역량개발 등의 서비스는 모든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주된 수혜대상별 사업내용을 분류해 보면, 대체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정신장애인, 장애인, 장애아동, 노인, 저소득 가정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경우 다문화, 조손가정, 장애아동, 저소득가정이 이용가능하다. 다음으로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는 저소득가정을 주된 수혜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장애인, 장애아동, 저소득가정 및 일반 장애인이 모두 이용가능하고, 암환자 맞춤형 영양관리는 저소득 가정을 주된 수혜자로 선정하고 있다.

〈표Ⅲ-31〉 가구특성별 분류

구분	다문화	조손 가정	한부모	맞벌이 가정	정신 장애인	장애인	장애 아동	독거 노인	노인	저소득 가정
아동인지능력향상										
영유아발달지원										
장애인보조기기렌탈										
암환자 맞춤형영양관리										
글로벌마인드형성										
아동정서발달지원										
아동청소년비전형성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정신건강토달케어										
가족역량강화										
아이천사건강두드림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마음건강										
청소년재활승마										
노인마음건강										
장애인비전형성										
노인정서지원										
청소년비전형성지원										
실버미디어										
해피실버아트케어										
청소년통합발달지원										
행복한노후생활지원										
농촌마을만들기										

〈표 III-32〉 정부지원금별 분류

구분	정부지원금액 및 등급표시 (단위: 천원)																
	15	20	25	55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80	200	300	400	500	600
아동인지능력향상	2	1															
영유아발달지원										2	1						
장애인보조기기렌탈													3		2	1	
암환자 맞춤형영양관리																	
글로벌마인드형성									2		1						
아동정서발달지원										2	1						
아동청소년비전형성					2		1										
아동청소년심리지원(시정형)					3		2		1								
아동청소년심리지원					3		2		1								
정신건강토달케어																	
가족역량강화																	
아이천사건강두드림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B	A											
마음건강																	
청소년재활승마																	
노인마음건강																	
장애인비전형성																	
노인정서지원																	
청소년비전형성지원																	
실버미디어																	
해피실버아트케어																	
청소년통합발달지원																	
행복한노후생활지원																	
농촌마을만들기																	

한편,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정부지원금을 분석해 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경우 최소 2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는 최대 16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렌탈보조서비스는 최대 50만원까지 정부가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고, 모든 시군이 제공하고 있는 암환자 맞춤형 영양관리사업은 최대 1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문화 여성을 교사로 활용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마인드 형성서비스는 최대 15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노인대상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 노인정서지원서비스는 매달 13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행복한 노후생활지원서비스는 최대 13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별로 정부지원금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수요분석에 따른 사업개발과정에서 이 같은 차별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표 III-33〉 본인부담금별 분류

구분	본인부담금액 및 등급표시 (단위: 천원)													
	5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20	180	
아동인지능력향상														
영유아발달지원			1		2									
장애인보조기기렌탈							1					2	3	
암환자 맞춤형영양관리		1												
글로벌마인드형성		1			2									
아동정서발달지원			1		2									
아동청소년비전형성		1		2										
아동청소년심리지원(시장형)														
아동청소년심리지원			1		2		3							
정신건강토탈케어	1													
가족역량강화	1													
아이천사건강두드림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B	A											
마음건강			1											
청소년재활숨마			1		2									
노인마음건강			1											
장애인비전형성		1												
노인정서지원			1											
청소년비전형성지원		1		2										
실버미디어			1											
해피실버아트케어		1												
청소년통합발달지원			1		2									
행복한노후생활지원			1											
농촌마을만들기		1												

다음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각 사업별 본인부담금을 분석해 보면,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의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4만원이고, 장애인보조기 렌탈서비스의 경우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18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책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8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책정되어 있고, 본인부담금이 가장 적은 사업은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와 가족역량강화서비스이고 본인부담금이 가장 높은 사업은 장애인 대상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인력규모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별 수혜인력대비 제공인력 수를 분석해 보면,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의 경우 수혜자 5명당 제공인력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암환자 맞춤형 영양관리사업은 상담서비스의 경우 수혜자 한명당 제공인력 1명이고 교육서비스의 경우 수혜자 10명당 제공인력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혜자 대비

제공인력이 가장 적은 사업은 수혜자 30명당 제공인력이 1명인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이다.

〈표 III-34〉 사회서비스사업 집단규모

	1인	1:1	1:5 (이하)	1:6	1:10	1:12(이하)	1:15 (이하)	1:16	1:30 (이하)
영유아발달지원			전 시군						
장애인보조기기렌탈	전 시군								
암환자 맞춤형영양관리		[상담] 전 시군			[교육] 전 시군				
글로벌마인드형성		[A형] 군산/김제/남원/ 무안/완주/장수/ 전주/정읍/진안				[B형] 군산/김제/남원/ 무안/완주/장수/ 전주/정읍/진안			
아동정서발달지원		[실기] 고창/군산/김제/ 남원/무주/순창/ 완주/익산/임실/ 장수/전주/정읍/ 부안		[정서순화] 고창/군산/김제/ 남원/무주/순창/ 완주/익산/임실/ 장수/전주/정읍/ 부안					
아동청소년비전형성						군산/김제/남원/ 무주/부안/순창/ 임실/정읍/전주/ 장수/고창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시장형)	전주/군산/ 익산								
아동청소년심리지원		김제/남원/ 정읍/진안							
정신건강토탈케어		전주/군산/김제 익산/임실							
광역정신건강 토탈케어		무주/진안/장수							
가족역량강화A		[가족사례] 전주						[가족] 전주	
가족역량강화B		[재가] 진안						[집단] 진안	
아이천사건강두드림		전주/군산/ 익산/남원							익산/정읍/ 김제/완 주/진안/ 고창/부안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익산/정읍/ 김제/완 주/진안/ 고창/부안
쓰담쓰담 마음건강 청소년재활승마		익산/완주					정읍/김제		
노인마음건강	무주/진안/ 장수								
장애인비전형성		[개인] 군산				[집단] 군산			
노인정서지원		[사례관리] 군산				[서비스] 군산			
청소년비전형성지원						익산			
실버미디어							정읍		
해피실버아트케어							남원		
청소년통합발달지원		완주							
행복한노후생활지원						완주			
농촌마을만들기							순창		

## 제 4장

# 사회서비스 바우처와 일자리 정책의 연계

1.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욕구 및 일자리 수요 분석
2.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수요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인력 수요
4.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인력 분석결과





## 제 4 장 사회서비스 바우처와 일자리 정책의 연계

### 1.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욕구 및 일자리 수요 분석

#### 1)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욕구 및 일자리 수요조사 방법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요조사는 6대 바우처의 연령과 소득기준에 기초하여 모집단 인구를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의 이용의향 및 비용지불의향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일반가구 전체를 모집단으로 수요 추정,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일반가구 중 주된 수요계층인 50세 미만 가구 중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하였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는 만 18세 이하 장애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이외에도 노인돌봄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은 65세 이상 노인과 6세 이상 64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다만, 본 조사에서 표본수의 한계로 인해 인력수요 추정이 어려운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서비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관련서비스의 수요와 인력수요를 추정하였다.

한편, 수요추정시에는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와 관련하여 수요조사 결과 이용의사가 있는 대상자의 비율로 추정하였고, 표적수요는 비용지불의사가 있는 적극적 수요층의 비율로 추정하였다. 바우처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련 서비스의 이용과 함께 일정한 본인부담금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 구매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수요추정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표Ⅳ-1〉 사회서비스바우처 인력수요 추정 기준

	모집단	모집단 규모	최대수요	최소수요
가사간병 도우미	일반가구	1,873,341명 가구응답	소득기준 적용 이용의향을 기준	소득기준적용 비용지불 의사 기준
산모신생아 도우미	일반가구 중 50세 미만 여성 가구	신생아 16,175 부모 응답		
장애아동재활치료	만 18세 장애아동	3935명 장애부모 응답		
지역사회서비스	일반가구	1,873,341명 가구응답		
노인돌봄서비스	65세 이상 노인	303,585명 노인응답		
장애인활동지원	6세 이상 64세 미만 장애인	71,474명 장애인 응답		

## 2)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요조사 분석결과

### ① 사회서비스 바우처 일반적 수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에 대한 인지율은 55.3%였다.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높았고, 연령대에서는 고령층보다는 40대 미만의 중장년층에서 인지율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도시보다는 농촌이 다소 인지율이 높았다.

〈표Ⅳ-2〉 바우처 인지여부

		알고있다	모른다	N
성별	남자	46.9	53.1	769
	여자	64.2	35.8	731
연령	40세 미만	60.6	39.4	662
	40~49세	66.7	33.3	231
	50~59세	57.6	42.4	264
	60~69세	43.4	56.6	175
	70세 이상	28.0	72.0	168
도시 농촌	도시	52.7	47.3	970
	농촌	60.3	39.7	529
평균 소득	100% 이하	53.9	46.1	1214
	100% 이상	59.8	40.2	239
전체		55.3	44.7	1500

다음으로 사회서비스바우처의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지불의사가 있는 사업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가 3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체육 및 건강서비스 18.9%, 교육서비스 13.3%, 직업훈련서비스 8.4%, 교양여가문화서비스 8.2% 등의 순이었다.

〈표Ⅳ-3〉 비용지불을 하며 받고 싶은 서비스 1순위

구분		보건 의료	체육건강 증진	교육	상담정신 건강	직업 훈련	교양문화 여가	가사 간병	기타
성별	남자	40.3	23.1	14.0	2.0	8.2	5.7	3.2	3.7
	여자	34.6	14.4	12.5	4.2	8.6	11.0	12.9	1.8
연령	40세 미만	31.0	18.4	18.9	3.0	9.7	9.7	7.6	1.6
	40~49세	22.4	23.8	22.4	4.5	9.0	12.6	4.0	1.3
	50~59세	44.8	21.2	5.4	3.9	10.4	6.6	3.9	3.9
	60~69세	48.2	22.9	3.0	1.8	6.0	4.8	9.6	3.6
	70세 이상	61.4	7.2	.6	1.8	1.2	3.0	18.1	6.6
도시 농촌	도시	38.8	18.8	10.9	1.9	9.4	8.6	9.4	2.3
	농촌	35.3	19.1	17.3	5.4	6.6	7.5	5.2	3.7
빈곤 여부	빈곤	51.4	8.4	6.3	4.5	6.0	5.5	10.5	7.3
평균 소득	비빈곤	32.3	23.0	15.4	2.4	9.3	9.4	7.1	1.1
	100 이하	40.3	16.7	11.3	3.1	10.0	7.1	8.3	3.1
소득	100 이상	21.9	31.3	21.9	2.1	.9	14.6	6.4	.9
	전체	37.5	18.9	13.3	3.0	8.4	8.2	7.9	2.8

〈표Ⅳ-4〉 비용지불을 하며 받고 싶은 서비스 2순위

구분		보건 의료	체육건강 증진	교육	삼담정신 건강	직업 훈련	교양문화 여가	가사 간병	기타
성별	남자	13.2	25.7	6.0	7.4	5.8	35.3	6.3	.4
	여자	12.8	18.1	12.7	8.1	9.1	24.6	11.6	2.9
연령	40세 미만	10.0	20.8	11.1	8.9	6.4	36.3	4.4	2.0
	40~49세	8.1	25.2	16.7	2.4	13.3	31.0	2.9	.5
	50~59세	11.9	23.0	7.0	9.9	8.2	31.7	6.6	1.6
	60~69세	20.6	23.8	2.5	6.9	6.3	21.3	17.5	1.3
	70세 이상	26.1	19.0	1.3	7.8	2.6	10.5	30.7	2.0
도시 농촌	도시	9.7	21.8	7.7	5.5	8.1	35.2	9.8	2.2
	농촌	19.3	22.4	12.0	12.0	5.9	20.5	7.3	.6
빈곤 여부	빈곤	16.5	20.8	10.5	9.7	8.0	11.7	21.1	1.7
평균 소득	비빈곤	11.9	22.2	9.0	7.2	7.3	36.1	4.6	1.7
	100 이하	13.5	22.7	10.5	7.7	7.3	26.7	10.7	.9
100 이상	11.0	17.5	3.5	8.3	8.3	45.6	.0	5.7	
	전체	13.0	22.0	9.2	7.7	7.4	30.1	8.9	1.6

비용지불의사가 있는 서비스 2순위에서는 교양여가문화서비스가 3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체육건강 증진 22.0%, 보건의료 13.0%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미만의 청년층에서는 교양여가문화가 높은 시장성을 보인 반면,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체육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 ② 초등학교 대상 사회서비스 수요

초등학교 대상 사회서비스 수요를 유망 사회서비스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정규교과 방문학습지도 이용경험이 있는 초등학교생은 34.7%였고, 외국어 교육은 39.8%, 놀이치료와 음악치료는 9.0%, 예술교육은 37.3%, 체육교실은 46.6%였다.

〈표Ⅳ-5〉 초등학교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1

구분		정규교과 방문학습지도		외국어 교육		놀이치료 음악치료 등 정서발달서비스		예술교육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		체육교실 (태권도, 유도)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성별	남자	65.7	34.3	66.1	33.9	87.1	12.9	71.7	28.3	49.5	50.5
	여자	67.5	32.5	55.1	44.9	96.2	3.8	54.8	45.2	60.8	39.2
지역	도시	66.8	33.2	61.1	38.9	93.8	6.2	67.7	32.3	55.3	44.7
	농촌	66.4	33.6	61.0	39.0	85.6	14.4	55.8	44.2	54.0	46.0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65.3	34.7	59.7	40.3	90.7	9.3	62.4	37.6	52.8	47.2
	평균소득 100% 이상	66.7	33.3	77.8	22.2	100.0		75.0	25.0	75.0	25.0
전체		65.3	34.7	60.2	39.8	91.0	9.0	62.7	37.3	53.4	46.6

〈표Ⅳ-6〉 초등학교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2

구분		학업문제관련 상담서비스		자녀 진로지도 서비스		체험학습 프로그램		게임중독 상담서비스		자녀 방과후 돌봄서비스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성별	남자	91.7	8.3	91.2	8.8	80.1	19.9	92.8	7.2	86.2	13.8
	여자	98.7	1.3	96.8	3.2	34.0	66.0	100.0		67.7	32.3
지역	도시	94.2	5.8	92.9	7.1	60.6	39.4	94.2	5.8	83.6	16.4
	농촌	96.4	3.6	95.6	4.4	55.0	45.0	100.0		66.1	33.9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95.0	5.0	94.4	5.6	57.6	42.4	95.9	4.1	76.9	23.1
	평균소득 100% 이상	77.8	22.2	87.5	12.5	75.0	25.0	100.0		87.5	12.5
전체		94.5	5.5	94.2	5.8	58.0	42.0	96.0	4.0	77.1	22.9

이외에도 학업문제 관련 상담서비스의 이용경험은 5.5%, 자녀 진로지도서비스는 5.8%,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42.0%, 게임중독서비스는 4.0%, 자녀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22.9%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대상 사회서비스는 정규교과를 중심으로 한 교과목중심의 서비스와 예술치료 그리고 체험학습,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이용율이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높았다.

다음으로 각각의 서비스 형태별 필요성 정도에서는 정규교과 방문학습지도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89.7%였고,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8.2%가 동의하였다. 놀이치료와 음악치료 등의 재활이나 치료서비스는 70%정도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고, 예술 교육서비스와 체육교실 등은 약 85%이상이 필요성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표Ⅳ-7〉 성별 초등학교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필요성 정도에 대한 인식 1

구분		정규교과 방문학습지도				외국어 교육				놀이치료 음악치료 등 정서발달서비스				예술교육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				체육교실 (태권도, 유도)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성별	남자	8.0	1.1	51.9	39.0	.5	2.7	32.3	64.5	8.2	21.2	41.8	28.8	1.1	19.1	45.7	34.0	7.5	27.8	36.4	28.3
	여자	0.0	14.2	44.5	41.3		3.2	23.1	73.7	3.9	29.7	36.1	30.3	10.3	3.9	35.5	50.3	1.3	3.9	68.4	26.5
지역	도시	5.8	8.0	55.8	30.5		.0	32.3	67.7	6.7	28.2	41.6	23.4	.0	.4	83.0	16.5	.0	13.7	46.5	39.8
	농촌	1.7	6.0	34.5	57.8	.9	8.6	19.8	70.7	5.1	19.7	34.2	41.0	.9	18.1	31.9	49.1	14.5	9.4	30.8	45.3
소득	평균소득 100%이하	4.3	6.2	49.2	40.3	.3	1.5	28.1	70.1	6.7	24.5	37.9	30.9	.6	5.2	67.3	26.9	5.2	11.4	39.7	43.7
	평균소득 100%이상			75.0	25.0			12.5	87.5		12.5	87.5			12.5	87.5				100.0	
전체		4.2	6.0	49.8	39.9	.3	1.5	27.7	70.5	6.5	24.2	39.1	30.1	.6	5.1	66.0	28.3	5.1	11.1	41.1	42.6

〈표Ⅳ-8〉 성별 초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필요성 정도에 대한 인식 2

구분	학업문제관련 상담서비스				자녀 진로지도 서비스				체험학습 프로그램				게임중독 상담서비스				자녀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성별	남자	1.6	28.9	32.1	37.4	1.1	12.8	57.2	28.9	8.1	38.9	29.2	23.8	14.5	27.4	33.3	24.7	5.8	8.0	55.8	30.5
	여자	0.0	5.2	72.7	22.1	.6	1.3	29.2	68.8	.6	51.3	34.6	13.5	.6	13.5	33.3	52.6	1.7	6.0	34.5	57.8
지역	도시	5.8	20.8	58.4	15.0	.0	22.2	61.3	16.4	.0	8.9	50.2	40.9	5.8	51.3	34.8	8.0	11.5	26.5	39.4	22.6
	농촌	2.6	9.5	36.2	51.7	2.6	10.3	29.3	57.8	2.6	5.2	33.6	58.6	2.6	31.6	25.6	40.2	2.6	10.3	21.4	65.8
소득	평균소득 100%이하	4.9	16.3	50.0	28.8	.9	16.3	50.8	32.0	.9	7.1	42.8	49.2	5.0	43.7	31.6	19.8	8.6	20.4	32.1	38.9
	평균소득 100%이상	0.0	12.5	87.5			12.5	87.5	0.0			100.0	0.0		25.0	62.5	12.5		11.1	66.7	22.2
전체		4.8	16.2	50.9	28.1	.9	16.2	51.7	31.2	.9	6.9	44.1	48.0	4.8	43.2	32.3	19.6	8.4	20.1	33.0	38.4

다음으로 학업문제 관련 상담서비스는 79.0%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고, 자녀진로지도서비스는 82.9%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체험학습프로그램은 92.1%, 게임중독서비스는 51.9%, 그리고 자녀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71.4%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초등학생 관련 사회서비스의 이용지불의사에서는 정규교과 학습지도 서비스의 경우 58.8%가 비용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어 교육은 54.3%, 놀이치료와 음악치료는 30%, 예술교육은 67.4% 그리고 체육교실은 55.2%가 비용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초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의 시장성은 예술이나 예체능교육 그리고 학교 교과목중심의 학습지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시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9〉 초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1

구분		정규교과 방문학습지도		외국어 교육		놀이치료 음악치료 등 정서발달서비스		예술교육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		체육교실 (태권도, 유도)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성별	남자	46.3	53.7	52.5	47.5	81.3	18.8	46.9	53.1	46.3	53.7
	여자	39.5	60.5	40.1	59.9	58.6	41.4	19.7	80.3	45.9	54.1
지역	도시	42.7	57.3	48.4	51.6	73.3	26.7	31.6	68.4	43.6	56.4
	농촌	44.0	56.0	43.5	56.5	64.8	35.2	39.4	60.6	51.4	48.6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40.6	59.4	46.7	53.3	71.0	29.0	33.2	66.8	45.4	54.6
	평균소득 100% 이상	62.5	37.5	11.1	88.9	33.3	66.7	11.1	88.9	22.2	77.8
전체		41.2	58.8	45.7	54.3	70.0	30.0	32.6	67.4	44.8	55.2

〈표Ⅳ-10〉 초등학교 대상 사회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2

구분		학업문제관련 상담서비스		자녀 진로지도 서비스		체험학습 프로그램		게임중독 상담서비스		자녀 방과후 돌봄서비스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성별	남자	77.3	22.7	67.0	33.0	49.2	50.8	92.1	7.9	79.0	21.0
	여자	54.5	45.5	40.4	59.6	24.2	75.8	89.2	10.8	58.6	41.4
지역	도시	68.8	31.3	50.2	49.8	32.4	67.6	99.1	.9	75.1	24.9
	농촌	62.4	37.6	63.0	37.0	47.7	52.3	73.1	26.9	57.8	42.2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66.9	33.1	54.1	45.9	36.5	63.5	92.4	7.6	70.1	29.9
	평균소득 100% 이상	12.5	87.5	25.0	75.0	12.5	87.5	25.0	75.0	12.5	87.5
전체		65.5	34.5	53.4	46.6	35.9	64.1	90.7	9.3	68.6	31.4

초등학교 대상 사회서비스 중 학업문제 관련 상담서비스의 경우 비용지불의사가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4.5%였고, 자녀진로지도서비스 46.6%, 체험학습프로그램 64.1%, 게임중독 서비스는 9.3%, 그리고 자녀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31.4%였다.

초등학교 대상 사회서비스의 한 달 평균 적정비용으로는 정규교과 방문학습지도서비스의 경우 1-3만원이 가장 많았고, 외국어 교육도 1-3만원이 42.1%, 놀이치료와 음악치료도 1-3만원 55.9%로 가장 많았다. 다만 피아노나 첼로 등 시장성이 높게 나온 예술교육의 한 달 평균 적정 이용비용으로는 3-5만원이 가장 높게 나타나 초등학교 사회서비스의 경우 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체육교실에 대한 한 달 평균 적정 이용비용으로는 1-3만원이 51.6%로 가장 높았다.

〈표Ⅳ-11〉 성별 초등학교 대상 사회서비스의 한달평균 적정 이용비용-1

구분		정규교과 방문학습지도				외국어 교육				놀이치료 음악치료 등 정서발달서비스				예술교육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				체육교실 (태권도, 유도)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성별	남자	30.5	35.6	29.7	4.2	12.8	40.2	35.9	11.1	41.7	29.2	29.2		23.5	42.6	22.6	11.3	27.2	35.0	20.4	17.5
	여자	8.1	73.7	13.1	5.1	8.3	42.7	37.5	11.5	17.6	80.9	1.5		10.9	13.3	53.1	22.7	14.4	67.8	15.6	2.2
지역	도시	9.2	69.5	21.3		1.4	49.3	40.1	9.2	15.1	66.3	18.6		9.0	24.0	42.5	24.6	11.5	54.6	22.3	11.5
	농촌	40.8	22.4	23.7	13.2	30.0	25.7	28.6	15.7	54.5	36.4	9.1		33.8	33.8	31.2	1.3	41.3	41.3	9.5	7.9
소득	평균소득 100%이하	16.6	55.1	23.4	4.9	9.0	43.5	35.5	12.0	29.0	54.2	16.8		15.2	28.3	38.3	18.3	19.3	53.0	16.6	11.0
	평균소득 100%이상	71.4	28.6			11.1	11.1	77.8		.0	100.0			12.5	12.5	75.0		14.3	14.3	71.4	
전체		18.4	54.2	22.6	4.7	9.1	42.1	37.3	11.5	27.9	55.9	16.2		15.1	27.7	39.5	17.6	19.1	51.6	18.6	10.6

〈표Ⅳ-12〉 성별 초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의 한달평균 적정 이용비용-2

구분		정규교과 방문학습지도				외국어 교육				놀이치료 음악치료 등 정서발달서비스				예술교육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				체육교실 (태권도, 유도)			
		1 만원 이하	1~3 만원 이하	3~5 만원 이하	5 만원 이상	1 만원 이하	1~3 만원 이하	3~5 만원 이하	5 만원 이상	1 만원 이하	1~3 만원 이하	3~5 만원 이하	5 만원 이상	1 만원 이하	1~3 만원 이하	3~5 만원 이하	5 만원 이상	1 만원 이하	1~3 만원 이하	3~5 만원 이하	5 만원 이상
성 별	남자	55.6	18.5	25.9		59.0	16.0	25.0		40.0	27.5	21.7	10.8	60.8	4.1	35.1		49.5	24.2	26.4	
	여자	49.4	42.9	7.8		8.6	23.7	62.4	5.4	11.4	40.7	1.6	46.3	34.8	43.5	21.7		20.0	13.8	64.6	1.5
지 역	도시	57.1	27.6	15.3		30.0	19.3	50.7		17.4	31.7	9.6	41.3	63.6	4.5	31.8		28.3	15.2	56.6	
	농촌	45.0	35.0	20.0		49.1	18.9	22.6	9.4	44.0	40.0	16.0	.0	49.1	20.8	30.2		52.6	28.1	17.5	1.8
소 득	평균소득 100%이하	52.8	32.6	14.6		34.1	20.3	42.9	2.7	24.2	35.9	9.5	30.3	55.8	14.0	30.2		36.1	21.5	42.4	
	평균소득 100%이상	25.0	12.5	62.5		16.7	.0	83.3		14.3		85.7		14.3	14.3	71.4		14.3	.0	71.4	14.3
전체		51.3	31.6	17.1		33.5	19.7	44.1	2.7	23.9	34.9	11.8	29.4	52.7	14.0	33.3		35.1	20.5	43.7	.7

초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의 한 달 평균 적정이용비용으로 정규교과 방문학습지도는 1만원 이하가 51.3%로 가장 많았고, 외국어 교육은 3-5만원 이하가 44.1%였다. 놀이치료와 음악 치료 등 정서발달 서비스는 1-3만원 이하가 34.9%로 가장 높았고, 예술교육은 1만원 이하가 52.7%로 가장 높았다. 체육교실은 한달 평균 적정이용비용이 3-5만원이 43.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사회서비스 선택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품질이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사회서비스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자녀의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 26.9%, 이용비용의 적절성 15.9% 등의 순이었다.

〈표Ⅳ-13〉 초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 선택시 우선 고려사항

구분	서비스 품질	담당인력의 친절도	제공기관 접근성	이용비용 적절성	자녀의 서비스 선호도	기타	
성 별	남자	33.1	14.6	7.3	28.7	15.7	.6
	여자	48.1	1.3	9.6	1.3	39.7	
지 역	도시	33.5	1.8	11.6	21.9	31.3	
	농촌	54.1	22.0	1.8	2.8	18.3	.9
소 득	평균소득 100% 이하	40.2	6.3	9.2	16.5	27.8	
	평균소득 100% 이상	12.5	62.5			25.0	
전체		40.1	8.4	8.4	15.9	26.9	.3

### ③ 중고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 수요

중고등학생 대상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은 정규교과 방문학습지도는 16.7%로 낮았고, 외국어 교육은 40.6%, 놀이치료 및 음악치료서비스는 이용률이 2.4%에 불과했다. 예술교육은 30.9%, 체육교실은 26.1%만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14〉 중고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1

구분		정규교과 방문학습지도		외국어 교육		놀이치료 음악치료 등 정서발달서비스		예술교육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		체육교실 (태권도, 유도)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지역	도시	78.1	21.9	62.8	37.2	97.2	2.8	67.8	32.2	77.4	22.6
	농촌	84.5	15.5	55.7	44.3	99.1	.9	69.8	30.2	67.2	32.8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87.9	12.1	56.5	43.5	97.2	2.8	72.0	28.0	72.9	27.1
	평균소득 100% 이상	55.6	44.4	77.1	22.9	100.0		51.4	48.6	80.0	20.0
전체		83.3	16.7	59.4	40.6	97.6	2.4	69.1	30.9	73.9	26.1

학업관련 상담서비스는 중고등학생의 이용경험율이 8.8%였고, 자녀진로지도서비스는 11.2%, 체험학습프로그램 30.0%, 게임중독 및 상담서비스 0.4%, 그리고 방과후 돌봄서비스 6.8%였다. 결국 중고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 중 이용경험이 가장 높은 사업은 외국어 교육 등 학업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예술교육 그리고 예체능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등이 이었고, 이용경험율이 가장 낮은 사업은 게임중독 상담서비스나 일반 학업상담서비스, 그리고 방과후 돌봄 등의 서비스였다. 중고등학생의 상당수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는 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상담관련 서비스의 이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표Ⅳ-15〉 중고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2

구분		학업문제관련 상담서비스		자녀진로지도 서비스		체험학습 프로그램		게임중독치료 상담서비스		방과후돌봄 서비스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지역	도시	91.1	8.9	87.7	12.3	68.3	31.7	99.3	.7	95.9	4.1
	농촌	92.2	7.8	88.8	11.2	71.3	28.7	99.1	.9	89.7	10.3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93.0	7.0	88.8	11.2	73.4	26.6	99.5	.5	92.5	7.5
	평균소득 100% 이상	80.6	19.4	88.6	11.4	50.0	50.0	100.0		97.2	2.8
전체		91.2	8.8	88.8	11.2	70.0	30.0	99.6	.4	93.2	6.8



다음으로 중고등학생의 관련 사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으로 욕구정도를 추정해 보면, 우선 정규교과 방문학습지도 서비스는 약 80%의 아동청소년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외국어 교육도 약 93%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놀이치료와 음악치료는 이용율에서도 다른 사업보다도 낮게 나타났는데 필요성 정도에서도 54.1%만이 동의하고 있었다. 예술교육과 체육교실은 각각 72.9%, 72.5%정도가 필요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Ⅳ-16〉 중고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필요성 정도에 대한 인식 1

구분		정규교과 방문학습지도				외국어 교육				놀이치료 음악치료 등 정서발달서비스				예술교육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				체육교실 (태권도, 유도)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지역	도시	7.5	15.8	37.5	39.2	1.5	4.6	13.0	80.9	30.6	27.3	20.7	21.5	6.3	23.8	36.5	33.3	9.4	27.6	40.2	22.8
	농촌	1.8	23.4	30.6	44.1		5.4	20.5	74.1	9.1	20.0	15.5	55.5	3.6	17.3	32.7	46.4	2.6	13.2	41.2	43.0
소득	평균소득 100%이하	5.9	19.3	38.0	36.9	1.0	4.6	17.8	76.6	18.1	23.4	19.7	38.8	6.3	21.6	38.4	33.7	7.3	21.8	39.9	31.1
	평균소득 100%이상		27.3	21.2	51.5		11.1	13.9	75.0	38.2	32.4	17.6	11.8		22.9	22.9	54.3		19.4	58.3	22.2
전체		5.0	20.5	35.5	39.1	.9	5.6	17.2	76.4	21.2	24.8	19.4	34.7	5.3	21.8	36.0	36.9	6.1	21.4	42.8	29.7

다음으로 학업문제 관련 상담서비스는 이용율과는 달리 약 80%의 중고등학생이 필요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었고, 자녀진로지도 서비스는 53.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게임중독 상담서비스도 약 60%이상의 중고등학생이 그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40%정도만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Ⅳ-17〉 중고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필요성 정도에 대한 인식 2

구분		학업문제관련 상담서비스				자녀진로지도 서비스				체험학습 프로그램				게임중독치료 상담서비스				방과후돌봄 서비스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지역	도시	5.4	18.5	43.1	33.1	2.3	14.8	40.6	42.2	5.3	29.5	38.6	26.5	16.1	39.8	23.7	20.3	34.6	30.7	18.9	15.7
	농촌	3.6	8.9	15.2	72.3	.9	12.5	17.9	68.8	.9	17.9	34.8	46.4	1.8	30.6	19.8	47.7	5.4	38.7	27.9	27.9
소득	평균소득 100%이하	5.6	15.9	24.6	53.8	2.6	16.3	26.5	54.6	2.6	16.3	26.5	54.6	11.2	31.5	23.9	33.5	17.0	34.5	26.8	21.6
	평균소득 100%이상		8.3	69.4	22.2		5.6	55.6	38.9		5.6	55.6	38.9		60.9	13.0	26.1	48.6	31.4	8.6	11.4
전체		4.8	14.7	31.6	48.9	2.2	14.7	31.0	52.2	3.0	25.3	38.6	33.0	10.0	34.5	22.7	32.7	21.8	34.1	24.0	20.1

〈표Ⅳ-18〉 중고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1

구분		정규교과 방문학습지도		외국어 교육		놀이치료 음악치료 등 정서발달서비스		예술교육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		체육교실 (태권도, 유도)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지역	도시	71.8	28.2	45.1	54.9	86.0	14.0	52.8	47.2	72.7	27.3
	농촌	37.2	62.8	20.0	80.0	53.1	46.9	34.0	66.0	40.2	59.8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54.1	45.9	30.3	69.7	68.4	31.6	45.0	55.0	54.5	45.5
	평균소득 100% 이상	77.1	22.9	60.0	40.0	94.3	5.7	44.4	55.6	78.1	21.9
전체		57.4	42.6	34.6	65.4	72.1	27.9	44.9	55.1	57.7	42.3

다음으로 중고등학생 사회서비스의 시장성을 분석하기 위해 비용지불의사를 조사한 결과 정규교과 방문학습지도는 비용지불의사가 42.6%였고, 외국어 교육은 65.4%가 비용지불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놀이치료와 음악치료 등의 정서발달서비스는 27.9%만이 비용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술교육과 체육교실 등은 각각 55.1%와 42.3%정도가 비용지불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학업문제 관련 상담서비스는 비용지불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이 43.3%였고, 자녀진로지도서비스는 53.3%,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53.9%가 비용지불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게임중독 치료상담서비스는 비용지불의사가 있는 청소년이 31.3%에 불과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중고등학생 관련 사회서비스 중 적극적 비용지불의사가 있는 서비스로는 외국어 교육, 예술교육, 자녀진로지도서비스,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50%이상의 비용지불의사를 보여 일정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Ⅳ-19〉 중고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2

구분		학업문제관련 상담서비스		자녀진로지도 서비스		체험학습 프로그램		게임중독 치료상담서비스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지역	도시	71.9	28.1	59.7	40.3	56.1	43.9	83.7	16.3
	농촌	34.2	65.8	27.2	72.8	30.7	69.3	51.8	48.2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53.3	46.7	43.6	56.4	50.0	50.0	64.5	35.5
	평균소득 100% 이상	77.1	22.9	65.7	34.3	22.9	77.1	94.3	5.7
전체		56.7	43.3	46.7	53.3	46.1	53.9	68.7	31.3

〈표Ⅳ-20〉 중고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의 한달평균 적정 이용비용1

구분		정규교과 방문학습지도				외국어 교육				놀이치료 음악치료 등 정서발달서비스				예술교육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				체육교실 (태권도, 유도)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지역	도시	20.0	46.7	17.8	15.6	12.8	29.5	39.7	17.9	33.3	33.3	33.3		14.9	37.3	28.4	19.4	17.5	57.5	17.5	7.5
	농촌	24.1	62.0	11.4	2.5	14.6	65.6	7.3	12.5	36.8	55.9	5.9	1.5	22.1	53.2	23.4	1.3	28.0	53.3	17.3	1.3
소득	평균소득 100%이하	20.2	64.2	15.6		11.9	56.3	22.5	9.3	37.1	51.7	11.2		22.0	51.7	26.3		25.0	56.7	17.3	1.0
	평균소득 100%이상	11.1	11.1		77.8	6.7	6.7	13.3	73.3	33.3	33.3		33.3	5.0	5.0	25.0	65.0	12.5	12.5	25.0	50.0
전체		19.5	60.2	14.4	5.9	11.4	51.8	21.7	15.1	37.0	51.1	10.9	1.1	19.6	44.9	26.1	9.4	24.1	53.6	17.9	4.5

정규교과방문지도서비스 이용시 한 달 적정이용비용은 전체적으로 1만원~3만 원 이하가 53.3%로 가장 많았고, 1만 원 이하 23.0%, 3만원~5만원 이하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어교육은 전체적으로 1만원~3만원 이하가 47.8%로 가장 많았고 정서발달서비스는 1~3만원이 51.1%로 가장 많았다. 예술교육서비스는 1~3만원이 44.9%로 가장 많고, 체육교실은 1~3만원이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고등학생은 정규교과 방문학습지도, 외국어 교육, 놀이치료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한 달 평균 적정비용이 1~3만원 이하였다.

〈표Ⅳ-21〉 중고등학생 대상 사회서비스의 한달평균 적정 이용비용2

구분		학업문제관련 상담서비스				자녀진로지도 서비스				체험학습 프로그램				게임중독 치료상담서비스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지역	도시	16.7	57.1	26.2		25.5	45.5	25.5	3.6	32.1	35.7	32.1		26.7	33.3	11.1	28.9
	농촌	39.0	57.3	1.2	2.4	34.1	53.8	9.9	2.2	31.0	52.9	14.9	1.1	41.3	46.0	12.7	.0
소득	평균소득 100%이하	30.8	61.7	7.5		31.2	54.4	12.8	1.6	31.4	47.9	20.7		39.6	47.3	13.2	.0
	평균소득 100%이상	11.1	44.4	33.3	11.1	7.7	30.8	53.8	7.7	7.1	50.0	42.9		6.3	6.3	6.3	81.3
전체		29.3	60.3	9.5	.9	29.0	52.2	16.7	2.2	28.9	48.1	23.0		34.6	41.1	12.1	12.1

#### ④ 노인대상 사회서비스 수요

노인대상 사회서비스의 이용경험은 방문건강상담서비스는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가 90.5%, 운동처방서비스의 미이용이 97.6%였고, 보조기구렌탈서비스의 미이용이 97.8%, 취업연계지원서비스의 미이용경험이 96.7%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방문건강상담서비스, 운동처방서비스, 보조기구렌탈서비스, 취업연계지원서비스의 이용경험은 90%이상이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22〉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1

구분		방문건강상담 간호서비스		운동처방 서비스		보조기구렌탈 서비스		취업연계지원 서비스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성별	남자	92.7	7.3	100.0	.0	99.3	.7	91.2	8.8
	여자	89.1	10.9	96.4	3.6	97.0	3.0	99.1	.9
지역	도시	87.6	12.4	98.5	1.5	98.9	1.1	99.2	.8
	농촌	93.0	7.0	96.0	4.0	96.5	3.5	93.5	6.5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90.2	9.8	97.5	2.5	97.7	2.3	96.6	3.4
	평균소득 100% 이상	100.0	.0	100.0		100.0		100.0	
전체		90.5	9.5	97.6	2.4	97.8	2.2	96.7	3.3

〈표Ⅳ-23〉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2

구분		가족상담 서비스		여행 및 여가 서비스		노후설계지원 서비스		부양가족휴식 지원서비스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성별	남자	99.3	.7	92.0	8.0	99.3	.7	100.0	
	여자	99.1	.9	98.8	1.2	100.0	.0	100.0	.0
지역	도시	99.6	.4	98.9	1.1	100.0	.0	100.0	.0
	농촌	98.5	1.5	94.0	6.0	99.5	.5	100.0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99.1	.9	96.6	3.4	99.5	.5	100.0	.0
	평균소득 100% 이상	100.0		100.0		100.0		100.0	
전체		99.1	.9	96.7	3.3	99.6	.4	100.0	.0

노인대상 사회서비스 중 가족상담서비스는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가 99.1%로 많았고, 여행 및 여가서비스의 미이용이 96.7%로 많았다. 노후설계지원서비스의 미이용이 99.6%, 부양가족 휴식지원서비스의 미이용경험이 100.0%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가족상담서비스, 여행 및 여가서비스, 노후설계지원서비스, 부양가족지원서비스의 이용경험은 95%이상이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24〉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3

구분		식사배달 서비스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주야간돌봄 서비스		취미여가활동 지원서비스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성별	남자	99.3	.7	98.5	1.5	99.3	.7	91.2	8.8
	여자	97.3	2.4	97.6	2.1	98.2	1.5	97.0	2.7
지역	도시	97.0	2.6	97.4	2.2	98.1	1.5	97.4	2.2
	농촌	99.0	1.0	98.5	1.5	99.5	.5	92.5	7.5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98.2	1.8	98.2	1.8	98.9	1.1	95.2	4.8
	평균소득 100% 이상	100.0		100.0		100.0		90.9	9.1
	전체	98.2	1.8	98.2	1.8	98.9	1.1	95.1	4.9

노인대상 사회서비스 중 식사배달서비스는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가 98.2%로 많았고, 주거환경개선서비스의 미이용이 98.2%로 많았다. 주야간돌봄서비스의 미이용이 98.9%, 취미여가활동지원서비스의 미이용경험이 95.1%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식사배달서비스,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주야간돌봄서비스, 취미여가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경험은 95%이상이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25〉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필요성 정도에 대한 인식 1

구분		방문건강상담 간호서비스				운동처방 서비스				보조기구렌탈 서비스				취업연계지원 서비스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성별	남자	5.6	9.3	42.1	43.0	7.7	15.4	47.1	29.8	8.7	33.0	33.0	25.2	30.1	34.0	23.3	12.6
	여자	4.3	9.4	49.8	36.5	11.8	20.7	45.8	21.8	15.9	27.7	35.8	20.7	34.1	40.0	14.4	11.5
지역	도시	5.5	9.1	47.0	38.4	14.2	17.9	44.8	23.1	19.2	30.5	33.3	16.9	33.2	38.4	12.3	16.1
	농촌	3.6	9.7	48.5	38.2	6.2	20.4	48.1	25.3	6.7	27.6	37.4	28.2	32.5	37.4	23.3	6.7
소득	평균소득 100%이하	5.0	9.4	49.2	36.4	11.4	19.0	45.2	24.4	14.4	29.7	33.3	22.6	32.8	38.5	16.5	12.3
	평균소득 100%이상		11.1	22.2	66.7		22.2	66.7	11.1	11.1	22.2	66.7	.0	44.4	22.2	22.2	11.1
	전체	4.9	9.5	48.5	37.1	11.1	19.1	45.7	24.1	14.3	29.5	34.2	22.0	33.1	38.1	16.7	12.2

노인대상 사회서비스 중 방문건강상담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은 필요하다가 48.5%로 많았고, 운동처방서비스의 필요성은 필요하다가 45.7%로 가장 많았다. 보조기구렌탈서비스는 필요하다가 34.2%, 취업연계지원서비스는 필요하지않다가 38.1%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방문 건강상담 간호서비스, 운동처방서비스, 보조기구렌탈서비스는 필요하다가 많았고, 취업연계 지원서비스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26〉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필요성 정도에 대한 인식 2

구분	가족상담서비스				여행 및 여가서비스				노후설계지원서비스				부양가족휴식지원서비스				
	전혀 불필요	불 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 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 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 필요	필요	매우 필요	
성 별	남자	33.0	37.9	19.4	9.7	25.2	35.0	30.1	9.7	24.3	28.2	34.0	13.6	29.4	36.3	25.5	8.8
	여자	32.6	45.6	15.6	6.3	31.4	42.8	17.0	8.9	29.5	43.2	19.9	7.4	31.1	43.0	15.9	10.0
지 역	도시	34.1	46.4	10.9	8.5	31.0	45.7	12.9	10.5	30.5	43.8	16.2	9.5	31.0	43.8	13.8	11.4
	농촌	30.9	39.5	24.1	5.6	28.2	33.7	30.7	7.4	24.5	33.1	33.7	8.6	30.1	37.4	24.5	8.0
소 득	평균소득 100%이하	33.9	43.3	15.7	7.1	30.6	39.9	20.1	9.3	28.7	38.6	23.6	9.1	31.6	40.7	17.9	9.7
	평균소득 100%이상	.0	75.0	12.5	12.5	12.5	75.0	12.5	.0	12.5	75.0	12.5	.0	11.1	66.7	22.2	
전체	33.1	44.0	15.6	7.2	30.2	40.7	19.9	9.1	28.3	39.4	23.3	8.9	31.1	41.4	18.1	9.4	

노인대상 사회서비스 중 가족상담서비스의 필요성은 필요하지 않다가 44.0%로 가장 많았고, 여행 및 여가서비스는 필요하지 않다가 40.7%로 가장 많았다. 노후설계지원서비스도 필요하지 않다가 39.4%, 부양가족휴식지원서비스는 필요하지 않다가 41.4%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가족상담서비스, 여행 및 여가서비스, 노후설계지원서비스, 부양가족휴식지원서비스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Ⅳ-27〉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필요성 정도에 대한 인식 3

구분	식사배달서비스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주야간돌봄서비스				취미여가활동지원서비스				
	전혀 불필요	불 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 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 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 필요	필요	매우 필요	
성 별	남자	11.7	25.2	35.9	27.2	14.6	21.4	38.8	25.2	14.4	33.7	34.6	17.3	15.2	27.6	38.1	19.0
	여자	19.6	31.6	25.8	22.9	17.0	32.1	28.0	22.9	13.4	35.8	37.3	13.4	24.5	35.7	27.1	12.6
지 역	도시	16.8	33.6	23.4	26.2	17.5	36.8	21.2	24.5	11.1	42.3	32.7	13.9	22.7	44.1	19.0	14.2
	농촌	18.4	25.2	35.6	20.9	14.7	18.4	44.2	22.7	16.7	25.9	42.0	15.4	20.7	19.5	45.1	14.6
소 득	평균소득 100%이하	18.0	30.4	28.2	23.4	16.7	28.6	30.3	24.4	14.1	36.2	36.2	13.5	22.7	34.7	28.1	14.5
	평균소득 100%이상	11.1	22.2	11.1	55.6	11.1	66.7	11.1	11.1		22.2	33.3	44.4		22.2	77.8	
전체	17.9	30.2	27.7	24.2	16.6	29.6	29.8	24.0	13.7	35.9	36.1	14.3	22.2	34.3	29.4	14.1	

노인대상 사회서비스 중 식사배달서비스의 필요성은 필요하지 않다가 30.2%로 가장 많았고,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는 필요하다가 29.8%로 가장 많았다. 주야간돌봄서비스는 필요하다가 36.1%로 많았고, 취미여가활동지원서비스는 필요하지 않다가 34.3%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식사배달서비스, 주야간돌봄서비스, 취미여가활동지원서비스는 필요하지 않았고, 주거환경개선서비스는 필요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Ⅳ-28〉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1

구분		방문건강상담 간호서비스		운동처방 서비스		보조기구렌탈 서비스		취업연계지원 서비스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성별	남자	78.5	21.5	83.1	16.9	85.3	14.7	85.3	14.7
	여자	77.0	21.1	85.2	13.3	86.7	13.3	90.6	9.4
지역	도시	77.2	22.4	89.9	10.1	92.2	7.8	92.2	7.8
	농촌	77.8	19.7	77.4	20.1	78.4	21.6	84.4	15.6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78.4	20.3	85.7	13.2	86.8	13.2	89.1	10.9
	평균소득 100% 이상	18.2	81.8	27.3	72.7	45.5	54.5	63.6	36.4
전체		76.9	21.8	84.3	14.6	85.8	14.2	88.5	11.5

노인대상 사회서비스 중 방문건강상담 간호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는 없다가 76.9%로 가장 많았고, 운동처방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는 없다가 84.3%로 가장 많았다. 보조기구렌탈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는 없다가 85.8%로 많았고, 취업연계지원서비스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88.5%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방문건강상담간호서비스, 운동처방서비스, 보조기구렌탈서비스, 취업연계지원서비스에 대한 비용지불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29〉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2

구분		가족상담 서비스		여행 및 여가 서비스		노후설계지원 서비스		부양가족휴식 지원서비스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성별	남자	96.3	3.7	81.6	18.4	93.4	6.6	88.2	11.8
	여자	92.1	7.6	85.5	14.5	93.7	6.3	92.4	7.6
지역	도시	96.3	3.4	89.9	10.1	94.4	5.6	93.7	6.3
	농촌	89.9	10.1	76.9	23.1	92.5	7.5	87.9	12.1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93.7	6.1	84.6	15.4	94.6	5.4	91.1	8.9
	평균소득 100% 이상	81.8	18.2	54.5	45.5	45.5	54.5	81.8	18.2
전체		93.4	6.4	83.8	16.2	93.4	6.6	90.9	9.1

노인대상 사회서비스 중 가족상담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는 없다가 93.4%로 가장 많았고, 여행 및 여가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는 없다가 83.8%로 가장 많았다. 노후설계지원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는 없다가 93.4%로 많았고, 부양가족휴식지원서비스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90.9%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가족상담서비스, 여행 및 여가서비스, 노후설계지원서비스, 부양가족휴식지원서비스에 대한 비용지불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30〉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3

구분		식사배달 서비스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주야간돌봄 서비스		취미여가활동 지원서비스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성별	남자	91.2	8.8	87.5	12.5	86.0	14.0	83.7	16.3
	여자	83.7	16.3	82.8	17.2	82.8	17.2	86.9	13.1
지역	도시	86.2	13.8	85.4	14.6	88.4	11.6	90.2	9.8
	농촌	85.4	14.6	82.4	17.6	77.9	22.1	80.8	19.2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86.4	13.6	83.9	16.1	84.5	15.5	86.7	13.3
	평균소득 100% 이상	50.0	50.0	72.7	27.3	36.4	63.6	45.5	54.5
전체		85.6	14.4	83.6	16.4	83.4	16.6	85.7	14.3

노인대상 사회서비스 중 식사배달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는 없다가 85.6%로 가장 많았고, 주거환경개선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는 없다가 83.6%로 가장 많았다. 주야간돌봄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는 없다가 83.4%로 많았고, 취미여가활동지원서비스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85.7%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식사배달서비스,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주야간돌봄서비스, 취미여가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비용지불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31〉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한달평균 적정 이용비용1

구분		방문건강상담 간호서비스				운동처방 서비스				보조기구렌탈 서비스				취업연계지원 서비스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성별	남자	42.9	54.3	2.9	.0	37.0	59.3	3.7	.0	38.5	57.7	3.8	.0	46.2	50.0	3.8	.0
	여자	63.8	32.5	3.8	.0	72.3	23.4	4.3		67.3	29.1	1.8	1.8	79.4	17.6	2.9	
지역	도시	63.3	36.7	.0		70.4	29.6			68.2	31.8			87.0	13.0		
	농촌	51.9	42.6	5.6	.0	52.1	41.7	6.3	.0	54.2	40.7	3.4	1.7	50.0	44.7	5.3	.0
소득	평균소득 100%이하	60.2	36.9	2.9	.0	54.7	42.2	3.1	.0	54.2	41.7	2.8	1.4	60.0	36.4	3.6	.0
	평균소득 100%이상	12.5	75.0	12.5		71.4	14.3	14.3		100.0				100.0			
전체		56.8	39.6	3.6	.0	56.3	39.4	4.2	.0	57.1	39.0	2.6	1.3	62.1	34.5	3.4	.0

노인대상 사회서비스 중 방문건강상담서비스의 한 달 평균 적정비용은 1만원 이하가 56.8%로 가장 많았고, 운동처방서비스는 1만원 이하가 56.3%로 가장 많았다. 보조기구렌탈서비스의 적정비용은 1만원 이하가 57.1%로 많았고, 취업연계지원서비스는 1만원 이하가 62.1%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방문건강상담간호서비스, 운동처방서비스, 보조기구렌탈서비스, 취업연계지원서비스의 한 달 평균 적정비용은 1만원 이하가 가장 적정한 비용으로 나타났다.



〈표Ⅳ-32〉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한달평균 적정 이용비용2

구분		가족상담서비스				여행 및 여가서비스				노후설계지원서비스				부양가족휴식지원서비스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성별	남자	82.6	13.0	4.3	.0	32.3	64.5	3.2	.0	72.0	24.0	4.0	.0	33.3	61.9	4.8	.0
	여자	74.1	22.2	3.7		59.2	30.6	6.1	4.1	73.3	23.3	3.3		60.0	37.1	2.9	
지역	도시	81.8	18.2			62.1	24.1	6.9	6.9	69.2	30.8			68.8	31.3		
	농촌	78.9	15.8	5.3	.0	40.4	53.8	5.8	.0	73.8	21.4	4.8	.0	42.5	52.5	5.0	.0
소득	평균소득 100%이하	77.3	18.2	4.5	.0	43.1	47.2	6.9	2.8	71.4	24.5	4.1	.0	46.2	50.0	3.8	.0
	평균소득 100%이상	100.0				100.0	.0			100.0				100.0			
전체		78.3	17.4	4.3	.0	46.1	44.7	6.6	2.6	72.5	23.5	3.9	.0	47.2	49.1	3.8	.0

노인대상 사회서비스 중 가족상담서비스의 한 달 평균 적정비용은 1만원 이하가 78.3%로 가장 많았고, 여행 및 여가서비스는 1만원 이하가 46.1%로 가장 많았다. 노후설계지원서비스의 적정비용은 1만원 이하가 72.5%로 많았고, 부양가족휴식지원서비스는 1-3만원 이하가 49.1%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가족상담서비스, 여행 및 여가서비스, 노후설계지원서비스등의 한 달 평균 적정비용은 1만원 이하가 많았다.

〈표Ⅳ-33〉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한달평균 적정 이용비용3

구분		식사배달서비스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주야간돌봄서비스				취미여가활동지원서비스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성별	남자	77.8	18.5	3.7	.0	59.4	25.0	9.4	6.3	25.0	70.8	4.2	.0	33.3	63.0	3.7	.0
	여자	69.4	24.5	6.1		61.1	20.4	13.0	5.6	50.9	35.8	5.7	7.5	72.1	23.3	4.7	
지역	도시	74.3	25.7	.0		44.7	36.8	13.2	5.3	32.3	51.6	3.2	12.9	64.3	28.6	7.1	
	농촌	72.5	17.5	10.0	.0	71.4	10.2	12.2	6.1	47.9	41.7	8.3	2.1	51.2	44.2	4.7	.0
소득	평균소득 100%이하	70.6	23.5	5.9	.0	60.0	21.3	13.8	5.0	43.3	44.8	6.0	6.0	51.6	41.9	6.5	.0
	평균소득 100%이상	100.0	.0			50.0	50.0	.0		16.7	83.3	.0		80.0	20.0		
전체		72.2	22.2	5.6	.0	59.8	22.0	13.4	4.9	41.1	47.9	5.5	5.5	53.7	40.3	6.0	.0

노인대상 사회서비스 중 식사배달서비스의 한 달 평균 적정비용은 1만원 이하가 72.2%로 가장 많았고, 주거환경개선서비스는 1만원 이하가 59.8%로 가장 많았다. 주야간돌봄서비스의 적정비용은 1-3만원 이하가 47.9%로 많았고, 취미여가활동지원서비스는 1만원 이하가 53.7%로 가장 많았다.

## 2.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수요

〈표Ⅳ-34〉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1

구분		건강관리 상담서비스		운동처방 서비스		기초보건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구 렌탈서비스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성별	남자	82.1	17.9	85.7	14.3	86.2	13.8	85.7	14.3
	여자	85.7	14.3	89.3	10.7	89.3	10.7	96.4	3.6
지역	도시	70.4	29.6	74.1	25.9	74.1	25.9	81.5	18.5
	농촌	96.6	3.4	96.7	3.3	100.0		96.7	3.3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81.6	18.4	85.7	14.3	86.0	14.0	89.8	10.2
	평균소득 100% 이상								
전체		81.6	18.4	85.7	14.3	86.0	14.0	89.8	10.2

장애인대상 사회서비스 중 건강관리상담서비스의 이용경험은 없다가 81.6%로 가장 많았고, 운동처방서비스는 미이용이 85.7%로 가장 많았다. 기초보건서비스는 이용한적 없다가 86.0%로 많았고, 장애인보조기구렌탈서비스는 미이용이 89.8%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건강관리상담서비스, 운동처방서비스, 기초보건서비스, 장애인보조기구렌탈서비스의 이용경험은 미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35〉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2

구분		취업 및 직업상담 서비스		가족상담 서비스		여행 및 여가 서비스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성별	남자	93.1	6.9	100.0	.0	100.0	.0	100.0	.0
	여자	93.1	6.9	100.0		100.0		82.8	17.2
지역	도시	88.9	11.1	100.0	.0	100.0	.0	85.2	14.8
	농촌	100.0	.0	100.0		100.0		96.6	3.4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93.9	6.1	100.0	.0	100.0	.0	91.8	8.2
	평균소득 100% 이상								
전체		93.9	6.1	100.0	.0	100.0	.0	91.8	8.2

장애인대상 사회서비스 중 취업 및 직업상담서비스의 이용경험은 없다가 93.9%로 가장 많았고, 가족상담서비스는 미이용이 100.0%로 가장 많았다. 여행 및 여가서비스는 이용한적 없다가 100.0%로 많았고, 주거환경개선서비스는 미이용이 91.8%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취업 및 직업상담서비스, 가족상담서비스, 여행 및 여가서비스, 주거환경개선서비스의 이용경험은 미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36〉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3

구분		활동보조지원 서비스		재활치료 서비스		주야간돌봄 서비스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성별	남자	67.9	32.1	85.7	14.3	100.0	.0
	여자	69.0	31.0	96.4	3.6	96.4	3.6
지역	도시	74.1	25.9	85.2	14.8	92.6	7.4
	농촌	63.3	36.7	93.3	6.7	100.0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74.0	26.0	88.0	12.0	96.0	4.0
	평균소득 100% 이상						
전체		74.0	26.0	88.0	12.0	96.0	4.0

장애인대상 사회서비스 중 활동보조지원서비스의 이용경험은 없다가 74.0%로 가장 많았고, 재활치료서비스는 미이용이 88.0%로 가장 많았으며, 주야간돌봄서비스는 이용한적 없다가 96.0%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재활치료서비스, 주야간돌봄서비스의 이용경험은 미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37〉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필요성 정도에 대한 인식 1

구분	건강관리 상담서비스				운동처방 서비스				기초보건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구 렌탈서비스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성별	남자	.0	4.2	45.8	50.0	.0	8.3	45.8	45.8	.0	17.4	43.5	39.1	.0	13.0	30.4	56.5
	여자	.0	17.4	39.1	43.5	.0	14.3	38.1	47.6	.0	19.0	42.9	38.1	.0	38.1	47.6	14.3
지역	도시	.0	11.8	35.3	52.9	.0	17.6	35.3	47.1	.0	26.7	33.3	40.0	.0	18.8	50.0	31.3
	농촌	.0	7.1	50.0	42.9	.0	7.1	46.4	46.4	.0	14.3	46.4	39.3	.0	25.9	33.3	40.7
소득	평균소득 100%이하	.0	12.5	50.0	37.5	2.6	12.8	48.7	35.9	2.7	21.6	48.6	27.0	.0	13.9	47.2	38.9
	평균소득 100%이상																
전체		.0	12.5	50.0	37.5	2.6	12.8	48.7	35.9	2.7	21.6	48.6	27.0	.0	13.9	47.2	38.9

장애인대상 사회서비스 중 건강관리상담서비스의 필요성은 필요하다가 50.0%로 가장 많았고, 운동처방서비스는 필요하다가 48.7%로 가장 많았다. 기초보건서비스는 필요하다가 48.6%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보조기구렌탈서비스의 필요성은 필요하다가 47.2%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건강관리 상담서비스, 운동처방서비스, 기초보건서비스, 장애인보조기구 렌탈서비스는 필요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Ⅳ-38〉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필요성 정도에 대한 인식 2

구분	취업 및 직업상담서비스				가족상담서비스				여행 및 여가서비스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성별	남자	8.7	8.7	56.5	26.1	4.2	12.5	54.2	29.2	4.3	21.7	47.8	26.1	4.3	13.0	21.7	60.9
	여자	31.8	31.8	18.2	18.2	38.1	14.3	9.5	38.1	45.5	4.5	13.6	36.4	25.0		15.0	60.0
지역	도시	11.1	11.1	50.0	27.8	18.8	18.8	43.8	18.8	20.0	26.7	33.3	20.0	.0	12.5	25.0	62.5
	농촌	25.0	25.0	28.6	21.4	22.2	11.1	25.9	40.7	28.6	3.6	28.6	39.3	21.4	.0	17.9	60.7
소득	평균소득 100%이하	22.5	12.5	42.5	22.5	24.3	16.2	37.8	21.6	29.7	13.5	37.8	18.9	15.8	7.9	23.7	52.6
	평균소득 100%이상																
전체	22.5	12.5	42.5	22.5	24.3	16.2	37.8	21.6	29.7	13.5	37.8	18.9	15.8	7.9	23.7	52.6	

장애인대상 사회서비스 중 취업 및 직업상담서비스의 필요성은 필요하다가 42.5%로 가장 많았고, 가족상담서비스는 필요하다가 37.8%로 가장 많았다. 여행 및 여가서비스는 필요하다가 37.8%로 가장 많았고, 주거환경개선서비스의 필요성은 매우필요하다가 52.6%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취업 및 직업상담서비스, 가족상담서비스, 여행 및 여가서비스, 주거환경개선서비스는 필요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Ⅳ-39〉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서비스 필요성 정도에 대한 인식 3

구분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재활치료서비스				주야간돌봄서비스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성별	남자	.0	8.3	16.7	75.0	.0	20.0	20.0	60.0	.0	26.1	47.8	26.1
	여자	5.0	5.0	35.0	55.0	.0	65.0	5.0	30.0	4.8	66.7	9.5	19.0
지역	도시	.0	12.5	12.5	75.0	.0	41.7	16.7	41.7	5.9	41.2	23.5	29.4
	농촌	3.6	3.6	32.1	60.7	.0	42.9	10.7	46.4	.0	46.4	32.1	21.4
소득	평균소득 100%이하	5.3	7.9	28.9	57.9	.0	36.4	15.2	48.5	2.6	39.5	34.2	23.7
	평균소득 100%이상												
전체	5.3	7.9	28.9	57.9	.0	36.4	15.2	48.5	2.6	39.5	34.2	23.7	

장애인대상 사회서비스 중 활동보조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은 매우필요하다가 57.9%로 가장 많았고, 재활치료서비스는 매우필요하다가 48.5%로 가장 많았으며, 주야간돌봄서비스는 필요하지않다가 39.5%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재활치료서비스는 매우필요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Ⅳ-40〉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1

구분		방문건강상담 간호서비스		운동처방 서비스		기초보건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구 렌탈서비스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성별	남자	69.0	31.0	84.6	15.4	92.3	7.7	75.0	25.0
	여자	96.6	3.4	92.9	7.1	96.6	3.4	96.4	3.6
지역	도시	85.7	14.3	100.0	.0	100.0	.0	85.7	14.3
	농촌	82.8	17.2	80.0	20.0	93.1	6.9	82.8	17.2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84.0	16.0	89.4	10.6	97.9	2.1	86.0	14.0
	평균소득 100% 이상								
전체		84.0	16.0	89.4	10.6	97.9	2.1	86.0	14.0

장애인대상 사회서비스 중 방문건강상담 간호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는 없다가 84.0%로 가장 많았고, 운동처방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는 없다가 89.4%로 가장 많았다. 기초보건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는 없다가 97.9%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보조기구렌탈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는 없다가 86.0%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방문건강상담간호서비스, 운동처방서비스, 기초보건서비스, 장애인보조기구렌탈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41〉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2

구분		취업 및 직업상담 서비스		가족상담 서비스		여행 및 여가 서비스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성별	남자	92.9	7.1	89.7	10.3	93.1	6.9	86.2	13.8
	여자	89.3	10.7	96.4	3.6	96.4	3.6	89.3	10.7
지역	도시	96.3	3.7	100.0	.0	100.0		96.4	3.6
	농촌	86.2	13.8	86.2	13.8	89.7	10.3	80.0	20.0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92.0	8.0	94.0	6.0	96.0	4.0	90.0	10.0
	평균소득 100% 이상								
전체		92.0	8.0	94.0	6.0	96.0	4.0	90.0	10.0

장애인대상 사회서비스 중 취업 및 직업상담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는 없다가 92.0%로 가장 많았고, 가족상담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는 없다가 94.0%로 가장 많았다. 여행 및 여가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는 없다가 96.0%로 가장 많았고, 주거환경개선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는 없다가 90.0%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취업 및 직업상담서비스, 가족상담서비스, 여행 및 여가서비스, 주거환경개선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42〉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3

구분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재활치료서비스		주야간돌봄서비스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성별	남자	75.9	24.1	75.9	24.1	75.0	25.0
	여자	92.9	7.1	89.3	10.7	96.4	3.6
지역	도시	85.7	14.3	85.7	14.3	85.7	14.3
	농촌	82.8	17.2	79.3	20.7	82.8	17.2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86.0	14.0	82.0	18.0	84.0	16.0
	평균소득 100% 이상						
	전체	86.0	14.0	82.0	18.0	84.0	16.0

장애인대상 사회서비스 중 활동보조지원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는 없다가 86.0%로 가장 많았고, 재활치료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는 없다가 82.0%로 가장 많았으며, 주야간돌봄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는 없다가 84.0%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재활치료서비스, 주야간돌봄서비스의 비용지불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43〉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한달평균 적정 이용비용1

구분	방문건강상담 간호서비스				운동처방서비스				기초보건서비스				장애인보조기구 렌탈서비스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성별	남자	63.6	18.2	9.1	9.1	50.0	30.0	10.0	10.0	80.0		10.0	10.0	40.0	40.0	10.0	10.0
	여자	100.0				100.0				100.0				88.9	11.1		
지역	도시	100.0	.0			40.0	60.0			100.0				40.0	60.0		
	농촌	66.7	11.1	11.1	11.1	80.0		10.0	10.0	75.0		12.5	12.5	78.6	7.1	7.1	7.1
소득	평균소득 100%이하	69.2	15.4	7.7	7.7	61.5	23.1	7.7	7.7	81.8		9.1	9.1	46.2	38.5	7.7	7.7
	평균소득 100%이상																
전체		69.2	15.4	7.7	7.7	61.5	23.1	7.7	7.7	81.8		9.1	9.1	46.2	38.5	7.7	7.7

장애인대상 사회서비스 중 방문건강상담 간호서비스의 한 달 평균 적정비용은 1만원 이하가 69.2%로 가장 많았고, 운동처방서비스는 1만원 이하가 61.5%로 가장 많았다. 기초보건서비스의 적정비용은 1만원 이하가 81.8%로 많았고, 장애인보조기구렌탈서비스는 1만원 이하가 46.2%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방문건강상담 간호서비스, 운동처방서비스, 기초보건서비스, 장애인보조기구 렌탈서비스의 한 달 평균 적정비용은 1만원 이하가 가장 적정한 비용으로 나타났다.

〈표Ⅳ-44〉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한달평균 적정 이용비용2

구분	취업 및 직업상담서비스				가족상담서비스				여행 및 여가서비스				주거환경개선서비스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성별	남자	50.0	16.7	16.7	16.7	50.0	16.7	16.7	16.7	50.0	16.7	16.7	16.7	50.0		16.7	33.3
	여자	40.0	40.0		20.0	50.0	50.0			75.0	25.0			90.0	10.0		
지역	도시		66.7		33.3		100.0			100.0				100.0			
	농촌	62.5	12.5	12.5	12.5	62.5	12.5	12.5	12.5	50.0	25.0	12.5	12.5	71.4	7.1	7.1	14.3
소득	평균소득 100%이하	40.0	20.0	10.0	30.0	42.9	28.6	14.3	14.3	62.5	12.5	12.5	12.5	55.6	11.1	11.1	22.2
	평균소득 100%이상																
전체	40.0	20.0	10.0	30.0	42.9	28.6	14.3	14.3	62.5	12.5	12.5	12.5	55.6	11.1	11.1	22.2	

장애인대상 사회서비스 중 취업 및 직업상담서비스의 한 달 평균 적정비용은 1만원 이하가 40.0%로 가장 많았고, 가족상담서비스는 1만원 이하가 42.9%로 가장 많았다. 여행 및 여가서비스의 적정비용은 1만원 이하가 62.5%로 많았고, 주거환경개선서비스는 1만원 이하가 55.6%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취업 및 직업상담서비스, 가족상담서비스, 여행 및 여가서비스, 주거환경개선서비스의 한 달 평균 적정비용은 1만원 이하가 가장 적정한 비용으로 나타났다.

〈표Ⅳ-45〉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한달평균 적정 이용비용3

구분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재활치료서비스				주야간돌봄서비스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성별	남자	40.0		50.0	10.0	30.0	10.0	50.0	10.0	33.3	44.4	11.1	11.1
	여자	70.0	20.0	10.0		81.8	18.2			50.0	50.0		
지역	도시	.0	40.0	60.0			40.0	60.0			100.0		
	농촌	73.3	6.7	13.3	6.7	85.7	.0	7.1	7.1	66.7	11.1	11.1	11.1
소득	평균소득 100%이하	33.3	16.7	41.7	8.3	38.5	15.4	38.5	7.7	36.4	45.5	9.1	9.1
	평균소득 100%이상												
전체	33.3	16.7	41.7	8.3	38.5	15.4	38.5	7.7	36.4	45.5	9.1	9.1	

활동보조지원서비스의 한 달 평균 적정비용은 3-5만원 이하가 41.7%로 가장 많았고, 재활치료서비스는 3-5만원 이하가 38.5%로 가장 많았으며, 주야간돌봄서비스의 적정비용은 1-3만원 이하가 45.5%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재활치료서비스는 3-5만원 이하, 주야간돌봄서비스는 1-3만원 이하를 가장 적정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1) 사회서비스 바우처 일자리 수요조사 분석결과

## 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요 분석결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등급외자 중 AB 등급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고령노인 및 요보호노인의 증가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요분석 결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 전체 노인의 35.0%는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용지불의사가 있는 적극적 수요는 약 10.6%로 나타났다.

노인돌봄서비스의 이용의사를 기준으로 이용자 수요와 필요인력을 추정해 보면, 14개 시군 전체 노인돌봄서비스 수요는 최소 106,255명에서 최대 109,595명으로 추정된다.

〈표Ⅳ-46〉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의향 및 비용지불의사

구분		이용의사				M(SD)	비용지불의사	
		전혀 이용하고 싶지않다	이용하고 싶지않다	이용하고 싶다	매우 이용하고 싶다		없음	있음
성별	남자	55.6	15.4	24.3	4.7	1.78(0.97)	88.9	11.1
	여자	37.9	19.5	32.2	10.3	2.14(1.04)	89.9	10.1
연령	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70세 미만	59.6	11.7	22.8	5.8	1.75(1.00)	85.9	14.1
	70세 이상	33.9	22.8	33.9	9.4	2.18(1.01)	93.1	6.9
지역	도시	40.5	16.9	34.6	8.0	2.09(1.03)	89.5	10.5
	농촌	61.0	18.1	14.3	6.7	1.67(0.95)	91.3	8.7
소득	평균소득 150% 이하	46.6	17.4	28.2	7.9	1.97(1.03)	88.5	11.5
	평균소득 150% 이상	61.9	19.0	14.3	4.8	1.63(0.92)	100.0	0.0
	전체	47.5	17.5	27.3	7.7	1.95(1.03)	89.4	10.6

주. 노인돌봄서비스는 60세 이상 노인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

노인종합돌봄서비스의 수요를 기초로 제공인력 수요를 추정해 보면, 구매의사가 있는 표적시장을 기준으로 분석시 최소 3,633명에서 최대 3,743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현재 제공인력이 1,321명임을 감안하면 현재보다도 약 3배 이상의 인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Ⅳ-47〉 전라북도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및 인력전망

구분		전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65세 이상인구		303,586	68,434	36,763	42,234	26,141	19,121	23,295	16,294	7,736	7,049	6,493	9,104	8,832	16,659	15,431
수요 추정	최대	109,595	24,705	13,271	15,246	9,437	6,903	8,409	5,882	2,793	2,545	2,344	3,287	3,188	6,014	5,571
	최소	106,255	23,952	12,867	14,782	9,149	6,692	8,153	5,703	2,708	2,467	2,273	3,186	3,091	5,831	5,401
인력 전망	최대	34,276	7,726	4,151	4,768	2,951	2,159	2,630	1,840	873	796	733	1,028	997	1,881	1,742
	최소	35,353	7,969	4,281	4,918	3,044	2,227	2,713	1,897	901	821	756	1,060	1,029	1,940	1,797
표적시장 기준 수요추정	최대	11,617	2,619	1,407	1,616	1,000	732	891	623	296	270	248	348	338	637	591
	최소	11,263	2,539	1,364	1,567	970	709	864	605	287	262	241	338	328	618	573
표적시장 기준 인력전망	최대	3,747	845	454	521	323	236	288	201	96	87	80	112	109	206	190
	최소	3,633	819	440	505	313	229	279	195	93	84	78	109	106	199	185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한 일반수요는 돌봄서비스의 이용의사를 기준으로 측정하였고, 표적수요는 적극적 수요에 해당하는 구매의사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전라북도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이용경험이 있는 노인은 6.7%였고, 이용노인의 만족도는 48.2%였다. 성별로는 남자노인보다는 여자노인의 만족도가 높았고, 지역별로는 농촌보다는 도시노인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평균소득 100%이하 노인이 평균소득 100%이상 노인보다도 약 두 배 정도 만족도가 높았다.

〈표Ⅳ-48〉 노인돌봄서비스 바우처사업 이용율

구분	이용경험		만족도						M(SD)
	이용	미이용	매우 불만	대체로 불만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성별	남자	4.7	95.3	8.3	16.7	33.3	25.0	16.7	3.35(1.18)
	여자	9.2	90.8	5.0	5.0	40.0	25.0	25.0	3.64(1.04)
연령	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70세 미만	5.3	94.7	7.1	21.4	35.7	7.1	28.6	3.36(1.29)
	70세 이상	8.7	91.3	5.6	.0	38.9	38.9	16.7	3.66(0.92)
지역	도시	7.6	92.4	.0	14.3	28.6	23.8	33.3	3.72(1.14)
	농촌	5.7	94.3	9.1	.0	63.6	18.2	9.1	3.16(0.90)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6.9	93.1	3.8	3.8	42.3	23.1	26.9	3.64(1.08)
	평균소득 100% 이상	4.8	95.2	0.0	66.7	0.0	33.3	0.0	2.67(1.09)
전체	6.7	93.3	3.4	10.3	37.9	24.1	24.1	3.53(1.08)	

\* 노인돌봄서비스는 60세 이상 노인인구만을 대상으로 분석

## ②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요 분석결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일자리 수요 분석을 위해 이용의향을 조사한 결과, 전라북도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72.3%였다. 성별로는 여자 장애인보다는 남자장애인이 다소 높았고, 연령대에서는 40대 미만의 청년층 장애인이 노년층 장애인보다도 상대적으로 욕구가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도시보다는 자원이 부족한 농촌 지역이 높았다.

〈표Ⅳ-49〉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의향 및 비용지불의사

구분		이용의사					비용지불의사	
		전혀 이용하고 싶지 않다	이용하고 싶지 않다	이용하고 싶다	매우 이용하고 싶다	M(SD)	없음	있음
성별	남자	7.4	14.8	11.1	66.7	3.33(1.03)	75.0	25.0
	여자	29.6	3.7	22.2	44.4	2.83(1.29)	94.7	5.3
연령	40세 미만			33.3	66.7	3.67(0.48)	100.0	0.0
	40-50세 미만	12.5	12.5	25.0	50.0	3.12(1.17)	75.0	25.0
	50-60세 미만	5.3	21.1	5.3	68.4	3.31(1.06)	87.5	12.5
	60-70세 미만	75.0			25.0	1.84(1.44)	80.0	20.0
	70세 이상	40.0	20.0	20.0	20.0	2.35(1.34)	75.0	25.0
지역	도시	25.9	18.5	7.4	48.1	275(1.32)	92.3	7.7
	농촌	10.3	3.4	24.1	62.1	339(0.96)	83.3	16.7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20.4	12.2	18.4	49.0	295(1.21)	87.5	12.5
	평균소득 100% 이상						-	
전체		18.5	9.3	16.7	55.6	3.08(1.18)	87.1	12.9

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등록장애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

한편,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수요와 일자리 수요를 추정해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의사는 전체 장애인의 72.3%가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극적 수요에 해당하는 비용지불의사는 12.9%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에 기초할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수요는 최소 4.8만명에서 최대 5.2천명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추정치에 근거해서 필요한 일자리 수를 전망해 보면, 최소 3.2천명에서 최대 3.4천명 정도이다.

2014년 기준 전라북도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자가 약 2천명인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수요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표Ⅳ-50〉 전라북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요 및 인력전망

		전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6~64세 장애인 인구		71,473	21,006	10,602	12,147	5,479	4,134	4,910	4,098	1,253	1,191	1,084	1,466	1,347	2,756	2,661
수요 추정	최대	51,675	15,187	7,665	8,782	3,961	2,989	3,550	2,963	906	861	784	1,060	974	1,993	1,924
	최소	48,173	14,158	7,146	8,187	3,693	2,786	3,309	2,762	845	803	731	988	908	1,858	1,794
인력 전망	최대	34,450	10,125	5,110	5,855	2,641	1,993	2,367	1,975	604	574	522	707	649	1,328	1,283
	최소	32,115	9,439	4,764	5,458	2,462	1,858	2,206	1,841	563	535	487	659	605	1,238	1,196

물론 수요기준을 도내 장애인 1급과 2급으로 한정할 경우 최대 이용수요는 13,087명 정도로 추정되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약 8,7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전라북도 자체예산으로 120명의 1-2급 장애인에게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술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수요에 비추어 보면 지원되고 있는 대상이나 지원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경험율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이용경험율은 28.3%였다. 이용경험은 남자장애인보다는 여자장애인이 높았고, 도시보다는 농촌 장애인의 이용경험이 더 높았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만족도는 그저그렇다를 제외하고는 약 20%정도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51〉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바우처사업 이용율 및 만족도

구분	이용경험		만족도						
	이용	미이용	매우 불만	대체로 불만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M(SD)	
성별	남자	15.8	84.2	16.7	0.0	66.7	0.0	16.7	3.20(1.24)
	여자	33.3	66.7	33.3	6.7	6.7	53.3	0.0	2.89(1.42)
연령	40세 미만	50.0	50.0	50.0	0.0	0.0	50.0	0.0	2.50(1.58)
	40-50세 미만	0.0	100.0	0.0	0.0	100.0	0.0	0.0	3.00(-)
	50-60세 미만	30.0	70.0	0.0	16.7	16.7	50.0	16.7	3.92(0.96)
	60-70세 미만	33.3	66.7	33.3	0.0	66.7	0.0	0.0	2.57(1.00)
	70세 이상	16.7	83.3	0.0	0.0	100.0	0.0	0.0	3.48(1.20)
지역	도시	25.0	75.0	0.0	0.0	40.0	60.0	0.0	3.62(0.61)
	농촌	33.3	66.7	37.5	6.3	18.8	31.3	6.3	2.72(1.48)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20.5	79.5	40.0	6.7	33.3	20.0	0.0	2.43(1.30)
	평균소득 100% 이상	0.0	0.0	0.0	0.0	0.0	0.0	0.0	-
	전체	28.3	71.7	40.0	6.7	33.3	20.0	.0	2.97(1.35)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분석

### ③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수요 분석결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의 수요분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서비스의 주된 수요자인 임신부의 규모추정과 함께 임신부의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가 분석되어야 한다. 하지만 표본수의 부족으로 인해 임신부를 직접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조사를 통한 수요추정이 불가피하다.

전라북도의 경우 출생아 수는 2013년 현재 약 15,662명으로 전주와 군산, 익산 등 도시권 출생아 수가 10,860명으로 전체 출생아수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표Ⅳ-52〉 전라북도 0세 아동수 추이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
전체	24,934	21,991	19,022	18,243	17,082	15,617	15,449	7,111	15,878	15,233	16,100	6,175	15,662
전주	8,834	7,730	6,682	6,470	6,136	5,723	5,608	6,165	5,853	5,422	5,762	5,852	5,730
군산	3,731	3,315	2,731	2,624	2,522	2,269	2,292	2,513	2,324	2,446	2,566	2,650	2,622
익산	4,535	4,031	3,574	3,468	3,150	2,874	2,772	3,013	2,723	2,498	2,631	2,594	2,508
정읍	1,674	1,431	1,316	1,181	1,090	954	880	1,005	851	811	912	886	829
남원	1,179	1,136	951	929	840	737	708	745	706	609	681	671	616
김제	1,153	1,001	880	811	781	682	730	763	679	710	681	698	629
완주	1,068	965	929	917	860	793	875	909	877	928	994	1,011	937
진안	299	242	213	196	172	163	176	269	283	278	325	278	282
무주	239	205	178	180	180	179	192	226	206	204	181	198	200
장수	259	231	170	178	176	180	156	198	207	158	186	188	174
임실	304	267	219	226	191	173	179	239	266	257	246	230	226
순창	311	289	228	231	183	211	201	278	223	226	223	216	201
고창	639	566	461	377	385	326	346	385	341	337	346	353	339
부안	709	582	490	455	416	353	334	403	339	349	366	350	339

자료 : 전라북도(2013) 주민등록통계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는 실제 수요에 해당하는 임신부에 대한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 보건사회연구원의 유망사회서비스 수요조사(2012)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잠재수요와 인력수요를 추정하였다. 전라북도의 0세 인구를 기준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서비스의 소득기준인 월평균 소득 50%로 소득기준에 부합한 대상을 추정할 경우 약 6,680명 정도이다. 이 중 보건사회연구원의 수요조사시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의 이용의향은 전체 산모의 약 63.1%로 조사되어, 이 같은 분석결과를 전라북도에 적용할 경우 최소 4,215명에서 최대 10,206명으로 추정된다.

〈표Ⅳ-53〉 전라북도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수요추정

		전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0세 인구		16,175	,852	2,650	2,594	886	671	698	1,011	278	198	188	230	216	353	350
월평균 소득 50%		6,680	2,417	1,094	1,071	366	277	288	418	115	82	78	95	89	146	145
수요추정	최대	10,206	3,693	1,672	1,637	559	423	440	638	175	125	119	145	136	223	221
	최소	4,215	1,525	690	676	231	175	182	264	73	52	49	60	56	92	91
인력전망	최대	1,546	559	253	248	85	64	67	97	27	19	18	22	19	32	32
	최소	639	231	105	102	35	26	28	40	11	8	7	9	9	14	14

전라북도의 경우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2014년 기준 2,989명에게 지원되고 있어 최소 수요 기준으로도 현재보다도 약 1.5배정도의 추가수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수요를 기준으로 향후 필요한 인력을 전망해 보면, 최소 639명에서 최대 1,546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의 제공인력이 297명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인력전망으로도 현재보다도 약 두배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의 경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서비스의 대부분의 수요가 전주와 군산, 익산 등 3개 도시에 약 70%가 집중되어 있어 지원기관도 대부분 이들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서비스의 제공기관은 9개소이지만 한편, 전라북도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사업의 이용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중 1.9%만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만족도는 24.7%였다.

〈표Ⅳ-54〉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사업 이용 및 만족도

구분		이용경험		만족도					M(SD)
		이용	미이용	매우 불만	대체로 불만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성별	남자	1.7	98.3	0.0	0.0	64.7	32.4	2.9	3.39(0.56)
	여자	2.0	98.0	12.2	2.4	68.3	14.6	2.4	2.95(0.88)
연령	40세 미만	3.0	97.0	11.9	0.0	50.0	38.1	0.0	3.15(0.92)
	40-50세 미만	1.3	98.7	0.0	0.0	83.3	8.3	8.3	3.29(0.66)
	50-60세 미만	1.1	98.9	0.0	0.0	90.0	0.0	10.0	3.25(0.69)
	60-70세 미만	0.6	99.4	0.0	14.3	85.7	0.0	0.0	2.87(0.36)
	70세 이상	0.6	99.4	0.0	0.0	100.0	0.0	0.0	2.96(0.39)
지역	도시	0.4	99.6	0.0	14.3	85.7	0.0	0.0	2.95(0.39)
	농촌	4.5	95.5	7.4	0.0	64.7	25.0	2.9	3.18(0.81)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2.2	97.8	7.0	1.4	66.2	23.9	1.4	3.12(0.77)
	평균소득 100% 이상	0.4	99.6	0.0	0.0	100.0	0.0	0.0	3.00(0.00)
전체		1.9	98.1	6.8	1.4	67.1	23.3	1.4	3.12(0.75)

#### ④ 가사간병서비스 일자리수요 분석결과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는 이용의사가 14.5%였고, 비용지불의사는 13.7%였다. 이용의향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높았고, 연령대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가사간병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그리고 농촌보다는 도시지역, 소득기준에서는 생계비 120%이하 계층이 최저생계비 120% 이상 계층보다 수요가 더욱 높았다.

이 같은 수요분석을 근거로 이용수요를 추정해 보면, 가사간병서비스 이용자 수요는 최소 107,551명에서 최대 236,921명으로 추정된다.

〈표Ⅳ-55〉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서비스

구분		이용의사				M(SD)	비용지불의사	
		전혀 이용하고 싶지않다	이용하고 싶지않다	이용하고 싶다	매우 이용하고 싶다		없음	있음
성별	남자	66.5	22.7	8.3	2.5	1.46(0.75)	83.8	16.2
	여자	71.6	13.7	13.0	1.6	1.44(0.77)	88.3	11.7
연령	40세 미만	76.8	16.7	6.5	0.0	1.29(0.58)	89.8	10.2
	40-50세 미만	76.9	16.9	4.4	1.8	1.30(0.63)	87.7	12.3
	50-60세 미만	60.2	23.7	10.5	5.6	1.61(0.89)	78.2	21.8
	60-70세 미만	63.5	15.3	17.6	3.5	1.60(0.89)	81.5	18.5
	70세 이상	47.0	22.3	27.1	3.6	1.87(0.93)	91.7	8.3
지역	도시	65.4	20.6	11.8	2.2	1.50(0.78)	86.2	13.8
	농촌	75.4	14.5	8.3	1.7	1.36(0.71)	87.3	12.7
소득	생계비 120% 이하	60.6	22.1	14.1	3.2	1.45(0.78)	87.5	12.5
	생계비 120% 이상	73.2	16.3	8.9	1.5	1.40(0.64)	86.2	13.8
전체		69.6	15.9	12.5	2.0	1.44(0.76)	86.3	13.7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라북도 전체 인구 중 소득기준 차상위 120%의 인구는 약 62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가사간병서비스의 경우 제도적으로 차상위계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기준 차상위 인구인 62만명을 기준으로 수요와 일자리를 추정할 경우 그 수요가 과대하게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전라북도의 제도적 차상위 인구를 기준으로 가사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수요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기준만으로 차상위 계층 대상 가사간병 서비스의 수요를 추정할 경우 최소 1.4만명에서 최대 3.2만명으로 예상되지만 제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최소 2.2천명에서 최대 3.1천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Ⅳ-56〉 전라북도 가사간병서비스 인력수요 추정

구분	전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체 인구	1,895,371	654,040	282,762	310,206	121,234	87,797	93,970	88,101	27,253	25,510	23,490	30,264	30,343	61,048	59,353	
차상위 120%	소득 기준	621,682	214,525	92,746	101,748	39,765	28,797	30,822	28,897	8,939	8,367	7,705	9,927	9,953	20,024	19,468
	제도 기준	18,126	4,737	843	3,011	863	826	1,450	1,405	380	520	703	594	360	1,504	930
수요 (소득)	최대	32,458	11,200	4,842	5,312	2,076	1,504	1,609	1,509	467	437	402	518	520	520	1,045
	최소	14,734	5,084	2,198	2,411	942	683	730	685	212	198	183	235	236	475	461
수요 (제도)	최대	3136	820	146	521	149	143	251	243	66	90	122	103	62	260	161
	최소	2266	592	105	376	108	103	181	176	48	65	88	74	45	188	116
일자리 전망 (소득)	최대	12,983	4,480	1,937	2,125	830	601	644	604	187	175	161	207	208	208	418
	최소	5,193	1,792	775	850	332	241	257	241	75	70	64	83	83	83	167
일자리 전망 (제도)	최대	1120	293	52	186	53	51	90	87	23	32	43	37	22	93	57
	최소	809	211	38	134	39	37	65	63	17	23	31	27	16	67	42

이 같은 수요치를 기준으로 가사간병서비스의 일자리를 전망해 보면, 소득기준으로 관련 분야의 일자리는 최소 5.2천개에서 최대 1.3만개가 되지만 제도 기준으로 일자리를 전망할 경우 최소 809개에서 최대 1,120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사간병서비스의 제공인력이 2014년 기준으로 397개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보다도 최소 기준으로 약 두배 이상의 일자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사간병서비스의 이용경험율은 1.9%정도이고, 이용한 조사대상자의 이용만족도는 약 19.0%정도이다.

〈표Ⅳ-57〉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바우처사업 이용율 및 만족도

구분	이용경험			만족도					
	이용	미이용	매우 불만	대체로 불만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M(SD)	
성별	남자	1.3	98.3	0.0	0.0	84.6	11.5	3.8	3.17(0.53)
	여자	2.0	98.0	0.0	8.3	72.2	11.1	8.3	3.22(0.73)
연령	40세 미만	0.7	99.3	0.0	0.0	100.0	0.0	0.0	3.00(0.00)
	40-50세 미만	2.2	97.8	0.0	0.0	88.9	11.1	0.0	3.13(0.35)
	50-60세 미만	2.2	97.8	0.0	7.7	69.2	0.0	23.1	3.38(1.01)
	60-70세 미만	3.5	96.5	0.0	9.1	54.5	36.4	0.0	3.25(0.66)
	70세 이상	3.5	96.5	0.0	11.1	55.6	22.2	11.1	3.42(0.91)
지역	도시	1.5	98.5	0.0	20.0	26.7	33.3	20.0	3.47(1.05)
	농촌	2.4	97.6	0.0	0.0	91.7	4.2	4.2	3.13(0.46)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2.2	97.8	0.0	5.2	77.6	12.1	5.2	3.17(0.62)
	평균소득 100% 이상	0.4	99.6	0.0	0.0	100.0	0.0	0.0	3.00(0.00)
전체	1.9	98.1	0.0	4.8	76.2	11.1	7.9	3.17(0.61)	

## 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자리 수요 분석결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이 명확한 다른 바우처사업과 달리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어 그 수요를 추정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다. 다만,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한 개의 사업단 위로 상정하여 관련 수요를 추정할 경우, 현재 전라북도 도민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의향율은 11.5%이고, 적극적 수요에 해당하는 비용지불의사는 10.0%였다. 전라북도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욕구는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높았고, 연령대에서는 고령층보다는 청장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서 수요가 높았다.

〈표Ⅳ-5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의향 및 비용지불의사

구분	이용의사					비용지불의사		
	전혀 이용하고 싶지 않다	이용하고 싶지 않다	이용하고 싶다	매우 이용하고 싶다	M(SD)	없음	있음	
성별	남자	65.4	21.6	12.2	.8	1.48(0.73)	80.8	19.2
	여자	75.1	14.5	8.6	1.7	1.36(0.71)	96.4	3.6
연령	40세 미만	74.1	12.1	13.0	.8	1.40(0.74)	91.9	8.1
	40-50세 미만	71.6	16.4	9.8	2.2	1.42(0.75)	86.5	13.5
	50-60세 미만	61.4	27.7	9.4	1.5	1.42(0.75)	80.6	19.4
	60-70세 미만	69.2	21.9	7.7	1.2	1.51(0.73)	93.8	6.3
	70세 이상	66.9	25.3	6.6	1.2	1.41(0.69)	98.1	1.9
지역	도시	69.3	20.2	9.4	1.1	1.42(0.70)	92.1	7.9
	농촌	71.3	14.8	12.5	1.5	1.44(0.76)	87.3	12.7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70.3	16.5	11.9	1.3	1.44(0.74)	90.5	9.5
	평균소득 100% 이상	74.0	23.8	1.8	.4	1.29(0.53)	90.2	9.8
	전체	70.9	17.6	10.4	1.1	1.41(0.72)	90.0	10.0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용자수를 추정해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이용자는 최소 21.5만명에서 최대 24.7만명으로 추정되고, 비용지불의사를 기준으로 수요를 추정할 경우 최소 2만명에서 최대 2.1만명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필요한 일자리 수요는 최소 1.3천명에서 최대 1.4천명으로 추정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주된 서비스 대상자가 평균소득 100%이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서비스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서는 바우처 이용자 이외 일반 이용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에 따라서는 이용자 수가 확대될 수 있다.



〈표Ⅳ-59〉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 수요추정 및 인력수요전망

		전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체 인구		1,873,341	648,863	278,341	306,469	119,392	87,000	92,317	86,164	26,963	25,321	23,191	29,966	30,055	60,440	58,869
일반 수요	최대	215434	74619	32009	35244	13730	10005	10616	9909	3101	2912	2667	3445	3456	6951	6770
	최소	247281	85650	36741	40454	15760	11484	12186	11374	3559	3342	3061	3954	3967	7978	7771
일반인력 전망	최대	14362	4975	2134	2350	915	667	708	661	207	194	178	230	230	463	451
	최소	16485	5710	2449	2697	1051	766	812	758	237	223	204	264	264	532	518
표적 수요	최대	2,1543	7462	3201	3524	1373	1001	1062	991	310	291	267	344	346	695	677
	최소	2,0466	7089	3041	3348	1304	950	1009	941	295	277	253	327	328	660	643
표적수요 인력전망	최대	1,436	497	213	235	92	67	71	66	21	19	18	23	23	46	45
	최소	1,364	473	203	223	87	63	67	63	20	18	17	22	22	44	43

주1. 일반수요는 이용의사 기준

전라북도의 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용자가 2014년 기준으로 7,487명이고 그에 따른 제공인력이 884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지불의사가 있는 표적수요로 인력전망을 추정할 필요인력 기준으로 현재보다도 약 1.5배 정도의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사업내용과 품질에 따라 이용수요는 더욱 확대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일자리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이용자수요와 일자리 수요는 한계가 있다.

한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도민은 1.1%정도에 불과했고, 이용한 도민의 이용만족도는 23.8%였다.

〈표Ⅳ-6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율 및 만족도

구분	이용경험		만족도						
	이용	미이용	매우 불만	대체로 불만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M(SD)	
성별	남자	1.3	98.7	0.0	0.0	73.3	23.3	3.3	3.31(0.55)
	여자	2.4	97.6	0.0	2.9	74.3	20.0	2.9	3.23(0.56)
연령	40세 미만	0.7	99.3	0.0	0.0	80.8	19.2	0.0	3.19(0.40)
	40-50세 미만	2.6	97.4	0.0	0.0	47.1	52.9	0.0	3.52(0.51)
	50-60세 미만	0.4	99.6	0.0	0.0	90.0	0.0	10.0	3.25(0.69)
	60-70세 미만	0.6	99.4	0.0	12.5	75.0	0.0	12.5	3.11(0.80)
	70세 이상	1.2	98.8	0.0	.0	83.3	16.7	.0	3.11(0.62)
지역	도시	0.7	99.3	0.0	7.7	30.8	53.8	7.7	3.63(0.76)
	농촌	1.7	98.3	0.0	0.0	84.6	13.5	1.9	3.17(0.45)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1.1	98.9	0.0	1.6	73.8	23.0	1.6	3.24(0.51)
	평균소득 100% 이상	0.4	99.6	0.0	0.0	100.0	0.0	0.0	3.00(0.00)
전체	1.1	98.9	0.0	1.6	74.6	22.2	1.6	3.24(0.51)	

## ⑥ 장애인동 재활치료사업 수요 분석결과

장애인동재활 치료서비스는 의용의향율이 63.0%였고, 비용지불의사는 25.0%로 나타났다. 장애인동재활치료서비스의 이용수요를 추정해 보면, 최소 2,061명에서 최대 2,479명이고, 이를 기준으로 필요한 인력수를 추정해 보면, 최대 294명에서 최대 354명으로 추정된다.

〈표Ⅳ-61〉 장애인동 재활치료사업 이용의향 및 비용지불의사

구분		이용의사					비용지불의사	
		전혀 이용하고 싶지않다	이용하고 싶지않다	이용하고 싶다	매우 이용하고 싶다	M(SD)	없음	있음
성별	남자	3.7	48.1	7.4	40.7	1.90(1.11)	64.3	35.7
	여자	7.4	14.8	55.6	22.2	2.82(1.11)	90.0	10.0
지역	도시	7.4	33.3	33.3	25.9	2.20(1.29)	60.0	40.0
	농촌	3.6	28.6	28.6	39.3	2.32(1.18)	85.7	14.3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6.3	31.3	25.0	37.5	2.44(1.19)	77.3	22.7
	평균소득 100% 이상	-	-	-	-	-	-	-
	전체	5.6	31.5	31.5	31.5	2.83(1.24)	75.0	25.0

주. 장애인동재활치료서비스는 등록장애인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

2014년 기준 전라북도의 장애인동 재활치료사업 이용자가 2,025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용수는 현재의 이용자보다 근소한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일자리 수요도 현재의 제공인력을 기준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Ⅳ-62〉 장애인동 재활치료사업 수요 및 인력전망

	연령	전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인구 구성	0-4세	190	73	26	38	9	10	4	16	4	1	2	2		3	2	
	5-9세	799	277	120	165	48	41	33	43	4	7	10	11	4	19	17	
	10-14세	1,305	432	183	222	100	83	67	72	16	18	12	14	20	35	31	
	15-19세	1,641	549	227	276	109	93	102	97	21	24	11	25	20	41	46	
소득 구분	전체	3,935	1,331	556	701	266	227	206	228	45	50	35	52	44	98	96	
	평균소득 100%이하	3,297	1,115	466	587	223	190	173	191	38	42	29	44	37	82	80	
수요 추정	전체이용 수요(37.1)	최대	2479	839	350	442	168	143	130	144	28	32	22	33	28	62	60
	평균소득 100%이하 수요(37.9)	최소	2061	697	291	367	139	119	108	119	24	26	18	28	23	51	50
인력 전망	7:1	최대	354	120	50	63	24	20	19	21	4	5	3	5	4	9	9
	7:1	최소	294	100	42	52	20	17	15	17	3	4	3	4	3	7	7

###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인력 수요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인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라북도 거주 여성 약 87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관련 욕구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전라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미참여자 중 참여의향이 있는 여성은 60.5%였고, 이들이 원하는 고용형태는 상용직이 6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간제 20.1%, 계약직 16.6% 등이었다.

성별로는 30세 미만보다는 30세 이상의 중년 여성에서 경제활동참여의향이 높았고, 도시 보다는 농촌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중졸 여성과 대졸 이상의 학력에서 경제활동참여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라북도 비경제활동참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욕구는 30세 이상의 중년여성, 농촌여성 그리고 중졸이상의 학력이 다른 계층보다도 더 높았다. 여기게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시간제나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 직보다는 상용직과 같은 정규직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제활동 참여 희망자 중 원하는 고용형태는 도시지역 여성의 경우 상용직을 선호하는 반면 농촌여성은 시간제 고용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Ⅳ-63〉 경제활동참여의향 및 원하는 고용형태

구분		경제활동참여의향		원하는 고용형태(N=233)			
		있음	없음	상용직	시간제	계약직	일용직
성별	30세 미만	14.6	85.4	23.1	3.8	73.1	0.0
	30-40세 미만	76.2	23.8	64.0	18.9	17.1	0.0
	40-50세 미만	70.3	29.7	64.5	21.1	9.0	5.4
	50-60세 미만	41.8	58.2	53.9	27.5	12.7	5.9
연령	도시	54.1	45.9	70.7	14.9	12.7	1.7
	농촌	71.4	28.6	36.8	33.2	26.4	3.6
지역	소득 1분위	63.6	36.4	46.2	11.5	34.6	7.7
	소득 2분위	62.4	37.6	37.3	44.5	15.5	2.7
	소득 3분위	49.1	50.9	55.6	31.0	11.7	1.8
	소득 4분위	84.7	15.3	79.6	2.8	16.6	0.9
	소득 5분위	53.7	46.3	63.2	17.0	18.9	0.9
학력	무학	30.8	69.2	57.1	14.3	.0	28.6
	초졸	40.0	60.0	36.4	9.1	45.5	9.1
	중졸	89.1	10.9	53.2	27.4	16.1	3.2
	고졸	55.6	44.4	61.5	27.0	9.4	2.1
	대졸 이상	63.3	36.7	64.3	10.9	23.6	1.2
전체		60.5(233)	39.5(153)	61.0	20.1	16.6	2.2

〈표Ⅳ-64〉 경제활동 참여희망자의 희망업종

구분		교육상담	행정지원	서비스 (식당 등)	생산직 (공장)	복지 서비스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출판 통신업
성별	30세 미만	61.9	4.8		23.8	4.8			4.8
	30-40세 미만	22.8	16.4	23.3	14.3	20.6	2.6		.0
	40-50세 미만	11.1	11.1	29.6	9.9	23.5	8.6	3.7	2.5
	50-60세 미만	8.2	16.4	23.0	4.9	47.5			
연령	도시	27.5	18.3	22.7	10.9	14.8	3.1	1.3	1.3
	농촌	6.5	8.1	24.2	14.5	42.7	4.0		
지역	소득 1분위	13.3	16.7	13.3	40.0	16.7			
	소득 2분위	11.6	5.8	41.9	1.2	32.6	5.8		1.2
	소득 3분위	18.2	11.4	22.7	27.3	18.2			2.3
	소득 4분위	34.2	18.4	9.2	.0	34.2		3.9	
	소득 5분위	26.8	30.4	16.1	1.8	12.5	12.5		
소득	무학		20.0	40.0	20.0	20.0			.0
	초졸	.0	50.0	33.3	.0	16.7			
	중졸	27.7	2.1	4.3	12.8	51.1			2.1
	고졸	9.2	13.3	35.4	19.0	19.5	2.6		1.0
	대졸	36.7	22.4	7.1		23.5	7.1	3.1	
대학원 졸업 이상		75.0		25.0					
전체		19.9	14.5	23.3	12.2	25.0	3.4	.9	.9

경제활동을 원하는 여성이 일하고 싶은 분야로는 복지서비스직이 2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식당 등 서비스직이 23.3%, 교육상담직 19.9%, 행정지원 14.5% 등의 순이었다. 희망하는 급여수준으로는 150만원~200만원 미만이 2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0-149만원 미만 26.9%, 200-249만원 19.5% 등의 순이었다.

〈표Ⅳ-65〉 경제활동 참여희망자의 희망업종

구분		100만원미만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249만원	250-299만원	300만원이상
성별	30세 미만	7.4	14.8	25.9	48.1	3.7	0.0
	30-40세 미만	12.4	26.7	31.9	19.2	2.3	7.5
	40-50세 미만	13.5	30.2	28.1	15.6	1.0	11.5
	50-60세 미만	17.9	25.2	23.6	19.5	2.4	11.4
연령	도시	12.2	24.3	29.5	23.8	0.6	9.8
	농촌	16.0	32.5	29.6	9.9	5.3	6.6
지역	소득 1분위	21.3	41.0	27.9	4.9	0.0	4.9
	소득 2분위	8.5	51.3	32.5	6.8	0.9	0.0
	소득 3분위	23.1	31.2	34.9	4.8	0.5	5.4
	소득 4분위	2.1	22.3	32.6	37.3	3.4	2.1
	소득 5분위	16.5	6.3	19.0	25.3	0.6	32.3
소득	무학	33.3	33.3	33.3	0.0	0.0	0.0
	초졸	16.7	66.7	16.7	0.0	0.0	0.0
	중졸	11.9	31.3	47.8	6.0	1.5	1.5
	고졸	18.1	26.1	36.8	11.5	.8	6.7
	대졸	7.6	25.0	17.4	32.9	3.5	13.6
대학원 졸업 이상		0.0	50.0	16.7	33.3	0.0	0.0
전체		13.3	26.9	29.5	19.5	1.9	8.8

〈표Ⅳ-66〉 여성복지분야 복지수요

구분		직업훈련 취업알선	문화활동 여가활동	건강교실 체육교실	사회교육	자원봉사	상담 서비스	가정폭력 성폭력치유	기타
지역	30세 미만	28.2	16.5	50.6					4.7
	30-40세 미만	28.0	38.1	13.9	5.8	7.1	7.1		.0
	40-50세 미만	23.9	41.3	16.5	8.3	2.6	3.9	1.7	1.7
	50-60세 미만	13.7	38.9	27.0	11.5	2.7	1.8	.9	3.5
지역	도시	26.0	36.8	15.5	7.4	5.3	6.1	.7	2.1
	농촌	20.6	37.8	28.7	6.2	3.5	2.4	.5	.3
소득	소득 1분위	35.0	20.0	30.0	4.0	1.0	3.0	1.0	6.0
	소득 2분위	21.8	26.7	38.3	7.8	.5	4.4	.5	
	소득 3분위	28.8	41.6	13.5	12.7	.7	.7	1.5	.4
	소득 4분위	17.1	52.3	14.3	2.3	12.4	1.2		.4
	소득 5분위	22.3	31.6	16.0	5.8	4.4	15.5	.5	3.9
무학	무학	21.4	14.3	7.1	.0	42.9			14.3
	초졸	25.9	29.6	25.9	14.8			3.7	.0
	중졸	22.5	42.7	25.8	3.4		2.2		3.4
	고졸	21.1	41.5	26.5	5.0	1.5	3.0	.7	.7
	대졸	29.3	31.0	9.7	10.2	9.2	8.7	.3	1.8
	대학원 졸		71.4	28.6					
	전체	24.1	37.2	20.1	7.1	4.7	4.7	.6	1.5

다음으로 여성복지분야의 복지수요 중에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대한 수요는 24.1%로 문화활동 및 여가활동에 이어 가장 높게 나타나 취업에 대한 욕구가 여성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라북도의 여성들은 사회서비스직 구직시 근무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고용안정성 97.2%, 근무환경 97.2%, 직장상사의 이해정도 96.5% 등의 순이었다.

〈표Ⅳ-67〉 사회복지서비스직 구직 희망자의 직업선택시 고려사항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㉑	중요하지 않다 ㉒	보통이다	중요하다 ㉓	매우 중요하다 ㉔	중요하지 않다 (a+b)	중요하다 (c+d)	M(SD)
임금 및 소득수준	0.0	0.0	8.3	2.8	63.7	0.0	66.5	4.55(0.64)
고용안정성	0.0	0.0	2.8	36.9	60.3	0.0	97.2	4.57(0.55)
근로환경	0.0	0.0	2.8	44.6	52.6	0.0	97.2	4.50(0.56)
개인의 업무적성	0.0	0.0	5.0	31.8	63.2	0.0	95.0	4.58(0.59)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0.0	0.0	9.9	14.7	30.3	0.0	45.0	4.11(0.99)
근무시간(정시퇴근)	0.0	0.0	0.8	23.8	75.4	0.0	99.2	4.75(0.45)
직장상사의 이해정도	0.0	0.0	3.5	32.8	63.7	0.0	96.5	4.60(0.56)

#### 4.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인력 분석결과(N=205)

다음으로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을 중심으로 근무실태와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인력의 학력은 고졸 40.5%, 대졸 28.9%, 전문대졸 16.8% 등으로 대부분 고졸학력자가 많았다. 서비스의 유형별로는 가사간병, 산모신생아도우미의 경우 대부분 고졸이었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대학원이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와 장애아동재활치료의 경우 대졸이상의 학력자가 많은 반면,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는 고졸학력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인력 중 대졸자의 전공학위는 사회복지 33.7%, 심리상담 및 언어치료 2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Ⅳ-68〉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학력

구분		고졸	대졸	전문대졸	대학원
연령	40대 이하	17.2	42.5	16.1	24.1
	50대	50.0	24.4	20.5	5.1
	60대 이상	80.0	4.0	12.0	4.0
근무 지역	도시	40.1	29.9	19.1	10.8
	농촌	43.6	25.6	7.7	23.1
기관 형태	지투사업	2.9	37.1	5.7	54.3
	가사간병·산모신생아도우미	91.3	4.3	4.3	00
	노인돌봄	46.9	27.2	25.9	.0
	장애인활동보조	45.9	32.4	16.2	5.4
	장애아동재활치료	00	50.0	14.3	35.7
전체		40.5	28.9	16.8	13.7

〈표Ⅳ-69〉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전공학위

구분		특수 교육	재활 관련	심리상담 언어치료	예술 치료	아동 청소년	유아 교육	사회 복지	예체능	기타
연령	40대 이하	3.3	6.7	26.7	5.0	1.7	8.3	25	10	11.7
	50대	.0	.0	14.3	9.5	.0	9.5	61.9	.0	4.8
	60대 이상	25.0	.0	.0	.0	25	.0	25.0	25.0	.0
근무 지역	도시	4.5	3.0	16.7	3.0	3.0	10.6	43.9	1.5	12.1
	농촌	.0	10.5	42.1	15.8	.0	.0	.0	31.6	.0
기관 형태	지투사업	3.3	3.3	32.4	8.8	6.2	3.0	17.6	17.6	8.0
	가사간병·산모신생아도우미	.0	.0	100	.0	.0	.0	.0	.0	.0
	노인돌봄	3.7	.0	3.7	.0	.0	14.8	63.0	3.7	11.1
	장애인활동보조	.0	.0	22.2	.0	.0	11.1	44.4	.0	22.2
	장애아동재활치료	8.3	25.0	33.3	16.7	.0	8.3	8.3	.0	.0
전체		3.6	4.8	22.9	6.0	2.4	8.4	33.7	8.4	8.4

〈표Ⅳ-70〉 근무기간

		6개월 이하	6개월~ 1년 이하	1년~ 2년 이하	2년~ 3년 이하	3년~ 5년 이하	5년 이상
연령	40대 이하	11.5	14.9	21.8	20.7	17.2	13.8
	50대	4.9	4.9	16.0	13.6	23.5	37.0
	60대 이상	.0	.0	13.0	13.0	21.7	52.2
근무 지역	도시	6.8	8	18.5	16.0	20.4	30.2
	농촌	10.8	13.5	18.9	16.2	18.9	21.6
기관 형태	지투사업	19.4	19.4	19.4	16.7	13.9	11.1
	가사간병·산모신생아도우미	4.3	.0	8.7	4.3	47.8	34.8
	노인돌봄	4.8	6.0	13.3	18.1	15.7	42.2
	장애인활동보조	5.3	13.2	31.6	15.8	10.5	23.7
	장애아동재활치료	7.1	.0	28.6	21.4	42.9	0.0
전체		7.7	8.8	18.6	16.0	20.1	28.9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인력의 근무기간은 5년 이상이 28.9%로 가장 높았고, 3년이상 5년 미만도 20.1%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업유형별로는 노인돌봄과 가사간병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의 근무기간이 다른 사회서비스 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인력의 근무형태는 비정규직이 85.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월평균 근무시간은 108.1시간, 주당 27.2시간이었고,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인력의 현재 급여수준은 한 달 평균 92.1만원이었지만 희망급여수준은 137.9만원이었다. 서비스의 유형별로는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았고 157.2만원, 다음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1.0만원 등의 순이었다. 다만 노인돌봄서비스의 월평균 급여가 78.3만원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표Ⅳ-71〉 고용형태/평균근무시간/월급여 및 희망급여

		고용형태		평균근무시간		현재급여 (만원)	희망급여 (만원)
		정규	비정규	월	주		
연령	40대 이하	14.1	85.9	99.3	24.0	99.3	148.9
	50대	14.5	85.5	112.7	29.1	82.8	126.7
	60대 이상	15.4	84.6	105.3	28.1	89.6	133.0
근무 지역	도시	16.9	83.1	110.7	27.9	91.3	132.4
	농촌	.0	100.0	87.6	21.9	90.9	159.4
기관 형태	지투사업	20.6	79.4	75.2	17.7	101.0	171.5
	가사간병·산모신생아도우미	8.3	91.7	115.8	30.3	83.6	110.0
	노인돌봄	8.8	91.3	99.1	25.7	78.3	113.4
	장애인활동보조	21.6	78.4	149.2	36.3	98.7	157.5
	장애아동재활치료	21.4	78.6	119.3	29.8	157.2	223.1
전체		14.3	85.7	108.1	27.2	92.1	137.9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보유자격증으로는 예술치료사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언어치료사 등이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많았다. 사업형태별로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복지사와 예술치료사 자격증 소지자가 많았고, 가사간병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요양보호사, 노인돌봄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도 모두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많았다.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의 경우 예술치료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언어치료사 등이 다른 자격증보다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의 취득방법으로는 대학교 전공이 92.3%로 가장 많았고, 일반사설학원 7.7%, 지자체 위탁교육 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는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 대학전공이 83.3%, 가사간병과 노인돌봄은 일반 사설학원, 장애아동재활치료와 장애인활동지원은 대학교 전공과 위탁교육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Ⅳ-72〉 보유자격증1

구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예술치료사	언어치료사	정교사	생활체육지도사	평생교육사	컴퓨터관련
연령	40대 이하	41	38.5	1.3	3.8	29.5	9.0	5.1	1.3	1.3	7.7
	50대	24.3	82.4	0	.0	4.1	.0	2.7	.0	.0	5.4
	60대 이상	4.5	95.5	0	.0	4.5	.0	.0	.0	.0	.0
근무지역	도시	30.8	70.5	0.7	1.4	10.3	3.4	1.4	0.7	0.7	6.2
	농촌	16.7	44.4	.0	2.8	33.3	5.6	11.1	.0	.0	2.8
기관형태	지투사업	45.5	18.2	.0	6.1	48.5	9.1	9.1	.0	.0	3.0
	가사간병·산모신생아도우미	4.5	95.5	.0	.0	4.5	.0	.0	.0	4.5	4.5
	노인돌봄	29.5	88.5	.0	.0	1.3	.0	1.3	1.3	.0	6.4
	장애인활동보조	17.9	53.6	.0	.0	.0	.0	3.6	.0	.0	3.6
	장애아동재활치료	35.7	35.7	7.1	7.1	57.1	28.6	7.1	.0	.0	7.1

〈표Ⅳ-73〉 보유자격증2

구분		심리상담	문화예술교육사	건강가정사	영양사	보조공학사	간호사	생활체육지도사	기타
연령	40대 이하	15.4	3.8	3.8	2.6	2.6	3.8	1.3	19.2
	50대	9.5	.0	1.4	.0	.0	5.4	.0	29.7
	60대 이상	4.5	.0	.0	.0	.0	4.5	.0	4.5
근무지역	도시	10.3	.0	2.1	1.4	1.4	4.8	.7	21.9
	농촌	13.9	8.3	2.8	.0	.0	2.8	.0	19.4
기관형태	지투사업	36.4	9.1	9.1	6.1	.0	3.0	.0	9.1
	가사간병·산모신생아도우미	.0	.0	.0	.0	.0	4.5	.0	4.5
	노인돌봄	6.4	.0	1.3	.0	.0	6.4	1.3	16.7
	장애인활동보조	.0	.0	.0	.0	.0	.0	.0	53.6
	장애아동재활치료	21.4	.0	.0	.0	14.3	.0	.0	21.4



〈표Ⅳ-74〉 사회보험 가입 여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연령	40대 이하	76.2	23.8	84.3	15.7	91.6	8.4	76.8	23.2
	50대	93.3	6.7	87.8	12.2	87.8	12.2	83.8	16.2
	60대 이상	43.5	56.5	78.3	21.7	65.2	34.8	91.3	8.7
근무 지역	도시	86.5	13.5	88.3	11.7	85.7	14.3	87	13
	농촌	42.4	57.6	72.7	27.3	93.9	6.1	59.4	40.6
기관 형태	지투사업	45.5	54.5	57.6	42.4	78.8	21.2	34.4	65.6
	가사간병산모신생아도우미	75.0	25.0	83.3	16.7	83.3	16.7	100.0	.0
	노인돌봄	92.6	7.4	95.1	4.9	87.7	12.3	90.1	9.9
	장애인활동보조	72.7	27.3	93.5	6.5	93.5	6.5	93.5	6.5
	장애아동재활치료	100.0	.0	92.3	7.7	100.0	.0	100.0	.0
전체		78.8	21.2	86.3	13.7	87.4	12.6	82.9	17.1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사회보험 가입여부는 국민연금은 가입이 78.8%로 많고, 고용보험은 가입이 86.3%로 가장 많았다. 산재보험은 가입이 87.4%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은 가입이 82.9%로 가장 많았다.

기관형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은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제공기관이 100.0%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이 45.5%로 국민연금가입자가 가장 적었다. 고용보험 가입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95.1%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이 57.6%로 가장 적었다. 산재보험은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제공기관이 93.5%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78.8%로 가장 적었다. 건강보험 가입은 가사간병·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아동재활치료 제공기관이 100.0%로 가장 많았고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90.1%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가장 적었다. 기관형태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은 전체적으로 장애아동재활치료 제공기관의 가입률이 좋은 반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가입률은 좋지 않았다.

자격증 취득 과정 중 어려웠던 점은 시간활용문제가 46.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직업훈련비 등 경제적 비용 문제 31.0, 교육기관 부족에 따른 교통문제 14.6% 등의 순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기관형태별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은 경제적 비용문제가 36.4%로 가장 많았고, 가사간병·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제공인력은 시간활용문제가 54.5%로 많았고,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인력도 시간활용문제가 59.0%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인력은 시간활용문제가 37.5%로 가장 많았고, 장애아동재활치료 제공인력은 경제적 비용문제가 64.3%로 가장 많았다.

〈표Ⅳ-75〉 자격증 취득과정 중 어려웠던 점

		자녀양육	시간활용	경제적 비용	교육기관부족 교통문제	기타
연령	40대 이하	8.9	43.0	32.9	13.9	1.3
	50대	1.4	49.3	33.3	11.6	4.3
	60대 이상	.0	45.5	22.7	27.3	4.5
근무 지역	도시	4.3	50.4	31.7	10.8	2.9
	농촌	8.3	27.8	30.6	30.6	2.8
기관 형태	지투사업	12.1	27.3	36.4	21.2	3.0
	가사간병·산모신생아도우미	13.6	54.5	13.6	18.2	.0
	노인돌봄	.0	59.0	29.5	9.0	2.6
	장애인활동보조	8.3	37.5	25.0	20.8	8.3
	장애아동재활치료	.0	21.4	64.3	14.3	.0
전체		5.3	46.2	31.0	14.6	2.9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중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은 불만족이 61.4%로 가장 많았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만족이 96.4%로 가장 많았다.

사업형태에 따라서는 급여수준에 만족한다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51.4%, 가사간병·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가 60.0%로 많았고, 급여수준에 불만족한다는 노인돌봄서비스 70.2%, 장애인활동보조 66.6%,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64.3%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노인돌봄서비스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등의 순이었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급여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표Ⅳ-76〉 근무환경만족도 1

		급여수준만족						직장동료관계만족					
		매우 불만 (a)	불만 (b)	만족 (c)	매우 만족 (d)	a+b	c+d	매우 불만 (a)	불만 (b)	만족 (c)	매우 만족 (d)	a+b	c+d
연령	40대 이하	8.0	48.9	38.6	4.5	56.9	43.1	.0	1.1	73.9	25.0	1.1	98.9
	50대	7.4	60.5	32.1	.0	67.9	32.1	.0	5.1	83.5	11.4	5.1	94.9
	60대 이상	11.5	46.2	42.3	.0	57.7	42.3	.0	7.7	73.1	19.2	7.7	92.3
근무 지역	도시	4.2	55.2	38.2	2.4	59.4	40.6	.0	4.3	79.3	16.5	4.3	95.8
	농촌	26.3	44.7	28.9	.0	71	28.9	.0	.0	67.6	32.4	.0	100.0
기관 형태	지투사업	5.7	42.9	45.7	5.7	48.6	51.4	.0	5.9	58.8	35.3	5.9	94.1
	가사간병· 산모신생아도우미	.0	40.0	60.0	.0	40.0	60.0	.0	.0	92.0	8.0	.0	100.0
	노인돌봄	1.2	69.0	29.8	.0	70.2	29.8	.0	3.6	79.8	16.7	3.6	96.5
	장애인활동보조	25.6	41.0	33.3	.0	66.6	33.3	.0	5.3	78.9	15.8	5.3	94.7
	장애아동재활치료	28.6	35.7	28.6	7.1	64.3	35.7	.0	.0	78.6	21.4	.0	100
전체		8.6	52.8	37.1	1.5	61.4	38.6	.0	3.6	77.4	19.0	3.6	96.4

〈표Ⅳ-77〉 근무환경만족도 2

		서비스 대상자 관계 만족						기관 운영방식 만족					
		매우 불만 (a)	불만 (b)	만족 (c)	매우 만족 (d)	a+b	c+d	매우 불만 (a)	불만 (b)	만족 (c)	매우 만족 (d)	a+b	c+d
연령	40대 이하	.0	2.3	80.7	17.0	2.3	97.7	.0	6.8	85.2	8.0	6.8	93.2
	50대	.0	7.5	75.0	17.5	7.5	92.5	.0	7.5	81.3	11.3	7.5	92.6
	60대 이상	.0	3.8	76.9	19.2	3.8	96.1	.0	7.7	84.6	7.7	7.7	92.3
근무 지역	도시	.0	5.5	77.6	17.0	5.5	94.6	.0	8.5	83.6	7.9	8.5	91.5
	농촌	.0	.0	81.1	18.9	.0	100.0	.0	.0	81.1	18.9	.0	100.0
기관 형태	지투사업	.0	.0	79.4	20.6	.0	100.0	.0	14.7	70.6	14.7	14.7	85.3
	가사간병 산모신생아도우미	.0	.0	92.0	8.0	.0	100.0	.0	4.0	88.0	8.0	4.0	96.0
	노인돌봄	.0	4.8	76.2	19.0	4.8	95.2	.0	7.1	85.7	7.1	7.1	92.8
	장애인활동보조	.0	12.8	69.2	17.9	12.8	87.1	.0	5.1	79.5	15.4	5.1	94.9
	장애아동재활치료	.0	.0	85.7	14.3	.0	100.0	.0	.0	100.0	.0	.0	100
전체	.0	4.6	78.1	17.3	4.6	95.4	.0	7.1	83.2	9.7	7.1	92.9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중 서비스 대상자와의 관계는 만족이 95.4%로 가장 많았고, 기관 운영방식에 대한 만족은 92.9%로 가장 많았다.

기관형태에 따라서 서비스 대상자와의 관계에 만족한다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의 경우 만족한다가 100.0%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만족이 87.1%로 가장 낮았다. 기관 운영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가 만족이 100.0%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만족은 85.3%로 가장 적었다.

〈표Ⅳ-78〉 근무환경만족도 3

		제공서비스 시간 만족						일에 대한 보람					
		매우 불만 (a)	불만 (b)	만족 (c)	매우 만족 (d)	a+b	c+d	매우 불만 (a)	불만 (b)	만족 (c)	매우 만족 (d)	a+b	c+d
연령	40대 이하	.0	15.9	77.3	6.8	15.9	84.1	.0	3.4	76.1	20.5	3.4	96.6
	50대	1.3	22.8	72.2	3.8	24.1	76	.0	6.3	70.0	23.8	6.3	93.8
	60대 이상	.0	29.2	70.8	.0	29.2	70.8	.0	.0	76.9	23.1	0	100
근무 지역	도시	.6	14.7	79.1	5.5	15.3	84.6	.0	3.6	75.2	21.2	3.6	96.4
	농촌	2.8	50.0	44.4	2.8	52.8	47.2	.0	5.4	67.6	27.0	5.4	94.6
기관 형태	지투사업	.0	8.8	82.4	8.8	8.8	91.2	.0	.0	73.5	26.5	0	100
	가사간병 산모신생아도우미	.0	25.0	62.5	12.5	25	75	.0	4.0	80.0	16.0	4	96
	노인돌봄	.0	12.0	84.3	3.6	12	87.9	.0	2.4	78.6	19.0	2.4	97.6
	장애인활동보조	2.6	52.6	44.7	.0	55.2	44.7	.0	12.8	59.0	28.2	12.8	87.2
	장애아동재활치료	7.1	21.4	71.4	.0	28.5	71.4	.0		78.6	21.4	0	100
전체	1.0	21.8	72.5	4.7	22.8	77.2	.0	4.1	74.0	21.9	4.1	95.9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중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시간은 만족이 77.2%로 가장 많았고, 일에 대한 보람은 만족이 95.9%로 가장 많았다. 사업형태에 따라서는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시간에 만족한다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91.2%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만족이 44.7%로 가장 낮았다. 일에 대한 보람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에서 만족이 100.0%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만족은 87.2%로 가장 낮았다. 취업경로에서는 주변의 소개로 인한 취업이 65.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취업연계기관의 체계적인 취로사업이 큰 효과를 보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서비스의 취업경로가 대부분 인적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취업알선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Ⅳ-79〉 자격증 취득 방법

구분		대학교 전공	일반 사설학원	관내 취업전문기관	전북/시군 위탁교육	기타
연령	40대 이하	62.8	30.8	6.4	11.5	6.4
	50대	25.0	59.7	18.1	15.3	.0
	60대 이상	8.3	45.8	20.8	25.0	.0
근무 지역	도시	36.7	49.0	14.3	12.2	2.0
	농촌	42.9	31.4	11.4	31.4	5.7
기관 형태	지투사업	83.3	25.0	11.1	.0	8.3
	가사간병산모신생아도우미	4.5	86.4	4.5	27.3	.0
	노인돌봄	26.6	59.5	16.5	8.9	1.3
	장애인활동보조	15.4	11.5	26.9	50.0	.0
	장애아동재활치료	92.3	7.7	.0	7.7	7.7

〈표Ⅳ-80〉 취업 경로

구분		읍면동 사무소	자활센터 자활사업	주변소개	직업훈련 기관	사회단체 소개	고용지원 취업정보 센터	신문 광고지	민간 알선기관	기타
연령	40대 이하	4.7	1.2	69.4	.0	2.4	12.9	3.5	.0	5.9
	50대	6.2	7.4	64.2	2.5	1.2	8.6	8.6	1.2	.0
	60대 이상	16.7	8.3	50.0	12.5	4.2	4.2	.0	.0	4.2
근무 지역	도시	8.1	4.4	61.9	2.5	2.5	10.6	5.6	.6	3.8
	농촌	.0	10.5	78.9	2.6	.0	5.3	2.6	.0	.0
기관 형태	지투사업	.0	.0	72.7	.0	3.0	21.2	.0	.0	3.0
	가사간병 산모신생아도우미	20.8	16.7	54.2	.0	.0	4.2	.0	.0	4.2
	노인돌봄	6.0	4.8	60.2	3.6	3.6	9.6	8.4	.0	3.6
	장애인활동보조	2.6	5.3	73.7	5.3	.0	7.9	2.6	2.6	.0
	장애아동재활치료	7.1	.0	71.4	.0	.0	.0	14.3	.0	7.1
전체		6.3	5.2	65.1	2.6	2.1	9.9	5.2	.5	3.1

직업선택의 동기로는 대체로 적성때문이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높았고, 기술학력 적합이라는 응답이 21.9%로 나타나 대부분 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인력은 적성과 기술의 적합성 때문에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급여인상, 수혜자 인식전환, 고용안정성 등의 순이었다.

〈표Ⅳ-81〉 직업선택 동기

		기술 학력 적합	적성	편안함	수입	안정적	시간 활용	나이에 맞는일	노력에 따른 수입	기타
연령	40대 이하	30.2	34.9	1.2	1.2	.0	27.9	4.7	.0	.0
	50대	15.9	46.3	1.2	.0	3.7	12.2	11.0	3.7	6.1
	60대 이상	12.0	28.0	.0	4.0	.0	8.0	32.0	8.0	8.0
근무 지역	도시	20.2	41.1	1.2	.6	1.8	18.4	11.0	2.5	3.1
	농촌	28.9	31.6	.0	2.6	.0	15.8	13.2	2.6	5.3
기관 형태	지투사업	44.4	38.9	.0	.0	.0	11.1	2.8	.0	2.8
	가사간병·산모신생아도우미	41.7	12.5	.0	.0	.0	20.8	16.7	8.3	.0
	노인돌봄	13.3	53.0	1.2	.0	2.4	15.7	13.3	.0	1.2
	장애인활동보조	2.6	20.5	2.6	5.1	2.6	33.3	15.4	7.7	10.3
	장애아동재활치료	35.7	42.9	.0	.0	.0	7.1	7.1	.0	7.1
	전체	21.9	38.3	1.0	1.0	1.5	18.4	11.7	2.6	3.6

마지막으로 바우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으로는 제공인력의 급여인상이 3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혜자 인식전환 23.2%, 고용안정성 21.1%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근로조건개선과 수혜자의 인식전환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Ⅳ-82〉 바우처일자리확대에 필요한 정책

		제공인력 급여인상	제공인력 전문성강화	수혜자 인식전환	제공기관 책임성강화	고용 안정성	행정기관 홍보지원	기타
연령	40대 이하	25.0	10.2	17.0	1.1	33.0	12.5	1.1
	50대	28.2	10.3	25.6	.0	10.3	23.1	2.6
	60대 이상	45.8	.0	37.5	.0	8.3	8.3	.0
근무 지역	도시	27.2	8.2	26.6	.6	17.1	18.4	1.9
	농촌	39.5	10.5	10.5	.0	34.2	5.3	.0
기관 형태	지투사업	14.3	22.9	14.3	2.9	34.3	11.4	.0
	가사간병·산모신생아도우미	62.5	.0	29.2	.0	8.3	.0	.0
	노인돌봄	13.4	6.1	34.1	.0	17.1	28.0	1.2
	장애인활동보조	62.9	5.7	11.4	.0	14.3	.0	5.7
	장애아동재활치료	28.6	14.3	.0	.0	50.0	7.1	.0
	전체	30.0	8.9	23.2	.5	21.1	14.7	1.6

〈표Ⅳ-83〉 제공사업별 조사내용 정리1

지역	제공 대상	제공사업	전공학위					근무형태		월 급여 (만원)	보유자격증		자격증취득경로	취업경로	바우처일자리 확대위해 필요한 것
			사회 복지학	심리상담 언어치료	예술 치료학	재활 관련학	유아 교육학	정규	비정규		사회복지사 컴퓨터관련자격증	예술치료사			
익산	아동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	80	예술치료사	건강가정사	관련학과 전공	주변의 소개	제공인력 급여인상	
익산	아동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	100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자격증	예술치료사	관련학과 전공 일반사설학원 교육이수	주변의 소개	제공인력 급여인상	
진안	아동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	150	예술치료사	정교사	관련학과 전공		고용안정성 강화	
부안	장애인	가시간병 서비스						●	100	요양보호사		일반사설학원 교육이수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제공인력 급여인상	
부안	장애인	가시간병 서비스						●	100	요양보호사	컴퓨터 관련자격증	일반사설학원 교육이수 도시군 위탁교육이수	주변의 소개	행정기관 홍보 및 지원	
부안	장애인	가시간병 서비스						●	100	요양보호사		일반사설학원 교육이수 도시군 위탁교육이수	주변의 소개	제공인력 급여인상	
전주	영유아	산모신생아 도우미					●		100				주변의 소개	제공인력 급여인상	
전주	노인	노인돌봄서비스	●					●	66	사회복지사 컴퓨터관련자격증	요양보호사	관련학과 전공 도시군 위탁교육이수	주변의 소개	고용안정성강화 행정기관의 홍보지원	
전주	노인	노인돌봄서비스						●	66	요양보호사		일반사설학원 교육이수	읍명동사무소 통해	수혜자 인식전환 행정기관의 홍보지원	
전주	노인	노인돌봄서비스						●	80	요양보호사		일반사설학원 교육이수	주변의 소개	수혜자 인식전환	
전주	장애인	장애인활동보조	●					●	120	사회복지사 정교사	요양보호사	관련학과 전공	주변의 소개	제공인력 급여인상 제공기관 책임성 강화	
전주	장애인	장애아동재활치료		●				●	180	언어치료사	청능사	관련학과 전공	주변의 소개	고용안정성 강화	
전주	장애인	장애아동재활치료			●			●	200	예술치료사		관련학과 전공	주변의 소개	고용안정성 강화	
전주	장애인	장애아동재활치료	●					●	80	사회복지사 예술치료사	요양보호사 심리상담 자격증	관련학과 전공	주변의 소개	제공인력 급여인상	

## 제 5 장

# 전라북도 사회서비스바우처 일자리 연계 연계방안

1.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 기준 및 현황
2.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 교육기준
3.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일자리 연계 방안





## 제 5 장 전라북도 사회서비스바우처 일자리 연계 연계방안

### 1.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 기준 및 현황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에 관한 규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시되어 있다. 동법 16조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지방 정부에 등록해야하고, 이때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기준과 인력 및 자격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인력 및 자격기준은 다시 ① 인력배치기준, ②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 기준, ③ 제공인력 자격기준으로 세분화시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사회서비스 유형으로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사회서비스의 내용을 재가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기관방문서비스, 집단활동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시설기준으로 각각의 사회서비스 내용별로 설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가령, 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는 시설 전용면적 90㎡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 1명당 6.6㎡의 생활실을 추가확보해야 한다.

〈표 V-1〉 사회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내용
재가방문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등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노인돌봄 주간보호 서비스 등 이용자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제공기관에서 보호를 받는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관방문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인지·인성 발달 지원, 사회적응 지원 및 상담·지도 등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방문하여 일정한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
집단활동서비스	돌봄여행, 체험학습 등 이용자가 집단으로 제공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활동하는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

〈표 V-2〉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시설기준

구분	시설기준
재가방문형	[노인돌봄서비스,가사간병,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
노인돌봄 주간보호	시설 전용면적 90㎡ 이상 * 이용정원 6명 이상인 경우에 1명당 6.6㎡의 생활실 추가확보
기관방문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설전용면적 33.0㎡ 이상 * 이용정원 10명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로 확보 * 놀이 및 미술치료, 맞춤형 운동처방, 정서발달지원 등
집단활동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 * 아동인지, 아동멘토링, 아동체험, 돌봄여행서비스 등

〈표 V-3〉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시설기준

		노인돌봄지원	가사간병방문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90㎡이상 시설(사무실포함)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이상시설 · 이용정원이 10명이상인 경우 1명당 3.3㎡추가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인력기준		· 제공기관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 기관장은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 제공인력 10명 (농어촌 지역은 3명)	· 제공기관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50명당 1명 추가확보) · 기관장은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 제공인력10명 (농어촌 지역 3명)	세부사업별 3명이상		
자격 기준	기관장 및 관리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 사회복지사 · 의료인(의사,한의학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 · 실무경력 2년 이상 요양보호사 · 해당 사업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장 교육과정 이수자			기관장 자격기준 적용받지 않음	
	제공인력	· 요양보호사		복지부 고시에 따른 교육과정 수료자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배치기준은 제공기관장은 1명을 배치해야 하고 관리 책임자도 1명을 배치하되 제공인력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공인력 50명당 책임자 1명씩 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제공인력의 경우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는 10명이상 두도록 하고 있지만 농촌의 경우에는 3명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는 이용자 7명당 제공인력 1명을 두도록 하고 있고, 지역사회서비스는 세부사업별로 각각 3명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공기관의 장이나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노인돌봄서비스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는 제공기관의 장이나 관리책임자의 경우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③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해당 사회서비스사업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은 가사간병과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이 가능하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만이 제공인력으로 가능하다.

〈표 V-4〉 제공인력 자격요건

	나이제한	자격증 소지여부	교육이수증
노인돌봄	-	노인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	18세 이상		필요
산모신생아	-		필요
가사간병	18세 이상	요양보호사 2급이상	
장애아동재활	-	학회 및 협회발급 치료사 또는 임상경력을 갖춘 관련학과 전공자	
언어발달지원	-	치료사/특수교육 자격증 또는 임상경력을 갖춘 관련학과 전공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별 필요한 자격요건이 다름	

장애인활동보조의 경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18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도 소정의 자격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다.

〈표 V-5〉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인력 자격요건 관련 지침

사업구분	제공인력 자격요건 지침
가사간병	(자격)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 휴·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무직가구 저소득층 여성 우선 채용 ① 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자 ② 방문도우미 신청자는 신청서와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최근 3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인 참여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5조의 2) ※ 이웃 주민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교육 면제(제공기관 자체교육으로 대체)
노인돌봄	(자격) 독거노인돌봄미로서 활동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자 1. 자격에 관한 별도 부가기준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 및 사업수행기관에서 추가 가능 (예) 요양보호사, 복지 관련 교육 이수자 등) ※ 신규 종사자 채용 시,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 등 취약계층 우선 채용 권고 ① 신체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자(건강진단서 제출)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소지자 ② 도서·벽지 지역에 대한 특례 : 시·군·구청장은 서비스 대상자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도서·벽지 지역(보건복지부 고시)에 거주하고, 해당지역 제공기관에 등록된제공인력으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자의 추천으로 이웃주민을 제공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서비스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동거자는 불인정) 이 경우 이웃 주민은 해당지역 내 제공기관 중 1개소에 제공인력으로 등록하여야 함 ※ 이웃주민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교육 면제(제공기관 자체교육으로 대체 제공기관은 모집된 인력이 서비스 제공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노인돌봄미로 등록하도록 하고 노인돌봄미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
산모신생아	(자격) 신체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자(건강진단서 제출)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서비스 제공 ※ 건강진단 필수 검사 항목 : 장티푸스, 폐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포함할 것
장애인활동지원	(자격) 활동지원 : 활동지원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①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전문과정(20시간), 현장실습(10시간) 이수한 자
장애아동재활치료	①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자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장애인복지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할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그 밖에 외국에서 취득한 관련 자격으로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료 : 이철선(2012)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구성

장애아동 재활치료의 경우 최근 제공인력과 관련한 자격요건에 변화가 있는데, 아울러 제공인력으로 ①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나 ②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③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정하는 자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아래의 표에서 제시한 발달재활 관련 과목 중 17과목 이상(50학점 이상) 이수한 자, 발달재활 관련 교육 750시간 이상 이수한 자가 제공인력이 될 수 있다.

〈표 V-6〉 발달재활 관련 과목

구분	과목
청능 (16)	아동청각학, 청각보조기기, 청각해부생리학, 보청기적합, 보청기평가실습, 심리음향학, 청각학총론, 청능훈련, 행동청능평가(기초청각평가), 행동청능평가실습, 전기음향청능평가, 전기음향청능평가실습, 청성유발전위평가실습, 인공와우적합, 인공와우평가실습
미술 (16)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미술)심리진단 및 평가, 장애의 이해, 심리행동재활개론, 미술치료개론, 아동청소년미술치료, 성인 및 노인미술치료, 가족미술치료, 집단미술치료, 이상심리학, 표현기법, 색채심리, 매체연구, 미술치료사례연구, 인간과 윤리
음악 (21)	발달심리학, 발달장애심리학, 이상심리학, 성격심리학, 상담심리학, 음악치료개론, 신경심리학, 음악이론, 아동/청소년 대상 음악치료, 성인/노인 대상 음악치료, 음악심리학, 음악치료연구방법, 집단음악치료, 음악치료 철학과 윤리, 음악치료 진단과 평가, 인간행동과 음악, 음악치료 사례연구, 가족치료학, 임상현장실습과수퍼비전 II(아동/청소년 대상), 임상현장실습과수퍼비전 II(성인/노인 대상), 가족치료학
행동 (20)	응용행동 분석 개론, 임상행동관찰 및 측정, 긍정적 행동지원, 행동재활사 윤리와 철학, 행동장애아 진단 및 평가, 장애아동 평가, 아동발달, 이상행동 발달심리, 발달재활서비스, 행동지원 임상실습, 정서행동장애아 행동지원, 자폐스펙트럼장애아 행동지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 행동지원, 행동장애아 가족지원, 행동장애아 부모교육, 연구방법론, 행동지원 임상지도, 행동지원 상담, 학습증진과 행동지원, 문제행동 예방과 행동지원
놀이 (21)	발달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아동이상심리학), 성격심리학, 재활심리학, 상담심리학, 놀이치료 개론, 놀이치료 이론과 실제(놀이치료 이론 심화), 모래놀이치료, 집단놀이치료, 부부-가족놀이치료, 부모아동 놀이치료, 놀이치료 매체연구, 아동청소년 심리평가, 놀이치료 윤리학, 장애아 놀이치료, 청소년 놀이치료, 성인-노인 놀이치료, 놀이치료 연구방법론, 임상현장실습과수퍼비전 II(아동/청소년 대상), 임상현장실습과수퍼비전 II(성인/노인 대상), 임상현장실습과수퍼비전 II(특수아동, 장애우)
심리운동 (18)	장애의 이해(1~3), 아동 및 청소년발달, 심리운동 개론, 감각 및 지각발달, 심리운동을 통한 발달기 아동의 자아감형성, 신체경험을 통한 지원방법(1~3), 심리운동 인지발달, 심리운동과 언어발달, 심리운동과 운동발달, 심리운동을 통한 창의성발달, 수중활동과 트램폴린을 통한 심리운동, 물질경험을 통한 지원방법(1~3), 심리운동을 통한 사회성발달, 심리운동일지 작성방법, 심리운동수업모형, 심리운동에서의 발달진단, 사회경험을 통한 지원방법(1~3), 심리운동 적용과 실제(1~4)
재활심리 (17)	발달심리, 장애인심리, 상담 및 심리치료, 심리진단 및 평가, 재활심리학, 재활의 이해, 재활심리세미나, 신경심리 및 평가, 신경심리, 재활상담, 가족상담과 재활, 재활심리치료세미나, 집단심리치료 이론 및 실습, 행동치료 이론 및 실습, 장노년 심리와 재활, 발달정신병리, 부모교육

한편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의 경우 시설기준으로 ① 진단검사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독립된 공간, ② 발달재활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을 포함한다)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 ③ 전문적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적합한 구조와 필요한 설비, ④ 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 ⑤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동안 부모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 ⑥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 및 피난기구 등을 구비해야 한다.

〈표 V-7〉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시설 및 인력기준

구분	기준
시설기준	① 진단검사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독립된 공간 ② 발달재활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을 포함한다)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 ③ 전문적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적합한 구조와 필요한 설비 ④ 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 ⑤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동안 부모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 ⑥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 및 피난기구
인력기준	①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자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장애인복지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할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그 밖에 외국에서 취득한 관련 자격으로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아울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인력의 자격기준은 동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별표에 의해 명시되어 있고, 기준에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등록자격 취득자도 포함하고 있다.

〈표 V-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주요 내용 및 자격규정

구분	서비스내용	자격기준 규정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영·유아(만2~6세)아동대상기구에 “독서도우미”를 파견하여 독서지도 및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독서지도사(이하 “독서지도사”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문제행동아동이나 장애 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6개월 이상인 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문제행동아동의 정상적 성장을 위하여 문제행동 아동 및 부모대상 심리 상담과 놀이, 언어, 인지, 미술프로그램 등 조기개입 서비스 제공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문제행동아동이나 장애 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아동정서 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음악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통합)예술치료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인터넷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청소년이 중독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리검사 및 상담, 인터넷게임 대체 활동 및 부모상담 프로그램 등 제공	… “자격기본법” 에 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 학습 코칭 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자
아동돌봄서비스	부모의 경제활동 및 아동의 정상적 성장지원을 위해 기초돌봄이 취약한 아동들에게 건강, 학습, 정서 등 일상생활관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자격기본법” 제17에 의한 방과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다문화가정아동 발달지원서비스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교육과 사회적 향상을 위하여 우리말 배우기, 일상생활, 학습,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상담사, 독서지도사, 가정복지사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다문화가정지원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U-Health를 이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서민층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 건강 측정, 영양·운동 프로그램, u-Health 기기를 활용한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운동처방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자료 : 이철선(2012) 돌봄중상자 처우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구성

〈표 V-9〉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별 자격요건-1

자격증	관련분야 경력 및 학위 등	사업명
· 생활체육지도사		· 농촌마을 만들기 · 노인맞춤형운동처방 · 노후생활지원
	· 승마전공	· 청소년재활승마
· 레크리에이션지도사		· 노후생활지원
· 요양보호사		· 농촌마을만들기
· 사회복지사	· 학사학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장애인비전형성 · 영유아발달지원 · 노후생활지원
		· 장애인보조기기렌탈 · 청소년발달지원 · 노인정서지원
		· 노인마음건강 · 아동청소년비전형성 · 쓰담쓰담마음건강
		· 가족역량강화A · 가족역량강화B · (광역)정신건강토달케어
· 특수학교교사		· 장애인비전형성
· 재활치료사		· 장애인비전형성
· 언어재활사		· 영유아발달지원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시장형)
· 직업재활사		· 장애인보조기기렌탈
· 청소년상담사/지도사		· 영유아발달지원 · 아동청소년비전형성 · 청소년발달지원
		· 가족역량강화A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 전문상담교사		· 영유아발달지원 · 아동청소년비전형성 · 청소년발달지원
		· 가족역량강화A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 직업상담사		· 청소년발달지원 · 아동청소년비전형성
· 보육교사		· 영유아발달지원
· 정교사 (유치원/초등/특수학교)	·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 글로벌마인드형성 · 아동청소년비전형성 · 영유아발달지원
		· 노인맞춤형운동처방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 청소년발달지원
		· 가족역량강화A
· 간호사		· 영유아발달지원 · 쓰담쓰담마음건강 · 노인마음건강
		· (광역)정신건강토달케어 · 노인맞춤형운동처방 · 가족역량강화B
· 정신보건전문요원		· 영유아발달지원 · 쓰담쓰담마음건강 · 가족역량강화A
		· (광역)정신건강토달케어 · 노인마음건강 · 가족역량강화B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 임상심리사		· 영유아발달지원 · 청소년발달지원 · (광역)정신건강토달케어
		· 노인정서지원 · 쓰담쓰담마음건강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 아동청소년비전형성 · 가족역량강화A · 가족역량강화B
		· 노인마음건강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자격요건별 사업내용을 분석해 보면,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현재 농촌마을 만들기,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노후생활지원서비스의 제공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농촌마을 만들기 서비스의 제공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경우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중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장애인 비전형성서비스,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노후생활지원서비스, 노인마음건강서비스, 등 총 12개 사업의 제공인력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정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와 노인마음건강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인력이 될 수 있다.

〈표 V-10〉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별 자격요건-2

자격증	관련분야 경력 및 학위 등	사업명
· 임상영양사	· 임상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 실무경력 6개월 · 석사학위 소지자	· 암환자영양관리
· 평생교육사	· 아동교육론/청소년교육론 이수자 · 학사학위 이상	· 청소년발달지원 · 아동청소년비전형성 · 노후생활지원
· 심리상담관련 자격증	· 문제행동아동/장애아동재활/영유아발달관련 실무경력 6개월	· 영유아발달지원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시장형)
· 영상/멀티미디어관련 자격증	· 영상촬영/영상편집/멀티미디어/그래픽디자인 자격증 소지자	· 실버미디어
· 컴퓨터관련 자격증	· 웹디자인/GTQ/ITQ 자격증 소지자	· 실버미디어
· 국악관련 자격증	· 국악예술 노인교육분야 경력 1년	· 실버아트케어
· 보조공학사		· 장애인보조기기렌탈
· 아동리더십관련자격증	·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사회복지학과 전공자 ·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분야 경력 1년	· 청소년발달지원 · 아동청소년비전형성
· 음악/미술(통합)예술치료사	· 미술치료사 · 가족/사회/복지/교육/유아교육/예체능교육/재활/공예/무용/순수미술/응용미술/음악분야 석사학위 이상	· 노인정서지원 · 실버아트케어 · 아동정서발달지원 · 청소년재활승마
· 영양사		· 노인맞춤형운동처방
· 보건교육사		· 노인맞춤형운동처방
· 각종 기술사/기능장/ (산업)기사	·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실무경력 3년 · 지역교육감이 인정하는 면허증/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비전형성
· 승마경기지도사	· 승마관련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재활승마
· 문화예술교육사		· 아동정서발달지원
· 외국어지도관련 자격증	· 외국어지도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 글로벌마인드형성
· 건강가정사		· 가족역량강화A · 가족역량강화B
· 안마사		· 아이천사건강두드림

이외에도 임상심리사의 경우 암환자 영양관리사업의 제공인력이 될 수 있고, 평생교육사의 경우 청소년발달지원,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 노후생활지원서비스의 제공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상담심리관련 자격증으로는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의 제공인력이 될 수 있고,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보조공학사 자격증 소지자가 활동보조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2013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청소년 재활승마서비스의 경우 승마경기지도사 자격증이 필요하고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아울러 안마사는 아이천사 건강두드림 서비스의 제공인력이 될 수 있다.

〈표 V-11〉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별 학력조건-2

전공자	관련분야 학위 및 경력 등	사업명
· (특수)교육학	· 장애인복지 실무경력 6개월	· 장애인비전형성
	· 전문학사 이상 :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경력 1년	· 청소년발달지원 · 청소년비전형성 · 아동청소년비전형성 · 청소년비전형성지원
· 재활관련학	· 학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6개월	· 노인정서지원
	· 장애인복지 실무경력 6개월 · 재활학/보조공학/작업치료학/물리치료 학사학위 이상	· 장애인비전형성 · 장애인보조기기렌탈
· 심리/상담/ 언어치료학	· 전문학사 이상 : 실무경력 6개월 · 학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3개월 · 석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1개월	· 영유아발달지원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시장형)
	· 전문학사 이상 : 실무경력 1년 · 학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6개월 · 석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1개월	· 가족역량강화A
	· 학사학위 이상	· 가족역량강화B
	· 심리학 전공자 : 장애인복지 실무경력 6개월 · 심리학 학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6개월	· 장애인비전형성 · 노인정서지원
· (통합)예술치료학	· 음악/미술/예술치료학 석사학위 이상 : 임상경력 300시간	· 청소년재활승마 · 아동정서발달지원
	· 음악/미술/예술치료학 전문학사 이상 : 실무경력 6개월 · 음악/미술/예술치료학 학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3개월 · 음악/미술/예술치료학 석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1개월	· 영유아발달지원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시장형)
	· 미술치료학 학사학위 이상	· 노후생활지원
	· 전문학사 이상 : 실무경력 6개월 · 학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3개월 · 석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1개월	· 영유아발달지원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시장형)
· 아동청소년학	· 전문학사 이상 : 실무경력 1년 · 학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6개월 · 석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1개월	· 가족역량강화A
	· 전문학사 이상 :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경력 1년	· 청소년발달지원 · 청소년비전형성 · 아동청소년비전형성
· 유아교육학	· 전문학사 이상 : 실무경력 6개월 · 학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3개월 · 석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1개월	· 영유아발달지원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시장형)
	· 전문학사 이상 : 실무경력 1년 · 학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6개월 · 석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1개월	· 가족역량강화A

다음으로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학력조건으로는 장애인비전형성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지원서비스 등은 특수교육학 졸업자로서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 이상의 이되 실무경력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필요하다. 또한 재활관련학과의 경우 장애인비전형성서비스와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등의 제공인력이 될 수 있지만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유아교육학과의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을 기준으로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의 제공인력이 될 수 있다.



〈표 V-12〉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별 학력조건-2

전공자	관련분야 학위 및 경력 등	사업명
· 사회복지학	· 전문학사 이상 : 실무경력 6개월 · 학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3개월 · 석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1개월	· 영유아발달지원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시장형)
	· 전문학사 이상 : 실무경력 1년 · 학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6개월 · 석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1개월	· 가족역량강화A
	· 전문학사 이상 :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경력 1년	· 청소년발달지원 · 청소년비전형성지원 · 아동청소년비전형성
	· 학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6개월 · 학사학위 이상	· 노인정서지원 · 가족역량강화B
· 노인복지학	· 학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6개월	· 노인정서지원
· 보육학	· 전문학사 이상 : 실무경력 6개월 · 학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3개월 · 석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1개월	· 영유아발달지원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시장형)
	· 전문학사 이상 : 실무경력 1년 · 학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6개월 · 석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1개월	· 가족역량강화A
	· 전문학사 이상 : 실무경력 6개월 · 학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3개월 · 석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1개월	· 영유아발달지원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시장형)
· (특수)체육학	· 전문학사 이상 : 실무경력 6개월 · 학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3개월 · 석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1개월 · 전문학사 이상 : 운동지도경력 1년	· 노인맞춤형운동처방
· 방송영상/미디어영상학	· 전문학사 이상	· 실버미디어
· 예체능학	· 음악분야 학사학위 이상	· 노후생활지원
	· 도예/미술/음악 분야 학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6개월 · 국악예술관련학과 4년제 졸업 이상	· 노인정서지원 · 실버아트케어
· 인문/사회/자연과학	· 전문학사 이상 :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경력 1년	· 청소년발달지원 · 청소년비전형성지원 · 아동청소년비전형성
· 관광학	· 전문학사 이상 :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경력 1년	· 청소년발달지원 · 청소년비전형성지원 · 아동청소년비전형성

〈표 V-13〉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별 경력조건-1

학위자	관련분야 경력	사업명
· 대학 졸업자	· 장애인복지 실무경력 2년	· 장애인비전형성
	· 학습프로그램 교과목관련 학사학위 이상	· 청소년발달지원 · 아동청소년비전형성
	· 음악교육과목의 악기전공 학사학위 이상	· 아동정서발달지원
	· 해당국/한국에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결혼이민자 · 외국어관련학과 졸업자	· 글로벌마인드형성
· 고등학교 졸업자	· 교습분야 전임교습경력 2년	· 청소년비전형성
· 전공자 및 재학생	· 재활동마관련 전공자 및 재학생	· 청소년재활승마

〈표 V-14〉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별 경력조건-2

기타	관련분야 경력	사업명
· 영상관련직종 경력자	· 방송국/프로덕션 등 영상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 촬영/편집/연출/음향/조명 분야 실무경력 3년	· 실버미디어
· 대회입상자	· 교습관련분야 전국규모 기능대회 입상자	· 청소년비전형성
· 교육 수료자	· 지자체 인증기관 외국어강사 교육과정 수료한 결혼이민자	· 글로벌마인드형성
· 자격기준 충족자	·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 충족자	· 아동청소년비전형성

## 2.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 교육기준

사회서비스의 제공인력 양성은 기본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기본교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의 경우 기본교육은 공통과정(20시간), 전문과정(20시간)을 비롯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실시되는 현장실습(10시간)으로 구성된다. 공통과정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문제상황과 해결, 서비스기록 및 보고 등의 서비스제공 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전문과정은 장애인복지 개관, 장애와 활동보조인 역할 이해를 포함하여 장애유형별 특성,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관리 등의 심화과정으로 구성되어있다. 다만,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공통과정 20시간을 감면해주기도 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 기본교육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240시간(이론 80시간, 실기실습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 이수 후 국가자격시험 합격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가사간병방문사업도 총 240시간의 교육(이론 80시간, 실기실습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을 이수하고 있다.

〈표V-15〉 바우처 사업별 기본교육 현황

	교육기관	구분	교육시간				비고	
			이론	실기	현장실습	총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요양보호사 교육원	-	80시간	80시간	80시간	240시간	-	
가사간병 방문사업		-	80시간	80시간	80시간	240시간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위탁교육 기관	신규	기본	20시간	20시간	-	40시간	기본과정심화과정 모두이수(총80시간)
			심화	10시간	30시간	-	40시간	
		경력	10시간	30시간	-	40시간	심화과정이수 (기본과정 면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위탁교육 기관	신규	공통	10시간	10시간	10시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실시	40시간	공통,전문과정 및 현장실습 모두 이수
			전문	14시간	6시간			
		경력	14시간	6시간		30시간	전문과정 및 현장실습 이수(공통과정면제)	
발달재활 서비스	-	-	-	-	-	40시간	우대자 20시간 면제 (특수교사/사회복지사/재활·장애인 전공자/1년이상 경력자)	
언어발달 지원사업	-	-	-	-	-	40시간		

자료 : 보건복지부(2013a), 보건복지부(2013b), 보건복지부(2013c)자료 재구성

〈표 V-16〉 바우처 사업별 보수교육 현황

	교육기관	교육시간			비고
		상반기	하반기	총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자체교육	2시간 2회	2시간 2회	8시간 4회	
가사간병 방문사업	제공기관 자체교육	2시간 2회	2시간 2회	8시간 4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제공기관 자체교육 교육기관 위탁교육			8시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제공기관 자체교육			20시간 이상 4회	
발달재활 서비스	-			8시간 이상	신규자는 6개월 이후
언어발달 지원사업	-			8시간 이상	신규자는 6개월 이후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연1회 이상 의무참석

자료 : 보건복지부(2013a), 보건복지부(2013b), 보건복지부(2013c)자료 재구성

한편,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의 기본교육은 신규자와 경력자로 구분할 수 있다. 신규자의 경우 기본과정 40시간, 심화과정 40시간 총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반면, 경력자(4)의 경우 기본과정 40시간을 감면하여 심화과정 40시간의 교육만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앞서 제시한 세 영역의 기본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활동보조의 기본교육인 40시간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의 교육이수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가사간병 및 노인돌봄의 경우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제공인력의 질을 담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상·하반기 각 2시간씩 연 4회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바우처결제 단말기 사용법, 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등의 콘텐츠로 구성 되어 있다. 가사간병방문사업의 보수교육도 상·하반기 각 2시간씩 연 4회 실시하고 있고, 교육내용도 바우처 결제 단말기 사용법 및 응급처치 요령 등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유사하다. 가사간병방문사업의 보수교육은기관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혹은 전담기관으로 교육을 요청하면 각 서비스제공기관에 강사가 파견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연 8시간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전담기관 혹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주요 제공인력인 활동보조인의 역량강화와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서비스 제

공방법, 활동지원급여 제공기준이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이해, 응급처치요령 등을 연 2회 이상 서비스 제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 활동보조와 유사한 돌봄서비스의 보수교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수교육의 경우 노인돌봄사업은 연간 4시간,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연간 20시간, 산모신생아사업은 8시간 이수가 필요하다.

〈표 V-17〉 바우처 사업별 보수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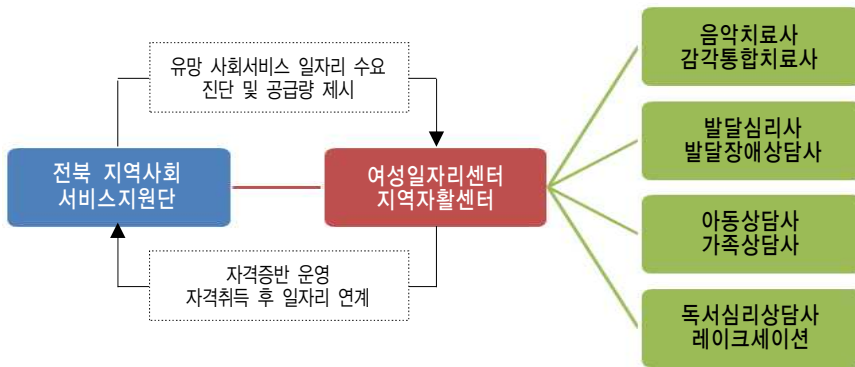
사업명	교육기관	교육시간	교육내용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자체교육	연간 4시간(반기별 2시간) 제공기관 자체적으로 보수교육 실시	바우처결제 단말기 사용법, 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등
가사간병 방문사업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상반기 각 2시간씩 연4회 계약체결 후 보수교육 실시	바우처결제 단말기사용법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연 보수과정 8시간 실시	응급처치, 건강과 돌봄, 모유수유 등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자체교육	연간 20시간(연 2회 이상 실시) [40시간, 유사경력자 20시간]	응급처치요령,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등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별 특성을 감안해 보수교육 실시	

### 3.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일자리 연계 방안

#### 1) 유망사회서비스분야 자격취득과정 및 일자리 연계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경우 사회환경의 변화로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관련 일자리는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사회서비스분야는 치료와 재활을 강조하는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아동과 장애인 그리고 노인대상 재활 및 치료 관련 사회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기관만 등록할 수 있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제공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망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의 취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유망사회서비스 분야의 잠재적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자격증반을 개설 운영하여 일자리를 연계해야 한다.

〈그림 V-1〉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연계방안



현재 전라북도에서 새일센터와 일자리센터 등에서 개설된 자격증반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와 방과 후 아동지도사, 영양보호사, 미술심리 상담사 등 총 5개 사회서비스 관련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같은 자격증 반 운영은 현재의 높은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대상별로 지역일자리 자원(자활센터, 여성일자리센터 등)과 연계하여 유망 서비스의 민간 자격증 취득반을 개설운영하여 관련 분야의 제공인력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표 V-18〉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증 개설 현황

구분	자격증 개설강좌	관련 일자리
새일센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산모신생아 방문도우미
	방과후 아동지도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돌봄서비스)
	영양보호사	산모신생아 방문도우미,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노인돌봄비, 장애인활동지원
	미술심리상담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자리센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과후 아동지도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돌봄서비스)
	아동청소년 학습코칭지도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터넷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결국,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연계를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사회서비스 시장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전제로 해당 사회서비스 중 시장화가 용이한 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 자격증반을 지역의 다양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기관과 연계하여 개설하고, 전문가자격증반을 이수한 사람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유망한 자격증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는 관련 사회서비스의 분야의 전문가자격증을 제시한 것이다.

〈표 V-19〉 초등학교 대상 유망 사회서비스별 전문가자격증

	예체능 교육	체형학습 프로그램	정서발달 서비스 (첼로, 피아노)	정규교과 학습지도 서비스	외국어 교육서비스	체육교실	학업문제 상담서비스	자녀진로 지도 서비스	게임중독 상담서비스	방과후 돌봄서비스
국가 자격증				① 정교사 ② 준교사		① 생활체육지도자 ② 경기지도자	① 임상심리사 ② 보육교사	① 직업상담사 ② 평생교육사 ③ 보육교사	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② 정신보건간호사 ③ 정신보건 심리사 ④ 청소년 상담사 ⑤ 사회복지사 ⑥ 임상심리사 ⑦ 전문상담교사	① 임상심리사 ② 보육교사 ③ 사서교사 ④ 영양교사 ⑤ 보건교사
민간 자격증	① 사회서비스관리사 ② 미술학습지도사 ③ 유아놀이교육사 ④ 국악지도사 ⑤ 음악실기지도사 ⑥ 난타지도사 ⑦ 피아노/플룻지도사 ⑧ 미술지도사 ⑨ 북아트지도사 ⑩ 유아무용/발레 지도사 ⑪ 전통놀이문화지도사	① 사회서비스관리사 ② 웃음코디네이터 ③ 아동레크리에이션 ④ 미술교육지도사 ⑤ 어린이요리교육지도사 ⑥ 풍선아트지도사 ⑦ 어린이요가지도사 ⑧ 예절교육지도사 ⑨ 리더십지도사	① 미술정서인지상담사 ② 발달심리자격증 ③ 미술심리상담사 ④ 아동발달상담사 ⑤ 아동발달전문가 ⑥ 행복컨설턴트 ⑦ 웃음/울음지도사	① 사회서비스관리사 ② 영재지도사 ③ 몬테소리교육사 ④ 주산암산교육사	① 영어지도사 ② 중국어지도사 ③ 영어동화구연지도사 ④ 영어태권도지도사	① 사회서비스관리사 ② 아동발달상담사 ③ 아동발달전문가 ④ 재활태권도전문가 ⑤ 특수체육지도사 ⑥ 유아체육지도사	① 사회서비스관리사 ② 심리분석사 ③ 심리상담사 ④ 아동상담사 ⑤ 전문카운슬러 ⑥ 학교폭력상담사 ⑦ 학교폭력예방전문강사 ⑧ 자기주도학습지도사	① 사회서비스관리사 ② 심리분석사 ③ 심리상담사 ④ 아동상담사 ⑤ 특수교육경영사	① 심리상담사 ② 도형상담사 ③ 사회서비스관리사 ④ 심리분석사 ⑤ 아동상담사 ⑥ 유아비디오중환 재활전문가	① 독서심리상담사 ② 미술심리상담사 ③ 베이비시터 ④ 부모사랑양육사 ⑤ 도형상담사 ⑥ 사회서비스관리사 ⑦ 가베지도사 ⑧ 동화구연사 ⑨ 두뇌운동전문지도사 ⑩ 영재지도사 ⑪ 브레인트레이너 ⑫ 아동성격지도사

〈표 V-20〉 중고등학교 대상 유망 사회서비스별 전문자격증

	예체능 교육	체험학습 프로그램	정서발달 서비스 (첼로, 피아노)	정규교과 학습지도 서비스	외국어 교육서비스	체육교실	학업문제 상담서비스	자녀진로 지도 서비스	게임중독 상담서비스	방과후 돌봄서비스
국가 자격증		① 실기교사		① 정교사 ② 준교사 ③ 한국어교원		① 생활체육지도자 ② 경기지도자	① 임상심리사 ② 보육교사	① 직업상담사 ② 평생교육사 ③ 보육교사 ④ 청소년지도사	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② 정신보건간호사 ③ 정신보건 심리사 ④ 청소년 상담사 ⑤ 사회복지사 ⑥ 임상심리사 ⑦ 전문상담교사	① 임상심리사 ② 보육교사 ③ 사서교사 ④ 영양교사 ⑤ 보건교사
민간 자격증	① 사회서비스관리사 ② 스피치지도사 ③ POP(손글씨)지도사 ④ 독서지도사 ⑤ 국악지도사 ⑥ 음악실기지도사 ⑦ 난타지도사 ⑧ 피아노/플룻 지도사 ⑨ 미술지도사 ⑩ 북아트지도사 ⑪ 전통놀이문화지도사	① 사회서비스관리사 ② 웃음코디네이터 ③ 아동레크리에이션 ④ 요가지도사 ⑤ 예절교육지도사 ⑥ 리더십지도사	① 미술정서인지상담사 ② 발달심리자격증 ③ 미술심리상담사 ④ 아동발달상담사 ⑤ 아동발달전문가 ⑥ 행복컨설턴트 ⑦ 웃음/울음지도사	① 사회서비스관리사 ② 국어문장사 ③ 글짓기지도사 ④ 한국어지도사 ⑤ 한자한문지도사 ⑥ 논술지도사 ⑦ 수학지도사	① 영어지도사 ② 중국어지도사 ③ 영어동화구연지도사 ④ 영어태권도지도사	① 사회서비스관리사 ② 요가지도사 ③ 운동지도사 ④ 유소년체육지도사	① 사회서비스관리사 ② 심리분석사 ③ 심리상담사 ④ 아동상담사 ⑤ 전문카운슬러 ⑥ 학교폭력상담사 ⑦ 학교폭력예방전문강사 ⑧ 자기주도학습지도사	① 사회서비스관리사 ② 심리분석사 ③ 심리상담사 ④ 아동상담사 ⑤ 전문카운슬러 ⑥ 특수교육경영사 ⑦ 청소년진로코칭지도사 ⑧ 인제파견지도사 ⑨ 커리어코치 ⑩ 평생교육경영사	① 심리상담사 ② 도형상담사 ③ 리딩아트 카운슬러 ④ 사회서비스관리사 ⑤ 아동상담사 ⑥ 유아비디오증후군 재할전문가 ⑦ 전문카운슬러	① 독서심리상담사 ② 미술심리상담사 ③ 베이비시터 ④ 부모사랑양육사 ⑤ 도형상담사 ⑥ 미술심리지도사 ⑦ 사회서비스관리사 ⑧ 스토리텔링지도사 ⑨ 방과후지도사

〈표 V-21〉 노인 대상 유망 사회서비스별 전문가자격증

	방문건강상담 및 간호 서비스	운동처방	보조기구렌탈	취업연계지원	가족상담	여행 및 여가	노후설계지원	부양가족 휴식지원	식사배달	주거환경 개선	주야간 돌봄	취미여가 활동지원	
국가 자격증	① 물리치료사 ② 보건교육사 ③ 안마사 ④ 응급구조사 ⑤ 임상병리사 ⑥ 의료관리자 ⑦ 의무기록사 ⑧ 처과기공사 ⑨ 처과위생사 ⑩ 간호사 ⑪ 간호조무사 ⑫ 의사 ⑬ 처과의사 ⑭ 한의사	① 생활체육지도자	① 의공기사 ② 의공산업기사 ③ 의료전자기능사 ④ 의지보조기기사	① 직업상담사 ② 직업능력개발 훈련고사 ③ 산업안전/ 위생지도사 ④ 경영지도사 ⑤ 기술지도사 ⑥ 경비지도사 ⑦ 소방안전교육사	① 임상심리사	① 소비자전문 상담사 ② 경기지도자 ③ 생활체육지도자		① 사회복지사	① 영양사 ② 위생사				① 경기지도자 ② 생활체육지도자 ③ 지동차운전강사
민간 자격증	① 보험심사관리사 ② 의료보험사 ③ 의료서비스 코디네이터 ④ 의료정보관리사 ⑤ 건강보험사무 관리사 ⑥ 보험심사평가사 ⑦ 사회서비스 관리사 ⑧ 호스피스 전문봉사자	① 노인복지체육 ② 사회서비스 관리사 ③ 실버재활운동사 ④ 특수체육치료사 ⑤ 노인운동지도사 ⑥ 생활건강지도사 ⑦ 수중운동지도사	① 사회서비스관리 사 ② 서비스강사 ③ 천연염색강사	① 사회서비스관리 사 ② 서비스강사 ③ 천연염색강사	① 가정행복설계사 ② 가족상담사 ③ 교정교화상담사 ④ 도형상담사 ⑤ 사회서비스관리 사 ⑥ 심리재활전문가 ⑦ 전문카운슬러 ⑧ 행복컨설턴트	① 노인레크리에이 션 ② 노인복지체육 ③ 사회서비스관리 사 ④ 스트레스관리사 ⑤ 웃음코디네이터 ⑥ 자원봉사관리사 ⑦ 자원봉사지도사 ⑧ 가요(CCM) 지도사 ⑨ 국악지도사 ⑩ 노래교실지도사 ⑪ 댄스지도사	① 사회서비스관리 사 ② 행복컨설턴트	① 사회서비스관 리사 ② 행복컨설턴트	① 사회서비스관리 사	① 사회복지모금전 문가 ② 사회서비스관리 사 ③ 생활안전관리사 ④ 환경관리지도사	① 사회서비스관리 사 ② 호스피스전문 봉사자	① 노인레크리에이 션 ② 노인복지체육 ③ 사회서비스 관리사 ④ 웃음코디네이터 ⑤ 자원봉사관리사 ⑥ 자원봉사지도사 ⑦ 가요(CCM) 지도사 ⑧ 국악지도사 ⑨ 노래교실지도사 ⑩ 민화지도사 ⑪ 비즈아트지도사 ⑫ 양초공예지도사 ⑬ 종이공예지도사 ⑭ 댄스지도사 ⑮ 실버웃음 체조지도사 ⑯ 다도교육지도사	



〈표 V-22〉 장애인 대상 유망 사회서비스별 전문자격증

	건강관리 및 상담 서비스	운동처방	기초보건서비스	보조기구렌탈	취업 및 직업	가족상담	여행 및 여가	주거환경 개선	활동보조 지원	재활치료	주야간 돌봄
국가 자격증	① 물리치료사 ② 보건교육사 ③ 안마사 ④ 응급구조사 ⑤ 임상병리사 ⑥ 의료관리자 ⑦ 의무기록사 ⑧ 치과기공사 ⑨ 치과위생사 ⑩ 간호사 ⑪ 간호조무사 ⑫ 정신보건간호사 ⑬ 의사 ⑭ 치과의사 ⑮ 한의사	① 생활체육지도자	① 물리치료사 ② 방사선사 ③ 안경사 ④ 치과기공사 ⑤ 치과위생사 ⑥ 약사 ⑦ 한약사 ⑧ 한약제조사 ⑨ 의사 ⑩ 치과의사 ⑪ 한의사	① 의공기사 ② 의공산업기사 ③ 의료전자기능사 ④ 의지보조기기사	① 직업상담사 ②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 ③ 산업안전/위생지도사 ④ 경영지도사 ⑤ 기술지도사 ⑥ 경비지도사 ⑦ 소방안전교육사	① 임상심리사	① 자동차운전강사			① 물리치료사 ② 안마사 ③ 작업치료사 ④ 보건교육사	① 간호사 ② 간호조무사
민간 자격증	① 간병사 ② 기본인명구조원 ③ 의료서비스 코디네이터 ④ 의료정보관리사 ⑤ 보험심사관리사 ⑥ 사회보험사 ⑦ 사회서비스관리사	① 자세교정사 ② 사회서비스관리사 ③ 특수체육치료사 ④ 장애인태권도사범 ⑤ 운동지도사	① 병원경영관리자 ② 병원경영컨설턴트 ③ 사회서비스관리사 ④ 병원서비스매니저 ⑤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⑥ 병원코디네이터 ⑦ 병원행정사 ⑧ 병원행정실무 ⑨ 병원행정실무 코디네이터 ⑩ 보험심사관리사	① 발달장애상담사 ② 발달진단평가사 ③ 사회서비스관리사	① 사회서비스관리사 ② 서비스강사 ③ 천연염색 강사	① 가정행복설계사 ② 가족상담사 ③ 교정교회상담사 ④ 도형상담사 ⑤ 사회서비스관리사 ⑥ 심리재활전문가 ⑦ 전문카운슬러 ⑧ 행복컨설턴트	① 사회서비스관리사 ② 스트레스관리사 ③ 웃음코디네이터 ④ 자원봉사관리사 ⑤ 자원봉사지도사 ⑥ 점역교정사자격증 ⑦ 가요(CCM)지도사 ⑧ 국악지도사	① 사회복지모금전문가 ② 생활안전관리사 ③ 사회서비스관리사 ④ 환경관리지도사	① 사회서비스관리사 ② 수화통역사 ③ 호스피스전문봉사자 ④ 간병사	① 언어발달교육사 ② 언어발달장애지도사 ③ 언어재활교육사 ④ 언어재활지도사 ⑤ 청각관리사 ⑥ 청능사 ⑦ 미술재활지도사 ⑧ 발달심리자격증 ⑨ 발달장애상담사 ⑩ 발달진단평가사 ⑪ 재활레크리에이션 ⑫ 재활태권도전문가 ⑬ 발달놀이교육사 ⑭ 특수아동지도사	① 수화통역사 ② 호스피스전문봉사자

## 2) 농촌지역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가점제 도입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및 신규사업 선정시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에 기관 운영분야의 가점제를 도입하여 많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시장 진입을 유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라북도의 사회서비스 중 구매력이 높은 시장성이 용이한 사업의 업종은 농촌지역의 경우 자활기업 22개, 협동조합 7개 이지만 현재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중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등록된 업체는 총 3개 밖에 되지 않는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사회서비스 수요조사 결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부재가 제공기관 등록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절차, 지역별 유망사회서비스 수요 등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이 필요하다.

〈표 V-23〉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시장수요 사업(구매력 기준 50% 이상) 및 제공사업 현황

미취학아동	이동청소년	장애아동	노인	장애인
방문보육	방문학습지도	예술치료	방문건강관리	건강관리상담
자녀놀이지도	외국어교육	사회적응훈련	운동처방	운동처방
부모양육훈련	정서발달	가족상담	보조기구렌탈	기초보건
문화여가	부모양육훈련	비장애인자녀상담	취업연계	보조기구렌탈
방문보건	자녀진로지도	방과후 돌봄	부양가족지원	가족상담
자녀정서발달	체험학습	진로상담	식사배달	여행여가
	방과후 돌봄	문화체험	주야간돌봄	활동보조지원
	취미예능교실	여가활동지원	취미여가활동지원	재활치료

〈표 V-24〉 전라북도 자활기업현황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간병	2 (2)	2 (2)	3 (2)	1 (1)	0 (0)	1 (1)	0 (0)	1 (0)	0 (0)	0 (0)	1 (0)	0 (1)	0 (0)	0 (2)
재활용	4 (1)	0 (0)	2 (2)	1 (1)	1 (0)	2 (0)	0 (0)	0 (1)	0 (1)	1 (0)	0 (0)	0 (0)	0 (0)	0 (1)
제조	0 (4)	0 (0)	2 (4)	0 (0)	0 (1)	1 (0)	0 (0)	0 (1)	0 (1)	0 (1)	0 (0)	0 (0)	0 (0)	0 (0)
음식	5 (6)	0 (3)	6 (4)	3 (3)	3 (0)	2 (2)	0 (3)	1 (1)	1 (2)	0 (1)	0 (2)	5 (2)	0 (1)	0 (4)
방역/청소	1 (2)	2 (2)	2 (0)	1 (1)	1 (0)	0 (2)	0 (1)	1 (2)	1 (1)	0 (0)	1 (2)	0 (2)	2 (2)	0 (2)
사회서비스	2 (5)	1 (6)	0 (4)	1 (2)	0 (1)	0 (1)	1 (0)	0 (0)	0 (1)	0 (1)	0 (1)	0 (0)	2 (1)	0 (1)
세차	0 (1)	1 (1)	1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2 (7)	3 (5)	3 (10)	1 (0)	3 (1)	0 (2)	0 (3)	1 (0)	2 (3)	0 (3)	2 (3)	1 (1)	1 (1)	1 (2)

〈표 V-25〉 전라북도 주요 협동조합 현황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건설업	1		1		1		1							
교육업	2		1		1		3			1				
농림어업	5	4	1	8	1	2	3	1		1	1		1	2
도소매업	12	2	7		3	1	3							
복지서비스	1	1		1	1									
음식숙박	2	1	2	1				1						
여가	13	1	3	1	1				1		2			
기타	17		4				2		1			1		

〈표 V-26〉 사회적 기업 및 자활기업 사회서비스 사업 등록 의향 사례조사

지역	기관유형	정부지원	대표자 학력	설립년도	사회서비스 인지 정도	사회서비스 전망	사회서비스 사업 의향	사회서비스분야 진출에 필요한 정책	보유자격증
전주	사회적 기업	지원	대학원 졸업	2013년	●	점차 확대	여건되면 등록추진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 발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전주	자활기업	지원	전문대 졸업		▲	매우 확대	여건되면 등록추진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예술치료사, 컴퓨터관련 자격증, 정교사
전주	사회적 기업	지원		2010년	▲	매우 확대	여건되면 등록추진	정보제공과 취업연계	없음
순창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대학 졸업	2013년	▲	점차 확대	여건되면 등록추진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없음
전주	사회적 기업	지원	대학 졸업	2013년	▲	점차 확대	여건되면 등록추진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컴퓨터관련자격증
전주	사회적 기업		대학 졸업		×	점차 확대	의향 없다	유망 사회서비스분야 발굴	
전주	예비 사회적 기업			2014년	×	점차 확대	여건되면 등록추진	정보제공과 취업연계	사회복지사, 영양사(보건교육사)
전주	사회적 기업	지원		2010년	×	점차 확대	여건되면 등록추진	정보제공과 취업연계	
완주	사회적 기업	지원	대학원 졸업	2007년	●	점차 확대	여건되면 등록추진	재정적 지원	사회복지사, 컴퓨터관련자격증
전주	협동조합	지원	대학 졸업	2011년	×	점차 확대	여건되면 등록추진	정보제공과 취업연계	컴퓨터관련자격증
전주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대학원 졸업	2013년	×	점차 확대	여건되면 등록추진	정보제공과 취업연계	생활체육지도사
고창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대학 졸업	2012년	×	점차 확대	여건되면 등록추진	정보제공과 취업연계	사회복지사, 산림기사, 컴퓨터관련자격증
남원	사회적 기업		대학 졸업	2011년	●	점차 확대	의향 없다	정보제공과 취업연계	사회복지사, 정교사, 평생교육사, 컴퓨터관련자격증 국악관련자격증, 문화예술교육사
고창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대학원 졸업	2011년	▲	점차 확대	여건되면 등록추진	재정적 지원	사회복지사, 컴퓨터관련자격증, 요양보호사
전주	협동조합	지원	대학 졸업		▲	점차 확대	의향 없다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익산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대학원 졸업	2012년	●	매우 확대	여건되면 등록추진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사회복지사, 정교사, 청소년상담사, 요양보호사 생활체육지도사, 컴퓨터관련자격증
군산	자활기업	지원	대학 졸업	2013년	▲	점차 확대	여건되면 등록추진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사회복지사, 컴퓨터관련자격증
남원	사회적 기업	미지원	대학 졸업	2007년	×	점차 확대	여건되면 등록추진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컴퓨터관련자격증
남원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대학원 졸업	2013년	×	점차 확대	지금바로 등록추진	정보제공과 취업연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군산	협동조합	미지원	대학 졸업	2003년	×	매우 확대	여건되면 등록추진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사회복지사

### 3) 사회서비스 바우처 일자리 급여표준화 추진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급여수준이 제공기관에 일임되어 있는 체계를 개선하여 경력과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급여수준 차별화 추진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저임금화는 사회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 따라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형태와 경력, 전문성 정도에 따른 급여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실태조사 결과, 동일한 사회서비스 내에서도 최소 임금과 최대임금의 격차 심화, 제공기관 관련 서비스의 급여표준화를 통해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많은 잠재 인력이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표 V-27〉 사회서비스 바우처 월근무시간별 평균임금차이

구분	구분	평균	최소임금 (만원)	최대임금 (만원)	현재급여 (만원)	희망급여 (만원)	
사업 유형	지역사회서비스	40시간 미만	65.18	40	100	101.0	171.5
		40-80시간 미만	136.67	120	150		
		80-120시간 미만	76.33	60	120		
		120-160시간 미만	155.00	110	200		
		160시간 이상	155.00	86	200		
	가시간병· 산모신생아 도우미	40시간 미만	69.60	40	90	83.6	110.0
		40-80시간 미만	60.00	60	60		
		80-120시간 미만	91.10	78	110		
		120-160시간 미만	100.00	100	100		
		160시간 이상	84.71	40	110		
	노인돌봄서비스	40시간 미만	76.00	40	120	78.3	113.4
		40-80시간 미만	65.00	65	65		
		80-120시간 미만	67.47	60	140		
		120-160시간 미만	102.50	100	110		
		160시간 이상	127.27	100	160		
	장애인활동보조	40시간 미만	50.00	20	80	98.7	157.5
		40-80시간 미만	40.00	40	40		
		80-120시간 미만	71.50	69	80		
		120-160시간 미만	87.50	80	100		
		160시간 이상	118.35	97	135		
장애아동재활치료	40시간 미만				157.2	223.1	
	40-80시간 미만	89.67	80	100			
	80-120시간 미만	220.00	200	240			
	120-160시간 미만	187.50	170	200			
	160시간 이상	141.67	100	200			
전체		90.26	8	240	92.1	137.9	

〈표 V-28〉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수요자 개인부담 적정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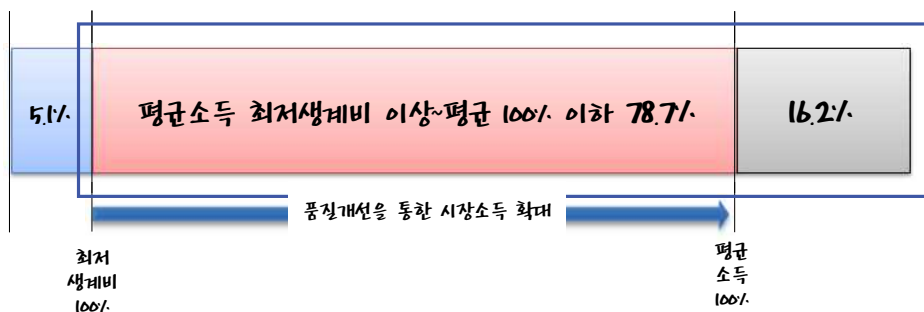
미취학아동		아동청소년		장애아동		노인		장애인	
방문보육	1-3만원	방문학습지도	1-3만원	예술치료	3-5만원	방문건강관리	1만원	건강관리상담	1만원 이하
자녀놀이지도	1-3만원	외국어교육	1-3만원	사회적응훈련	3-5만원	운동처방	1만원	운동처방	3-5만원
부모양육훈련	1만원이하	정서발달	1-3만원	가족상담	1만원	보조기구렌탈	1만원	기초보건	1만원 이하
문화여가	3-5만원	부모양육훈련	1-3만원	비장애자녀상담	1만원	취업연계	1만원	보조기구렌탈	1만원 이하
방문보건	3-5만원	자녀진로지도	1-3만원	방과후 돌봄	3-5만원	부양가족지원	1-3만원	가족상담	1만원 이하
자녀정서발달	1-3만원	체험학습	1-3만원	진로상담	1-3만원	식사배달	1만원	여행여가	1만원 이하
예술교육	3-5만원	방과후 돌봄	1-3만원	문화체험	1만원	주야간돌봄	1-3만원	활동보조지원	1-3만원
		취미에너지교실	1-3만원	여가활동지원	1만원	취미여가활동지원	1만원	재활치료	3-5만원

가령,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가시간병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서비스의 경우 최소임금과 최대 임금간의 격차가 크지 않지만, 지역사회서비스와 노인돌봄,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의 경우 기준 시간당 임금격차가 커 세 가지 사업 유형을 우선 급여 표준화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 4)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인증제 도입을 통한 일반시장 확대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10%의 적은 본인부담금으로 제공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면 차등지원을 통해 일정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최저생계비 이상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시장수요를 확대해야 만 관련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용이하다. 바우처소득만으로는 제공기관이 제공인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품질개선을 통한 일반 시장으로의 확대를 유인하여 제공기관의 확대와 더불어 제공인력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그림 V-2〉 전라북도 소득계층별 인구구성 및 시장소득 확대 기준



〈표 V-29〉 사회서비스 선택시 우선 고려사항

구분		서비스 품질	담당인력의 친절도	제공기관 접근성	이용비용 적절성	서비스 선호도	기타
지역	도시	33.5	1.8	11.6	21.9	31.3	
	농촌	54.1	22.0	1.8	2.8	18.3	.9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40.2	6.3	9.2	16.5	27.8	
	평균소득 100% 이상	12.5	62.5			25.0	
전체		40.1	8.4	8.4	15.9	26.9	.3

현재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등록제로 영리기관에게 까지 문호를 개방했지만 품질저하로 인해 제공기관 소득의 90%는 바우처 소득으로 채워지고 있고 나머지 10%만이 일반 시장에서 소득이 창출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여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분야 품질향상을 유인하고, 품질향상으로 검증된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일반 시장수요를 확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 제 6 장

### 요약 및 결론





##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전라북도의 도민의 복지욕구는 소득계층별로 매우 상이하고, 복지체감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이 같은 복지욕구를 소득분위별로 차별화해야 한다. 저소득층 중심의 복지는 특정 집단의 복지수혜를 밀집시키는 집중화현상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주요 납세자인 중산층의 소외감과 과잉복지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하게 된다.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소득계층 간 복지수혜의 형평화가 필요하다.

최근 전라북도의 맞춤형 복지시책에서 가장 노력하고 있는 분야는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전라북도는 지역사회서비스사업에만 약 1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여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복지시설 중심의 간접지원방식으로 제공되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바우처사업을 통해 평균소득 100%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맞춤형 운동처방,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주여성의 외국어 전문성을 활용하여 아동에게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농촌의 아이들에게는 전문 교향악단의 지휘아래 다양한 음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비용부담 때문에 보조기구를 살수 없었던 장애인에게는 약간의 실비만 받고 필요한 보조기구를 대여해주고 있고, 은퇴 후 사회참여에 목말라했던 노인들에게는 방송과 미디어 교육을 통해 시니어기자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파급력은 비단 대상의 보편성을 통한 체감도 향상에만 있지 않다. 전라북도가 사회서비스사업에 주목하는 것은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의 발굴하여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데 있다. 2012년 한해에만 매월 평균 9,000여명이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하였고, 8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이 정책집단의 복지욕구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한다면, 사회서비스는 다양한 정책집단의 수요와 함께 일자리정책이 결합된 지역의 수요도 함께 반영되어 있는 지역맞춤형 복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중산층 복지의 핵심시책으로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수요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정책 이해의 부족으로 이용자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공급기관의 편의성으로 사업개발이 이

루어지다보니 일반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혜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평균소득 100%의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되었지만 중산층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까지 사업과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중산층이 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복지수요의 정밀한 진단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주민에게 맞는 사회서비스의 다양화는 결국 일반 시장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면밀한 수요분석을 기초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6대 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수요분석과 함께 일자리 수요를 분석하였고,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을 크게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연계를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사회서비스 시장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전제로 해당 사회서비스 중 시장화가 용이한 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자격증반을 지역의 다양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기관과 연계하여 개설하고, 전문자격증반을 이수한 사람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및 신규사업 선정 시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에 기관운영분야의 가점제를 도입하여 많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시장 진입을 유인해야 한다.

셋째,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급여수준이 제공기관에 일임되어 있는 체계를 개선하여 경력과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급여수준 차별화 추진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저임금화는 사회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 따라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형태와 경력, 전문성 정도에 따른 급여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바우처소득만으로는 제공기관이 제공인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품질개선을 통한 일반 시장으로의 확대를 유인하여 제공기관의 확대와 더불어 제공인력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여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분야 품질향상을 유인하고, 품질향상으로 검증된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일반 시장수요를 확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결국, 사회서비스분야 바우처사업의 일자리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일반 시장수요 확대를 전인함으로써 그만큼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유망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신규수요를 발굴하여 지역주민에게 맞는 사업들을 제공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 강혜규(2012).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세경(2014) 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 박세경 외(2014)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지역적 분포. 보건사회연구원
- 이진면(2008). 사회서비스의 산업적 분석과 발전방안. 산업연구원
- 이중섭 외(2013).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 수요분석 및 지역맞춤형 사업개발. 전북발전연구원
- 이철선(2012)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구성
- 장병일 외(2012). 사회서비스 R&D 발전계획 및 로드맵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3)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보건복지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개요
- 보건복지부(201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14)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4)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4) 장애인활동지원시스 사업안내
- 기획재정부(2013). 사회서비스 일자리 49만개 창출 보도자료





*Jthink* 2014-PR-14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요분석 및 일자리 연계방안 연구**

---

발행인 | 강현직

발행일 | 2014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560-8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효자동3가 1052-1)

전화:(063)280-7100 팩스:(063)286-9206

---

ISBN 978-89-6612-121-2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







560-86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쭈로 1696(효자동 3가 1052-1)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www.jthink.kr](http://www.jthink.kr)

